

발 간 등 록 번 호

76-9010000-000147-01

경남교육
아이좋아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1949-1985

유장근·박영주·문채경 지음



| 저자 약력 |

유 장 근

오랫동안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해당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장, 부산경남사학회장, 상하이
사범대학 교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상하이 지역 자선단체의 근대적 성장과 좌절〉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현대중국의
중화제국 만들기〉, 〈마산의 근대사회〉, 〈걸어서 만나는
마산이야기〉 등이 있다.

박 영 주

경남대학교 박물관 비상임연구위원

문 채 경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연구사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1949-1985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1949-1985

유장근·박영주·문채경 지음

책 머리에

마산지역에 존재했던 고등공민학교를 연구하면서 내내 그 시대를 회고해 보았다. 그 시대란 마산에 이런 종류의 학교가 설립되던 1950년대 초부터 최종적으로 소멸된 1980년대 중반기까지의 약 30여 년을 지칭한다. 이 시기에는 밤낮으로 고생을 하며 이 학교를 다닌 이들이 적지 않았다.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다녔으면서도 정식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은 어찌 보면 나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거나 혹은 조금 앞섰거나 뒤늦게 태어난 세대들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을 있게 만든 주역의 일부이기도 하다.

실제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대였다. 해방에 따른 신국가의 모색과 식민지 유산 처리,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터진 6·25전쟁과 처절한 파괴, 그에 뒤따른 가난과 소외, 차별, 경쟁, 대립 따위가 우리를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몸부림쳤던 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등공민학교는 이런 시대를 재현해 보면서 평가하기에 적절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들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산시 상남동의 역사문화 유산을 조사하던 중, 그곳에서 선화고등공민학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선화에 대하여 짝막한 글을 남긴 이후 나에게는 마산지역 전체의 고등공민학교를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숙제가 남게 되었다.

이 글은 당시의 숙제를 해결한 결과물이다. 그간 저자들은 나름대로 마산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일부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등공민학교는 마산이나 경남의 교육사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온 부분이라서 그 공백의 일부라도 채워 넣어보고 싶다는 책임 의식이 일었다.

다행히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의 격려와 문채경 기록연구사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박영주 선생은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기록물 밖에 있는 지역사회의 맥락들을 들려주었으며, 문창문화연구원과 한석태 원장의 지원은 이 연구를 완성하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되어 주었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는 또한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했던 서익수 교장과 같은 시기에 공민학교를 책임졌던 고명천 교장, 그리고 당시 고등공민학교를 다녔던 여러분들이 유익한 증언을 해 주셨다. 이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에 못지않게 당시 사회교육의 뜻을 이해하고 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앞장섰던 마산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의 최봉선, 마산노동고등공민학교의 노현섭과 웨슬레고등공민학교의 서익수, 마산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권태훈, 대창고등공민학교의 신광부,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김인택과 같은 설립자 등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에게도 뒤늦게나마 헌사를 올리고 싶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책은 그 어려운 사정에도 고등공민학교에서 미래를 도모했던 졸업생들 덕이다.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럼에도 이 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이 기관에 관련 아카이브가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 연구이기도 하였다.

임인년 새해에

진동의 사유실思愈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유장근 씀

목차

- 1. 잊혀진 학교와 학생들 ● ● 11
- 2. 고등공민학교의 출발과 초기 양상 ● ● 15
 - 1) 사회교육의 개념과 제도화 과정 ● ● 16
 - 2) 6.25전쟁 전후 고등공민학교의 양상 ● ● 26
 - 3) 경남지역 고등공민학교의 흐름 ● ● 35
- 3.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전개 과정 ● ● 45
 - 1) 공민교육의 전통과 초기의 설립과정 ● ● 46
 - 2) 중기의 전성기와 운영체제 ● ● 77
 - 3) 후기의 새로운 발전과 고등공민학교의 쇠퇴 ● ● 126
- 4.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의의와 특징 ● ● 171
- 표·그림 참조 ● ● 186
- 참고문헌 ● ● 189

마산지역 고등국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1



잊혀진 학교와 학생들





잊혀진 학교와 학생들

이 글은 해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제도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 사라진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제도 교육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그것은 제도와 사회교육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교육 당국이나 해당 교육의 수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대로 된 연구서는 없으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논문 역시 생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고등공민학교가 거의 사라진 오늘날¹⁾ 그들은 사실상 잊혀진 존재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 때 고등공민학교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또 사회교육의 선두로, 빈민가정 자녀 교육의 주요 기관으로 각광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해방과 전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한글의 해독능력 향상에 주력했던 공민학교와 더불어 공민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과 사회발전에 적지 않게 공헌한 주역이었다.

이 글은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간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으로 서울에 치중되어 있었고, 연구 주제 또한

1) 현재 공식적으로 존속하는 건 통영시의 충무고등공민학교가 유일할 것이다.

이들 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 이외의 곳에 대해서는 경북지역이, 구체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는 충남의 홍성, 전남의 신안, 그리고 마산 등 일부의 고등공민학교를 검토한 연구들이 있었다.²⁾

이들 연구는 유용하기는 하지만 필자가 원하는 설립 주체나 배경, 그 흐름과 역사적 맥락 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고등공민학교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들 학교의 개념과 존립의 필요성, 그리고 초기의 전개과정 등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고등공민학교의 전국적인 양상과 그에 연관된 경남도내의 변화도 검토하여 보고 싶다.

이 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러한 전개 과정 속에서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가 언제 어떻게 왜 누구의 손으로 시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기록물들을 보면 동진, 일신, 마산고등, 마산여자고등, 의신, 웨슬레, 구세군, 선화 등 8종이다. 대창고등공민학교도 교육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지 않은 탓에 신문보도나 인터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언급될 수 밖에 없었다.

2) 이들 성과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제시할 것이다.

마산지역 고등국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2



고등공민학교의 출발과 초기 양상



사회교육의 개념과 제도화 과정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 부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선은 식민지교육체제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면서 그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6-3-3-4제를 중심으로 논의된 학제와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원 양성과 자격 등이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2월 14일에 마무리된 학제는 6-6-4제였으나 정부 수립 이후 이 학제는 6-3-3-4제로 조정되었고, 그것은 민주적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는 정규제도 속에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³⁾

그러나 더 많은 문제들이 이 정규 학제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정규 학제에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취약계층이 농어촌과 도시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들은 무엇보다도 문해 교육이 절실한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통신학교, 공공 교육기관 부설 프로그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한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바로 정규교육에서 벗어난 모든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3) 강명숙, 「6-3-3-4제 단선형 학제 도입의 이념적 성격」, 『한국교육사학』 제26권 제2호(2004.10), pp.9-23.

국민학교나 고등국민학교 역시 이 범주에 속해 있었다.⁴⁾ 말하자면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사회교육에서 이들을 포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사회교육은 무엇인가? 사회교육은 공적 교육제도의 안팎에서 교과서 밖의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 내용은 성인 문맹교육, 인민성인교육, 시민교육, 직업 및 기술훈련, 여가선용, 자기성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1) 학교 중심의 사회교육, 2) 독자적인 성인교육기관 및 그 사업, 3) 문화시설 중심의 사회교육 활동, 4) 공공기관 및 산업체의 성인 교육 계획, 5) 종교기관의 성인교육 활동, 6) 자원단체의 성인교육 활동 등이 그것이다.⁵⁾ 학생들 보다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의 주체는 주로 교사들이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교육이 대체로 문맹교육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국민학교에 적합한 것이었다.

고등국민학교는 바로 이 국민학교에서 확대 발전된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학교 개념은 일제 시기에 유럽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그 기원은 덴마크의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였다. 영어로는 Folk High School로 불리는 이 국민학교는 덴마크의 그룬트비(1783~1872)가 창안한 개념으로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덴마크 고유 문화와 언어교육으로 교육내용을 바꾸고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을 대

4) 송행희, 「박정희 정권의 비정규교육 정책 연구: '재건학교, 새마을청소년학교, 산업체 부설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32집(2009), pp.1-37.

5)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사회교육-우리나라 성인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중앙교육연구소, 1966), p.6

으로 하며, 과목으로는 덴마크어 노래, 시와 역사, 평등과 사랑의 기독교 정신, 덴마크어, 역사, 지리, 사회학, 수학 물리학 체조 등과 공동생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일본에는 국민고등학교로, 조선에서는 1932년에 YMCA에서 농민수양소로 시작되었다. 해방 뒤에는 국민이 공민으로 대체되었고, 공민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⁶⁾

일제 시대에도 총독부에 학무국 사회교육과라는 조직이 있어서 사회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사회교육은 체육, 종교, 명승 고적, 지방개량 등이었으며 위에서 말하는 교과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요한 목표는 공민적 교양의 수양이었다.⁷⁾ 대표적인 공민학교 형태는 일제 때의 야학교나 미군정 때의 강습소와 같은 것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에 민중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사회교육은 법적으로 뒷받침되었다. 공민학교의 탄생이다. 1946년 5월 29일에 제정된 「공민학교 설치요령」이 법제화의 출발이었다. 공민 양성을 주목표로 제정된 이 법에는 소년과(2년 혹은 3년), 보수과(1년)를 두도록 되어 있었다. 소년과는 국민학교 미취학자로서 13세 이상, 성인과 역시 미취학자로서 18세 이상, 그리고 보수과는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13세 이상이 입학 가능한 중등보통교육을 이수토록 설계되어 있었다.⁸⁾

6) 이상일, 「해방후~1950년대 초 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교육」, 『청람사학』 제31집(2020), pp.156-160.

7) 황종건 등, 『한국의 사회교육』, pp.35-39.

8) 『한국의 사회교육』, pp.105-107.

〈표 1〉 공민학교 조직

구분	수업연한	입학자격 및 연령	교과
소년과	2~3년	국민학교 미취학자로서 13세 이상인 자	공민, 국어, 국사, 지리, 산수, 체조, 이과, 가사, 재봉
성년과	1~2년	국민학교 미취학자로서 18세 이상인 자	공민, 국어, 산수
보수과	1년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13세 이상인 자	공민, 국어, 국사

당시는 문맹자가 10명 중 6~7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민교육을 통한 문맹 퇴치였고, 이 목표는 미군정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⁹⁾

사회교육과 관련된 사회교육법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어받아 그 이듬해에 만들어졌다. 사회교육법안 제정 과정은 1949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1949년 5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그해 11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문맹퇴치와 공민성(민주시민성)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를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인정한 셈이었다.¹⁰⁾

이 교육법안에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민학교는 3년 수업이며, 고등공민학교는 1년 이상 3년 수업으로 국민

9) 『한국의 사회교육』, pp.93-94.

10) 전광수, 「정부 수립기의 사회교육 법제화 과정 분석 - 1949년 사회교육법안 입법을 중심으로 - 」, 『평생교육연구』, 제18권 2호, pp.132-139.

학교와 공민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다.”¹¹⁾ 교육법 시행령은 이보다 늦은 1952년 4월 23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수업일수, 학기제, 교과과정, 교과서나 교사 등 고등공민학교에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은 중학교에 준하도록 법제화하였다. 학급수나 학생수의 경우도 제한이 있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를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부 수립 전후에 진행된 고등공민교육은 두 가지 목표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농촌중견인 양성이었다. 크게 보면 고등공민교육은 성인교육의 두 갈래 중에서 국문 보급이나 교양강좌와 더불어 공민교육의 일부였고 이 중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수업연한이나 자격,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형식을 띠고 있었으며, 고등공민학교는 1~3년의 기간 동안 농촌중견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큰 목표였다.¹²⁾ 곧 고등공민학교는 농촌중견인 양성을 목표로 한 중국교육기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국교육기관이란 교육의 최종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뜻하는데 그 점에서 고등공민학교는 애초부터 초등보통교육, 공민적 사회교육, 직업교육을 위한 중국 학교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¹³⁾

그러나 1948년 1월 13일에 제정된 고등공민학교 규정을 보면 고등공민학교를 중학교 수준의 학교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학교 교육의 보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법안의 골자」, 『서울신문』 1949년 11월 28일. 「자료대한민국사 제15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2) 윤동섭, 「고등공민학교의 연혁과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1968.12), pp.18~20.

13) 신훈철, 「고등공민학교 교육 운영실태의 문제점 분석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중등교육전공, 1975), p.11.

완적 역할을 맡긴 것이다.¹⁴⁾ 따라서 공민학교 교과는 국민학교 수준에 준하는 반면, 고등공민학교의 그것은 중학교에 준하도록 하며 수업일수는 중학교의 230일보다 적은 170일 이상으로 정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성격은 바뀌어 갔다. 설립 초기와 달리 1950~1960년대에 이르러 고등공민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의 경우는 고등공민학교의 성격이나 운영이 농촌과 다른 조건에 처해 있었다. 지도자 양성보다는 중학교 미취학자를 위한 보충적 구제 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공민학교는 농촌지도자 양성이라는 목표보다는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회 확대를 담당한 일종의 임시 교육기관으로 변모되었다. 교육법에는 고등공민학교도 초중등대학, 사범학교 등으로 분류된 ‘학교’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고등공민학교는 수업일수가 중학교의 230일보다 적은 170일로 정하였고, 교과목 역시 적게 편성되었지만, 실은 거의 모든 기준이 중학교에 맞추어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고등공민학교 출범 직후부터 문제가 되어 오랫동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던 난제와 마주치게 된다.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입자격검정고시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고등공민학교 출범 당시나 심지어 1951년에도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은 중학교 졸업생들과 동등

14) 박환보, 유나연, 「1950~1960년대 고등공민학교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38-2(2017), p.3.

한 자격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예컨대 1951년도 충남 홍성군의 홍성고등학교 지원 학생들은 홍성고등공민학교에서 홍성중학교로 편입하여 홍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곧 맨 처음 세워진 고등공민학교 학생들은 별도의 검정시험이나 절차 없이 정규 중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했던 것이다.¹⁵⁾

그러나 1951년 3월 3일에 문교부령 제12호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의 위상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규정에는 이 시험의 정의, 위원회 설치, 고교입학자격부여, 시험횟수, 시험과목, 그리고 시험절차와 합격 이후의 각종 필요사항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항은 없고, 고등공민학교에 관한 기술도 없다. 제6조 3항에 “합격과목의 고시면제를 원하는 자는 그 과목합격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였다.¹⁶⁾ 다시 말해 이 검정고시 규정에서 고등공민학교는 제외되어 있었다.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에서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조항은 1953년의 법개정 때 비로소 등장하였다. 1953년 2월 23일 문교부령 제26호에 처음으로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에 대한 고시과목 면제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제6조에 “제1항 중에 좌의 1호를 신설한다. 4.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그 증명서”가 그것이다. 또한 제15조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반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고시과

15) 이상일, 위의 논문, pp.182~183.

16)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정」, (문교부령 제12호 1951.3.3. 제정)

목에 있어서 필수과목 중 사회생활, 체육보건과 선택과목 중 제2류 및 제3류를 면제한다.”가 신설되었다. 곧 필수에서 2과목, 선택에서 2류와 3류가 면제된 것이다.

당시 검정고시 과목은 다음 <표 2>와 같다.¹⁷⁾

<표 2> 고입자격검정고시 시험과목(1953년)

분류		시험과목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예정자)	비고
필수과목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체육보건, 외국어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수학, 외국어는 제1류에서 대체
선택과목	제1류	수학, 외국어	대체	
	제2류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면제	
	제3류	음악, 미술, 수공재봉	면제	

그러므로 고등공민학교 학생들은 검정고시에서 필수로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4과목을 선택에서 제1류인 수학과 외국어를 응시해야 했으나 “필수과목 중의 수학 또는 외국어는 선택과목 제1류의 고시로서 대행한다”라는 규정을 따로 두었기 때문에¹⁸⁾ 선택과목은 사실상 무의미하였다. 곧 전체적으로 검정고시 응시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4과목이었다.

다시 1954년의 개정안에는 고등공민학교뿐만 아니라 기술학교 졸업자

17) 위의 규정.

18)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정」(문교부령 제26호 1953.3.13. 일부개정)

또는 졸업예정자가 포함되었고, 또한 면제과목에서도 “필수과목 중 사회 생활과 체육을 면제하고 수학과 과학은 그중 1과목에 대해 고시를 시행 하되 과목 선택은 위원장이 행하”는 것으로 전문이 개정되었다.¹⁹⁾ 이런 큰 틀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1975년도에 개정된 규정에서도 같았 으며, 1991년의 규칙에는 필수과목 7과목(도덕,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영어)) 중에서 도덕, 국어, 국사, 수학, 외국어(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는 면제(1977년 개정)되었다.²⁰⁾ 그러므로 1977년 이후의 고공 생들은 5개 과목을 응시해야 했으며, 이는 1980년이나 1986년의 규칙에 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검정고시는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이나 학생들의 입학 및 졸업, 진학 및 취업 등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이 때문에 전국고등공민학교 연합 회에서는 고공 졸업자에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부여해 달라는 의도 아래 교육당국에 ‘고등공민학교 3년 졸업자에 대한 검정고시폐 지청원서’ 및 ‘고등공민학교학력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²¹⁾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연구자도 이 고시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전쟁이라는 혼란 중 에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각종 학교와 학생의 자격 및 학력 문제를 검토하 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고시는 애초에 고입자격을 규

19)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정」(문교부령 제37호, 1954.9.20. 일부개정)

20)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타법개정)

21) 윤동섭, 앞의 논문, p.66.

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고등공민학교뿐만 아니라 기술 학교 등에도 적용되어 갔다. 곧 정규학교와 시설, 수업일수, 교사진, 교과 과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중학 졸업생과 고공 졸업생에게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의 교과과정 이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충 형식으로 일부 과목 면제로 낙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정도다.

6.25전쟁 전후 고등공민학교의 양상

사실 한국전쟁과 이후 1950년대는 고등공민학교가 규모나 양, 그리고 제도 면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전쟁기는 미군정에서 정부 수립 직후까지 추구해 왔던 고등공민학교의 법제화와 그 성격이 조정되는 시기였고, 전후는 그 바탕 위에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듯이 한국전쟁은 고등공민학교에도 재앙이었다. 특히 인민군 점령 아래 있던 곳은 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또한 막심하였다.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에 고등공민학교는 689개교, 학생수는 83,066명, 교원수는 2,160명에 이를 정도였다. 689개교에 8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고등공민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분명히 발전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이 추세를 가로막았고, 오히려 대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교실 552동이 피해를 입었고 인공점령지의 학교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다.²²⁾ 따라서 전후에 고등공민학교는 그 목표를 전쟁

22) 윤동섭, 앞의 논문, pp.23~24.

피해아동을 위한 구제적 교육기관에 둘 수 밖에 없었다.²³⁾

〈표 3〉 전쟁 중 고등공민학교 피해상황

구조	동수	건평		연평		피해추산액
		피해전	피해후	피해전	피해후	
목조	552	39,975	9,993(25%)	45,971	11,250(25%)	2,491,000원

사실 고등공민학교가 폐제화된 직후 서울에서는 1948년에 한광고등공민학교를 선두로 1949년에 이미 전국적으로 296개교, 1953년에 751개교, 학생수는 85,223명에 도달하였다. 교육법 제82조에 “학교는 군, 시,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또는 국가가 설립하며,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 경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설립에 제한은 없었다. 다만 사립학교 설립자는 학교법인이어야 가능했지만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등은 자연인이나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얻으면 설립이나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물론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나 교육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필수였다.²⁴⁾

다음의 표는 1949년부터 1959년에 걸쳐 전국에서 설립되어 운영 중이던 고등공민학교 현황이다.

23) 홍성기,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심으로 -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행정 전공, 1975), p.15.

24) 이건설, 「고등공민학교 교육개선에 관한 일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학 전공, 1977), pp.12~13.

〈표 4〉 1949~1959년간 고등공민학교 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1949	296	?	33,665	?
1950	689	1980	83,066	2,160
1951	"	"	"	"
1952	418	1,001	47,070	1,753
1953	511	1,379	64,179	1,871
1954	512	1,439	66,337	2,110
1955	561	1,630	68,086	2,150
1956	384	1,137	45,373	1,991
1957	422	1,190	44,993	1,466
1958	347	1,020	36,819	1,225
1959	296	906	33,665	1,564

*출전: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사회교육』(1950~59) p.110. 새한신문사, 『한국교육연감』(1949), p.174.²⁵⁾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950년대에서 1950년은 고등공민학교의 학교 수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에서 정점을 찍었던 해였다. 1959년까지 모든 면에서 1950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전쟁이 끝나 가던 1953년에는 500여 개교로 회복되었고, 학생 수 역시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회복추세는 1955년을 고비로 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1959년의 통계는 1949년의 통계치 중 학교수와 학생수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던 것은 분명하다.

25) 윤동섭, 앞의 논문, pp.31~32.

다만 1949년이나 1950년까지의 현황이 실제 운영되던 학교인지 아니면
인가신청을 하였지만 실제로 운영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에 살펴볼 것처럼 마산지역에서는 인가신청을 해
서 허가를 받고도 실제 운영에 이르지 못한 학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53년 고등공민학교의 지역별 분포상황은 어떠하였는가?
(표 5)를 보자. 우선 지역별 분포수에서 서울과 경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8개교임에 비해 경북은 110개교이고 학급수에서도 32개와
305개, 그리고 학생수 역시 1,443명 대 11,730명이다. 학교수는 거의 3배,
학급수는 9배, 그리고 학생수는 거의 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전쟁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곧 서
울은 인공치하였던 반면 경북은 적어도 대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이 전화
를 피한데다 많은 인구가 이곳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
산이 포함된 경남의 경우에도 비슷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학생수
와 학교수는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학생수가 제일 많은 곳은 경남이
며, 그 다음이 경북, 경기, 전남, 전북 순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에 많은
피난 인구가 집결된데다 기왕에 설립되어 운영되던 학교도 계속 수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남녀 학생 비율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남학생이 약 5배 정도로 많다.

〈표 5〉 1953년 전국의 고등공민학교 통계표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비고
			남	여	계	
서울	8	32	1,100	343	1,443	1. 수업연한 3년제 2. 공립은 없음. 사립뿐임
경기	65	193	7,655	1,404	9,059	
충북	35	71	3,637	279	3,916	
충남	31	78	3,847	449	4,296	
전북	75	178	6,192	1,064	7,256	
전남	59	113	7,638	547	8,185	
경북	110	305	10,953	777	11,730	
경남	88	318	11,512	1,879	13,391	
강원	23	44	2,618	447	3,065	
제주	17	47	1,463	335	1,798	
합계	511	1,379	36,615	7,524	64,139	

*참고자료, 『교육십년사』, p.553.

그렇다면 1960년대의 현황은 어떤가?²⁶⁾

〈표 6〉 연도별 고등공민학교 분포상황

연도별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1959		296	906	33,665	1,564
1960		333	938	38,761	1,810
1961		333	?	38,439	1,810
1962		292	906	51,165	1,867
1963		303	1,199	54,190	1,784
1964		331	1,155	49,806	2,061
1965		372	1,300	56,881	2,504
1966		369	1,337	58,560	2,458
1967				64,451	2,667

26) 윤동섭, 앞의 논문, p.51. 이 통계는 3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1960~1961년도는 『대학교육연감』, 1961~1965년 사이는 『한국의 사회교육』, 1966~1967년은 『문교통계연보』(1967년판).

〈표 6〉에서 보듯이 학생수는 196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나 학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급수 역시 1960년에 비해 32개가 줄었다. 반면 교원은 그 전 해에 비해 57명이 증가한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간의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1967년도까지 학교수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1959년에 비하면 8년 후인 1967년의 학생수는 거의 배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 통계에서도 1959년의 것과 1961년도의 수치는 믿기 어렵다. 특히 1961년의 것은 그 전 해의 수치들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도 8년 동안 학생수가 2배로 증가한 현상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윤동섭의 연구에 따르면 두 차례의 정변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²⁷⁾ 특히 군사정부가 농촌의 고등공민학교를 토착 중견 독농 청년의 교양과 농업기술 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육성한 결과였다고 본 것이다. 전국의 334개 고등공민학교 중 농촌지역의 296개교를 선정하여 농촌지도자 양성기관으로 개편한 결과였다.²⁸⁾ 또한 학생수의 증가에는 전쟁 이후 한국사회에 일기 시작한 신생아 출산도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1960년대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의 빈민층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실도 정부가 농촌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이유였다.

고등공민학교의 학생수는 1969년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감소하는 추

27) 윤동섭, 앞의 논문, pp.51~52

28) 윤동섭, 앞의 논문, pp.56~58.

세를 보인다. <표 7>을 보면 1960년대부터 증가한 고공 학생수는 1969년에 7만 6천여 명에 이르다 1971년에 6만 1천여 명으로 약 2년 사이에 1만 5천여 명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1년 뒤인 1972년에는 5만 4천여 명, 1975년에는 5만 2천여 명으로 떨어진다. 이와 비례하여 중학교 재학생은 1966년에 82만여 명이었으나 2년 뒤인 1968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져 4년 뒤에는 160여만 명, 1975년에는 2백만 명을 넘어섰다. 고등공민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7> 연도별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학생 현황

구분	1966	1967	1968	1969	1970
고등공민학교	58,560	64,451	70,496	76,301	72,338
중학교	821,199	911,938	1,013,494	1,147,408	1,318,808
구분	1971	1972	1973	1974	1975
고등공민학교	61,182	54,507	51,866	52,532	52,512
중학교	1,529,541	1,686,363	1,832,092	1,929,975	2,026,823

이 고등공민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의 반비례 현상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 우선은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제도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 1960년대에 중학교 입학은 당시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국민학교 졸업자 중 절반 정도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중학교 입학 시험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학기회를 놓친 청소년이 고등

공민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전후 시기는 농민의 도시 이주와 경제발전 덕에 가구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을 고무한 측면도 컸다. 그에 못지 않게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등공민학교나 기술학교 등의 확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²⁹⁾ 이런 흐름 속에서 고등공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당시 중요한 추세 중의 하나였다.

쇠퇴를 불러온 또 다른 이유로는 고등공민학교가 안고 있는 특징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우선은 학교설립이나 운영이 법인체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었다는 사실이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1975년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180개의 고등공민학교 중 1개가 공립이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1인 형태의 사립이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면에서 어려웠고, 이는 교사 충원, 시설 개선, 장학금 등 학사에 모두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입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을 계속 재학 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가 약했던 것이다. 더 크게는 고등공민학교가 시대적 소명에 맞는 자기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의 목표는 사회교육의 큰 틀에서 시작하였지만 사회발전, 균형감, 민주주의 성장, 교육의 균등화 등 학교 교육 이외의 공민적 사회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문해력 증강은 공민학교가 해결해 주었지만 고등공민학교는 성인교육이나 기초교육, 민중교

29) 신훈철, 위의 논문, p.17.

육, 지역사회교육 등 사회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다.³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은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에서 볼 때 완전한 쇠퇴기에 해당하였다. 마침내 1980년대에 이르면 거의 소멸되는 단계였다. 1983년에 이르면 학교수는 48개교에 학급수는 174학급, 학생수는 4,946명이었다. 1985년에 문을 닫은 선화고등공민학교를 보면 쇠퇴와 소멸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쇠퇴 증상 중에도 눈여겨볼 현상이 하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고등공민학교 학생수가 줄어들었지만, 이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는 남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상승하였지만, 고등공민학교에서는 이와 달리 여학생의 진학률이 상승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1953년의 고등공민학교 학생수 통계를 보면 남학생은 3만 6천여 명인 데 비해 여학생은 7천 5백여 명이었다. 그러나 1975년에는 남학생은 23,130명, 여학생은 29,382명으로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³¹⁾ 공교육에 있어서 남학생이 우대받고 여학생이 그 뒤를 쫓는 교육의 지체 현상이 이곳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30) 윤동섭, 앞의논문, p.1.

31) 신희철, 위의논문, p.19.

경남지역 고등공민학교의 흐름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전국적으로 고등공민학교는 정부 수립 직후에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경남지역과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통계치는 1953~1958년 사이의 것이다.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이 통계치에는 현재의 부산시 통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산이 경남 관할에서 독립하여 직할시로 승격된 것은 1963년이었기 때문에 경남지역 고등공민학교에 관한 통계에도 1963년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주요 흐름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표 8〉을³²⁾ 보면 알 수 있듯이 1954년과 1955년도 통계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의 통계는 2년 치의 통계자료라 할 수 있다.

32) 윤동섭, 앞의 논문, pp.34~39; p.51,53,55 및 경상남도 교육연구원편, 「경남교육사」(경상남도 교육위원회, 1990), pp.374~375에서 참조하여 작성.

〈표 8〉 1953-1964년 경남지역 고등공민학교 통계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	비고
			남학생	여학생	계		
1953	88	318	11,512	1,879	13,391		
1954	95	299	8,730	1,951	10,681	442	
1955	95	299	8,730	1,951	10,681	442	
1958	공립 : 2	12	303	53	356	남12/여1	
	사립 : 58	168	4,632	1,455	6,087	남203/여51	
	계 : 60	180	4,935	1,508	6,443	267 (남215/여52)	
1959	36	112	2,769	1,147	3,916	222	
1960	공 : 2	9			320	18	
	사 : 35	101			5,427	211	
	37(전국 333)	110			5,747	229	
1963	공 : 1	2			142	3	
	사 : 29	96			4,576	194	
	30(전국 303)	98			4,718	197	
1964	공 : 2	26			219	7	
	사 : 37	104			4,459	203	
	39(전국 331)	130			4,678	210	
1965	42(전국 372)	98	2,461	1,704	4,165	195 (남165/여30)	
1966	40(전국 369)	99	2,461	1,684	4,145	184 (남153/여31)	
1967	40	105	2,197	2,004	4,201	180 (남143/여37)	

앞의 〈표 5〉에서 보았듯이 1953년도 전국 고등공민학교는 511개교였으므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 정도이다. 경북이 110개교였으며 그 다음이 경남이었으므로 전국적인 비중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학생수는 남학생 36,615명, 여학생이 7,524명, 모두 44,139명이었는데, 경남은 각각 11,512명, 1,879명, 총 13,391명이다. 학교수에서 가장 많은 경북

의 학생수가 11,7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생수였으며, 비율은 18%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산이 제2수도였던 데다 적어도 서부 경남을 제외하면 경남지역이 전쟁의 피해로부터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전쟁이 종결되고 전후에 정치사회적인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1958년도에 고공의 숫자가 180개로 줄어든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도 경남 전체의 고공 학교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1958년의 180개교에서 1963년에 98개교로 감소하고 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학생수에서도 13,391명에서 6,443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교사 역시 1954년의 442명에서 267명으로 175명이 줄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경남 도내 전체에서 중학교가 증설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예컨대 1952년에 경남지역의 중학교는 공사립(공 44 /사 51) 95개교에 53,879명이 재학하고 있었으나 1958년에 이르면 199개교(공 92/사 107)에 재학생은 80,764명에 이르렀다. 학교수는 2배 이상, 학생수로는 1.5배 정도가 증가하였던 것이다.³³⁾ 마산지역의 경우 이 시기에 오히려 고등공민학교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1959년에 296개교, 1963년도에 303개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료에 근거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학교수와 학생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학생수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33) 『경남교육사』, pp.316~317.

특기할 것은 고등공민학교에서 경남에 공립이 2개교가 개설된 사실이다. 1958년도의 통계를 보면 경남은 전남, 경북과 더불어 공립 고등공민학교가 2개교였으며, 그곳에 재학중인 학생은 남녀 모두 356명이었다. 경북은 공립에서 333명, 전남은 520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959년 당시 경남지역 시군별 고등공민학교의 현황은 어땠는가? 이를 <표 9>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³⁴⁾

<표 9> 1959년 경남지역 시군별 고등공민학교 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남	녀	계	
부산	5	16	523	109	632	37
마산	2	6	101	122	223	19
진주	-	-	-	-	-	-
충무	-	-	-	-	-	-
진해	-	-	-	-	-	-
삼천포	1	3	94	100	194	6
진양	1	3	59	15	74	5
의령	2	6	177	46	223	9
함안	2	4	40	52	92	11
창녕	-	-	-	-	-	-
밀양	3	9	185	147	332	18
양산	1	3	45	23	68	4
울산	-	-	-	-	-	-
동래	1	3	65	42	107	6
김해	3	10	284	145	429	18
창원	-	-	-	-	-	-
통영	3	9	210	18	228	12
거제	2	6	176	68	244	12

34) 『경남교육사』, pp.374~375.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남	녀	계	
고성	2	9	221	42	263	18
사천	-	-	-	-	-	-
남해	3	9	158	40	198	14
하동	1	3	101	20	121	6
산청	-	-	-	-	-	-
함양	1	3	72	33	105	4
거창	3	3	258	125	383	23
합천	-	-	-	-	-	-
합계	36	112	2,769	1,147	3,916	222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고등공민학교가 없는 곳이 진주, 충무, 진해, 창녕, 울산, 창원, 사천, 산청, 합천 등 아홉 군데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통계의 누락인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한 군데만 개설된 시군도 삼천포와 진양을 포함하여 모두 6곳이다. 그러므로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1959년도에 마산에는 의신(1951)을 비롯하여 마산고공(1957)의 2개교가 설립 운영 중이었으므로 위의 통계표에서 마산지역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1959년의 경남지역 고등공민학교는 부산이 5곳으로 최다수이고 그 다음이 거창, 남해, 김해(1931년 읍승격), 밀양(1931년 읍승격), 통영(1931년 읍승격) 등 3곳이며, 마산(1949년 시승격), 의령, 함안, 거제, 고성 등이 2곳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한군데만 개설된 곳도 6개 시군이다.

위의 지역분포에서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부

산이야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므로 고공의 숫자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지만, 3곳이 개설된 거창, 남해, 김해, 밀양, 통영 중에서 김해와 밀양, 통영은 읍이었으므로 이를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을 수는 있을 것이다. 곧 도시화와 행정단위의 규모가 개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포도는 결국 지역 엘리트들의 동향, 교육열과 중학교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인구나 경제력 등과 관련 시켜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함안군의 경우 1950년대에 윤효량(1916~1978)이라는 지역출신 인사에 의해 5개의 중학교가 대거 개설되었으며,³⁵⁾ 밀양에서도 6개의 중학교가, 남해에서는 3개 중학교, 그리고 김해에서는 5개교가 신설되었다.³⁶⁾ 위의 표에서 보듯이 밀양과 함안, 남해, 그리고 김해에는 각각 3개, 2개, 3개, 3개의 고등공민학교가 개설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중학교가 많은 곳이 고등공민학교도 많이 개설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달리 고공이 없는 합천이나 산청에는 중학교도 2개 혹은 1개가 개설되었으므로 중학교의 존재나 인구, 경제력 등이 고공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특징은 1개교에 3학급씩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삼천포, 진양, 의령, 밀양, 양산, 동래, 통영, 거제, 남해, 하동, 함양이 그런 곳으로 1개교에 3학급, 곧 1개 학년에 1학급의 규모다. 반면에 함안은 2개교에

35) 윤효량은 함안의 각 면에 칠원중, 군북중, 대산중, 칠성중, 함안여중을, 그리고 고교로는 칠원중고, 군북고, 대산상고, 함안여고 등 모두 9개교를 설립하였다. 『경남교육사』 p.319, 홍중조·이상용 공저, 『소담 노현섭』(소담노현섭기념사업회, 2016), pp.293~294 참조.

36) 『경남교육사』, pp.319~320.

4개 학급으로 1개 학년에 1학급이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고성은 2개교에 9학급으로, 1개 학년에 1.5학급 규모이며, 이와 반대로 거창은 3개교에 3개 학급이므로 1개교당 1학급이다. 이 경우 전 학년을 통틀어서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학년 진급자가 아직 없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3개 학교의 학생수가 383명이라면 1개교에 거의 130여 명 정도이니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학생수는 1개교당 100여 명 정도이며, 학급수로 계산하면 약 35명 수준이다. 주어진 정원이 5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규정된 학생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삼천포는 학급당 65명 규모이며, 40명대는 하동, 거제, 김해 지역이다. 이와는 달리 남해는 22명, 함안은 23명, 진양은 25명 정도이다.

남녀학생 간에 비율도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3년도에 남녀학생 수효는 남 36,615명, 여 7,524명으로 약 4.9대 1의 수준이었다. 경남의 경우 남학생 11,512명, 여학생 1,879명이었으므로 약 6대 1의 비율이었다. 전국적인 비율로 따져 보면 경남도는 남녀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큰 곳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1958년에 이르러 4,935명대 1,508명으로 줄어들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줄어들기는 했지만, 남학생은 약 6천여 명이 줄어든데 비해 여학생은 300여 명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1959년에 이르러 남녀학생 규모는 2,769명 대 1,147명으로 약 2.4배 정도로 약화되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학생의 진학을

에 기인하기보다 남학생의 진학이 현저하게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남학생들은 서서히 중학교로 옮겨가는 데 비해 여학생은 여전히 고등공민학교에 진학하는 교육 지체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1959년의 공민학교에서 남학생이 23,531명이고, 여학생이 32,464명이었던 사실과 비교된다.³⁷⁾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는 전통시대와 근대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남학생이 우선이었고, 여학생이 후순위였던 바, 이는 고등공민학교 역시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고등공민학교에서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1975년에 이르러 남학생이 23,130명, 여학생이 29,382명이었을 때였다.³⁸⁾ 그러나 사실 이때는 고등공민학교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을 시기였으므로, 고공으로의 여학생 진학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곧 1975년 수준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교육에서의 지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교원수는 1개교당 6명 정도이다. 부산이 37명으로 제일 많지만, 학생 규모로 따져 보면 거창이 3개교에 23명이므로 1학교당 거의 8명 수준이고, 마산과 고성도 역시 9.5명과 9명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는 달리 양산이나 함양, 통영은 각각 4명씩이다. 이로써 보면 고등공민학교의 교원수는 1개교당 최고 9.5명에서 최저 4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37) 『경남교육사』, p.373.

38) 신희철, 위의 논문, p.19.

1971년도에 이르러 경남지역 고등공민학교 수는 27개교이며, 학생수는 3,475명, 교원은 160명이었다. 이것이 다시 1977년에는 학교수가 18개, 학생수는 2,788명, 교원은 130명이었고, 1990년에는 1개교에 학생 35명, 교원 5명이었다.³⁹⁾ 사실상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고등공민학교는 거의 소멸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1990년대의 1개교는 1950년에 설립되어 현재 까지도 운영 중인 충무고등공민학교로서 초기와 달리 학령초과 성인 중심의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성격이 다른 공민학교형 고등공민학교라고 보아야 한다.

고등공민학교와 더불어 사회교육을 담당했던 공민학교는 이보다 더 이른 1967년 무렵에 거의 소멸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 4곳, 학급수는 11개, 교원은 11명이었으며, 재적 학생수는 310명(남105/여205)이었다. 이는 1961년의 학교수 425개, 학급수 756, 교원수 1,055, 재적수 10,191명과 비교해 보면 7년 사이에 급속한 쇠퇴를 겪은 것이 분명하다.⁴⁰⁾

39)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 70년사』 제1권(경상남도교육청, 2017), pp.349~350.

40) 『경남교육사』, p.526.

마산지역 고등국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3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전개 과정



공민교육의 전통과 초기의 설립과정

이제 고등공민학교의 구체적인 양상을 마산에서 설립 운영된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어떤 제도든지 대개는 그것이 제도화 되기 이전에 나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전국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공민교육은 일제 때의 덴마크 공민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산의 경우 이와는 달리 대한제국 말기에 있었던 노동야학의 전통이 공민학교 혹은 고등공민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노동야학은 1907년에 지역 주민인 옥기환玉麒煥, 구성전具聖傳 등이 자금을 내고 명도석明道奭, 김명규金明奎, 나인한羅寅漢, 팽삼진彭三眞 등이 교사로 참석하여 6월 10일 개교한 비정규 사회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야학이라고 알려졌다. 이 학교는 마산의 남성동 69번지 창고를 교사로 사용하였고 20~3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조선어, 일어, 산술, 한문 등을 학습하였다. 1914년 10월에는 주민성금 1,300원을 모아 마산의 창동에 교실 6개의 교사를 마련하였고, 이후 마산중앙야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1931년에는 교장 옥기환과 지역민들이 합쳐 중성동 전답 1천평 매입하여 교실 5개, 사무실, 회의실, 사택 2동(현재 마산 백제계삼탕 주차장)을 건립하였다.



<그림 1> 마산중앙야학 29회 졸업기념사진(1939). 중앙에 앉은 이가 옥기환씨이다.

이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여성을 위한 마산여자야학도 출범하였다. 이 야학은 정지석(여성)이 부인야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창신학교에서도 1923년에 부인야학부를 설립하면서 창신학교의 교사인 이운재와 의신여학교 교사 이주경이 수신, 조선어, 성경, 산수, 양재, 가사 등을 교육하였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창신학교가 1939년에 폐교될 때 같이 문을 닫았는데 이때까지 모두 17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들 야학은 주로 창동, 남성동, 상남동 등 원마산 일대의 야학이었는데, 월영야학은 신마산 일대의 한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이 야학은 권숙경, 김태엽, 조민환 등이 성금 2,200원을 모아 만든 노동야학이었다.⁴¹⁾

41) 이영옥,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고찰」(경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14), pp.9~10. 송성안, 「마산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마산지역의 근대교육」, 『지역문화연구』 제12호(2005), pp.91~124. 김원규, 「일제시기 마산지역 교육기관 실태 연구 - 사립교육학교를 중심으로 -」, 『가라문화』 19(2005), pp.120~121.

이처럼 마산에서는 사회교육 혹은 공민교육이라 부를만한 비제도권 교육이 도시의 노동자와 빈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엘리트들에 의해 수십 년간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에서 볼 때 공민학교 혹은 고등공민학교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 마산지역에서 고등공민학교의 설립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글의 편의나 역사성을 고려하여 고등공민학교의 개설 시기를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로 구분해서 보기로 한다. 초기는 1950년 전후기, 중기는 1960년 전후, 그리고 후기는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1980년대의 폐교 시기까지로 간주한다.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고등공민학교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무슨 사연인지 일부는 허가만 받아놓은 채 개교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초기에 이런 양상이 보인다. 정부 수립 뒤에는 적어도 마산고등공민, 마산여자고공, 동진고공, 일신여자고공 등 4개교가 설립 신청을 하였다. 당시 마산 시내의 중학교가 1951년도까지 제일여중(1947), 성지여중(1949), 중앙중(1949), 마산여자중(1951), 마산동중(1951), 마산중(1951), 그리고 마포중(1951) 등 7개 학교에 이르렀다. 이 중 아직 고등학교로 분리되지 않은 6년제의 공립중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나 시세 등으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였다고 생각된다. 당시(1945~1951) 이들 중학교의 학급수는 평균 10개, 학급당 인원은 61명이었다.⁴²⁾ 곧 600명이 좀 넘는 숫

42) 김효일, 「기본학제 개편에 의한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 1900~1993년 마산시의 초·중등교육시설을 중심으로 -」, 『교육시설』 1-1(1994), pp.10~11.

자이다.

그렇다면 학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산의 인구는 얼마였을까? 마산은 해방 이후 귀환 동포가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전쟁기에도 피난민이 대거 집결하여 비정상적일 정도로 인구의 팽창이 있었다. 해방 전인 1940년에는 41,548명(밀도 4,025)였으나 1947년에는 82,519명이었으며(밀도 3,935), 1951년에는 132,658명으로(밀도 4,563)으로 10여년 사이에 약 3배로 증가하였다.⁴³⁾

문제는 인구 증가의 내용일 것이다.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귀환 동포와 피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밝혀졌지만, 마산지역의 인구동향은 20세기에 들어 몇차례에 걸쳐 크게 요동쳤다. 1차로는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의 대거 이주였다. 특히 1905년 이후 신마산 지역에 대략 5천여 명의 일본인이 이주하였고, 이 규모는 해방 전까지 유지되었다. 제2차 파동은 해방 직후에 일어났다. 1947년도의 8만여 명은 1940년대 초반에 비해 약 4만여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귀환동포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일본에서 돌아온 동포들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일본의 미군정 정책 때문에 거의 빈손으로 귀환한 것이었다. 일명 우환동포라고 불렸던 이들은 대부분 신포동과 중앙동에 있던 일본군 창고와 노동자 숙소, 그리고 회원동에 있던 일본군 군마장 등에 판잣집을 지어놓고 살았다. 이들은 상남동이나 회원동 등에 흩어져있던 방직공장, 제지회사,

43) 마산시사편집위원회, 『마산시사, 제1권 환경과 역사』, (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pp.75~76.

성냥공장 등에 취업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⁴⁴⁾

또한 마산은 한국전쟁 시 마산전투와 함안전투로 인해 최전방의 군사 도시로 바뀌면서 약 9만이었던 인구는 다시 4만여 명이 증가하여 13만여 명을 수용하게 되었다. 전쟁에 따른 이주민은 전재민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주로 러시아 조차지였던 대내동 뿐만 아니라 중앙동, 회원동 등의 판자촌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는 마산선 철도가의 상남동이나 반월산 자락 등지에 군용천막이나 판잣집 형태의 집을 짓고 살았다. 귀환동포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도 쉽지 않았다.⁴⁵⁾

1946년 10월 25일에 개교한 중앙공민학교(월영교 부설)는 당시 부산일보 마산 주재기자였던 허종許種에 의해 마산시 중앙동 2가 1번지(현 중앙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였고, 약 330호의 무산층 자녀들이 연 600여 명 정도 수업을 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도 적지 않았다. 훗날 웨슬레고등공민학교의 교장이 된 서익수 역시 1950년대에 회원동과 상남동 지역에서 난민학원, 상남공민학교 등을 운영하였으니,⁴⁶⁾ 위에서 말한 귀환동포 거주지와 난민촌은 바로 공민학교의 주 대상 지역이었던 것이다.⁴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 이후와 전쟁 직후, 마산의 인구 변화는 매

44) 박호철, 「귀환동포와 하모니카촌」, 『마산창원 역사읽기』(불휘, 2003), pp.274~279.

45) 박호철, 위의 글, pp.279~283.

46) 경상남도 마산교육청, 『마산교육사』(경상남도마산교육청, 2002), pp.114~115.

47) 1960년도 마산지역 공민학교는 9개교, 교직원 40명, 학생수는 1,275명(남532, 여743), 졸업자수는 856명(남386, 여470)이었다. 마산시, 『제1회 마산시 통계연보』(마산시, 1963), pp.155~156.

우 비정상적이었다. 이로 인해 오래된 토착민보다 외부에서 이입된 신주민들이 인구통계에서 더 많았으며, 1951년의 13만 인구 중 약 8~9만 명이 그렇게 증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동포촌이나 난민촌에 거주하였고, 그곳은 상남동, 회원동, 교방동, 신포동, 중앙동, 월영동 등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1950년대에 많이 들어선 공민학교도 대략 이들 지역에 세워졌고, 고등공민학교 역시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고등공민학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방 이후인 1946년 3월의 고등공민학교령에 의해 세워진 첫 번째 학교는 마산고등공민학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학교는 고등공민학교 자체를 목표로 했던 것 같지 않다. 주도자들은 1948년 9월에 이르러 마포중학교 설립기성회를 만들었고, 1950년 3월에 건벽돌 교사 5개 교실을 신축하면서 중학교 개교를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1951년 6월에 재단법인 마포학원이 인가되고 7월에는 마포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9월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이 고등공민학교는 상남동 74번지에 있는 호주선교회 마산지부 건물에서 시작하였지만, 중학교로 허가가 난 뒤에는 교원동 40-43번지로 이주하였다. 설립 주체는 유력실업인인 김종신, 손문기 등 마산의 유력자들이었다.⁴⁸⁾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고등공민학교의 효시는 1949년 5월 30일에 설립

48) 도시문화콘텐츠연구소, 「창원시 마산 회원1지구 재개발사업 마을흔적보존사업 실행계획서」(2017). 실린 곳은 하경도 창원시 마산 회원1지구 재개발지역 이야기 12. <https://www.u-story.kr/1125>

신청한 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였던 것 같다.⁴⁹⁾ 설립 주체는 김형윤, 손문기, 고광민, 유석형, 박봉기 등 5명이었다. 김형윤은 일제강점기에 아나키스트이자 반일 운동가였고, 해방 이후에는 마산일보 사장을 역임하였다. 손문기는 경제인 겸 정부의 입법의원,⁵⁰⁾ 유석형은 반일 민족운동가로 초대 시의회 의원⁵¹⁾이었다. 최종허가자는 경남지사인 문시환이었다. 설립 위치는 마산부 상남동 74번지였는데, 이곳은 앞에서 말한 호주선교사회 마산지부였다. 형태는 제1부, 곧 주간이었고 학생정원은 300명, 교사수는 8명으로 신청하였다. 1개 학년에 100명씩이었으나 2개 학급을 두려고 했으며, 교과목은 문교부 편찬의 일반중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였고, 주당 수업시간수는 36시간이었다.

설립목적은 “인격생활교육주의 아래 초등보통교육을 받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애국친토의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기능을 연마하여 민주국가의 실천적 중견인물이 되도록 육성하는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애국친토정신 함양, 둘째는 생활 필수 지식기능 연마, 마지막으로 민주국가의 실천적 중견인물 육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도 보이듯이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연마한 실천성 있는 중견인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다. 그 점에서 설립주체인 김형윤은 주목할 만한 인물일 것이다.

4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67, 「고등공민학교인가철(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1949).

50) 손문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28.1.31,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민주신보」 1952.5.13., 「자유민보」 1949.7.9. 등 참조.

51) 유석형에 대해서는 「민중주보」 994호, 1949.3.11., 「마산일보」 1956.7.14. 「마산일보」 1958.12.26., 28. 등 참조.



<그림 2>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가 처음 출발했던 상남동의 호주선교사회 본부 건물. 이 건물에는 마산여고공
뿐만 아니라 마포중학교, 동진고등공민학교 등 여러 학교가 교사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 학교는 마산중등공민학교를 고등공민학
교로 개편하기 위해 계속 신청 중이었다는 것
으로 미루어 보면, 공민학교로부터의 승격을
목표로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중등공민학교가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에 있었는
지, 학생수는 몇 명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려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공민학교를 바탕으로
아 고등공민학교를 개교하려 하였던 사례는
두 학교의 승계 관계에서 보면 모범적이라 할
만하다.



<그림 3>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창립자
최봉선 교장.
의신여중 교장시의 모습이다.

동진은 6월 9일 자로 경남지사 문시환의 이름으로 된 인가건을 통고받
았다. 몇 가지 조건이 따랐다. 교명은 반드시 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로 할

것, 그 목적을 달성토록 하기 위해 중학교와 엄연히 구분할 것, 경남고등공민교육협회에 반드시 가입할 것 등이 그것이었다. 교육당국에서는 고공으로 허락받아놓고도 중학교로 개교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 같다. 뒷날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의 예에서 보이듯이 이 학교 역시 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에도 학교 간판에는 ‘의신여자중학교’로 써 놓았기 때문이다.⁵²⁾ 그럼에도 동진고등공민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하였다는 정보는 없다.

실질적으로 고등공민학교가 설립 운영된 것은 1951년에 출발한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였던 것 같다.⁵³⁾ 설립 신청은 대한기독교여장청년회 마산지회 회장 최봉선의 이름으로 경남도지사 앞으로 제출하였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성인 여성으로 하여금 건실순미한 성격과 국가의 가정 생활에 필수한 기초지식을 구비케 하여 모성애와 민족애를 경유로 한 이상의 가정 및 건설 국가의 진전향상에 공헌케 함”에 두었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겠다는 데에 두어졌으니 분명히 여성을 위한 고등공민학교였다.

학급수는 각각 2부(본과, 별과)의 4개 학급으로 구성하며 학생수는 200명, 교사는 교장과 4명, 수업연한은 본과 3년, 별과 1년이었다. 개교 연월일로 예정한 날은 1951년 6월 1일이었다. 전시 중이었음에도 이렇게 날을 잡은 것은 당시 마산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

52) <그림 4> 참조. 제1회 의신여고공 졸업생 사진에 ‘의신여자중’이라는 학교 간판이 걸려 있다.

5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0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의 건)(1951).

을 것이다. 시설로서는 교지 300평, 보통교실 3개 30평, 직원실 1실 4평, 기타실 2개 5평, 그리고 부속건물로 변소 1동이 있었다. 이 교사의 주소는 마산시 상남동 74번지였는데, 이곳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호주선교사회 마산지부 자리였다. 호주선교사 건물이 고등공민학교로 쓰이기에 안정 맞춤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설립주체가 YWCA마산지부 회장이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는데 좀 더 용이했으리라고 본다.⁵⁴⁾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는 1951년 9월 10일의 『마산일보』 신문지상에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모집인원은 1학급(약 50명), 모집기간은 9월 15일까지, 응모자격은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의 학력을 가진 만 14세 이상이 여자, 출원처는 본교(마산시 상남동 전방송국) 등이었다.⁵⁵⁾ 여기서 말하는 전방송국은 1942년 2월 20일에 개소한 마산방송소로 그 위치는 노비산(일명 제비산)에 있는 호주선교사회 본부였다.⁵⁶⁾

국가기록원에는 이와 관련하여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의 학칙(학급증설) 변경인가 건의’라는 제목의 문서가 남아 있다. 이는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가 1967년 11월 22일 자로 학칙변경 요청서를 통해 “제8조 학급수는 매 학년 2학급씩 전 6학급으로 함, 제9조 학생 정원은 1학급씩 전 360

54) 호주선교사들이 철수한 뒤 상남동의 본부 건물은 일시 방송국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뒤에는 위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학교나 각종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는 선교본부에서 볼 때 무단점유였으며, 본부에서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지만 철수하는 대가를 요구해서 이곳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김석원, 「복음의 씨앗을 심은 호주선교사들 - 서두화 목사(Rev. Alan Stuart), 『크리스찬 리뷰』 2012년 9월 10일자. https://blog.naver.com/ch_review/150146964382

55) 서익수, 「만나는 것들마다 사랑이어라」(경남매일신문, 1991.10. 21). <https://blog.naver.com/sis3050/220206967283>

56) <https://www.u-story.kr/515> [허정도와 함께 하는 도시이야기]

명으로” 학급을 증설하고 학생수를 증원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1967년 12월 9일자로 경남교육위원회에서 인가되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와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의 관계이다. 설립연월일이나 설립자 학급 및 학생수, 수업연한 등을 종합해보면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가 어느 시기에 교명을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로 바꾸었고, 주소 역시 상남동에서 교방동 208-1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산일보』에 따르면 1954년 3월 20일에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가 국난을 극복해가며 ‘노비산’에서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⁵⁷⁾ 이렇게 보면 마산여자고공에서 의신으로의 개명은 적어도 1954년 이전이었고 그 직후 교방동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를 보면 호주선교사회 마산지부의 건물에서 첫 번째 졸업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곧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는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의 후신인 것이다.

초기에 마산에 세워진 4개의 고등공민학교 중 제대로 운영된 것은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이다. 동진이나 마산일신 등은 이후의 행적이나 학교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제출된 학교 유지방법이나 교과과정, 학칙 등을 통해 초기 고등공민학교의 양상이나 특징 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57) 「의신여자고등공민교 제1회 졸업식」, 『마산일보』, 1954년 3월 20일자.

〈표 10〉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초기 설립신청 상황

학교명	설립자(설립연도)	학급 및 학생수	교사진	수업연한	교사위치
동진고등 공민학교	김형윤 외 4명 (1949.6.9)	제1부 300명	8명	3년	상남동 74번지
마산여자고등 공민학교 (의신여자고등 공민학교로 개명)	최봉선 (1951.6.1.)	본과 3학급, 별과 1학급, 모두 4학급, 200명	교장 포함 4명	본과 3년 별과 1년	*상남동 74번지 *교방동 208-1로 이전
마산일신여자 고등공민학교 ⁵⁸⁾	최종민 (1952.9.26.)	1부 3학급 150명 2부 3학급 150명	교장 이하 3명	1부(주) 3년 2부(야) 3년	상남동 203번지

우선 고등공민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등공민학교의 교과목구성은 법제상 중학교에 준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먼저 중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945년 9월에 미군정에서 제시한 애초의 중학교 편제와 교과목은 〈표 11〉과 같았다.⁵⁹⁾ 중학교를 4년제로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는 실시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다만 과목과 시수는 살펴볼 만하다. 우선 교과목은 모두 11개 과목이며 선택과 필수는 없다. 그리고 국어의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영어, 수학, 물리·화학·생물 과목이다. 중요한 사항은 공민이 총 8시간, 역사·지리가 총 14시간이 배정된 것이다. 아울러 체육 과목도 3~5시간 씩이며, 음악, 습자, 도화, 실업이 각각 8, 2, 3, 7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다. 곧 국어와 사회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1 『마산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 설립건』(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4285년). 〈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신청서〉.

59)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경남교육사』, pp.218~219.

〈표 11〉 1945년 9월 중학교 편제와 교과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공민	2	2	2	2
국어	7	7	6	5
역사·지리	3	3	4	4
수학	4	4	4	4
물리·화학·생물	4	4	5	5
영어	5	4	5	5
체육	3	5	3	3
음악	1	3	2	2
습자	1	1	-	-
도화	1	1	1	-
실업	1	1	2	3
계	32	32	34	33

이러한 편제와 기본구성은 6-3-3-4의 학제로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지만, 각 교과목과 그것을 이수할 시간수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1952년 문교부의 중학교 교과목 교육법시행령(1952년 4월 23일 공포) 제 115조에서 그 점을 볼 수 있다. 곧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학, 체육, 실업 가정, 음악, 미술 및 외국어 과목으로 변경되었고, 문교부령 제35호(1954년 4월 20일 공포)에서 시간 배당 기준이 설정되었다.⁶⁰⁾ 그에 따라 정리된 것이 〈표 12〉이다. 교과목의 범주를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편제한 것이 미군정 하의 그것과 다르며,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실업가정이 필수과목으로, 외국어, 실업가정, 기타 교과가 선택으로 분류되었다.

60) 『경남교육사』, pp.348~349.

〈표 12〉 1954년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표

구분		1년	2년	3년
필수 교과	국어	140(4)	140(4)	140(4)
	수학	140(4)	105(3)	105(3)
	사회생활	175(5)	175(5)	140(4)
	과학	140(4)	140(4)	105(3)
	체육	70(2)	70(2)	70(2)
	음악	70(2)	35(1)	35(1)
	미술	70(2)	35(1)	35(1)
	실업가정	175(5)	175(5)	175(5)
소계		980(28)	875(25)	805(23)
선택 교과	실업가정	35~245(1~7)	35~245(1~7)	35~245(1~7)
	외국어	105~175(3~5)	105~175(3~5)	105~175(3~5)
	기타교과	0~105(2~3)	0~210(0~6)	0~280(0~8)
특별활동		70~105(2~3)	70~105(2~3)	70~105(2~3)
계		1190~1330(34~38)	1190~1130(34~38)	1190~1330(34~38)

* ()은 주당시간

그렇다면 이러한 편제와 시수 배당은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의 교과목은 모두 7개 과목이며, 본과보다 별과가 주당 4시간이 더 많다. 별과라는 것이 1년짜리 교육과정 이므로 1년 내에 교육목표를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배당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주당 수업시간은 본과 18시간, 별과 22시간으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시기의 34~36시수에 비해 16~18시간 정도 적은 편이다.

〈표 13〉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1949) 교과과정 및 매주 수업시간수

과목	매주시간수		비고
	본과	별과	
국어	5	6	
공민	4	4	
역사	2	3	
수학	2	2	
가사	2	3	
과학	1	2	
영어	2	2	
계	18	22	

〈표 14〉 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1949) 학년별 매주 수업시간표와 담당교사(안)

학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비고
국어	6	6	6	안병호
사회생활	5	5	5	(공민) 이상섭4, (역사) 박균제5, (지리) 이상섭 6
수학	5	5	5	조성원
일반과학	7	7	7	(일반과학, 물리, 화학) 유희성5, (생물) 윤승민8
체육보건	2	2	2	이상섭
실업 실습	2	2	2	서웅주
음악	2	2	2	안병호
미술	1	1	1	서웅주
외국어	6	6	6	(영어) 박봉기 15, (한문) 서웅주 3
주계	36	36	36	

이와 달리 같은 해에 출발한 동진고등공민학교는 9개 과목을 매 학년에 걸쳐 36시간씩 이수하는 것으로 배정하였다. 이 시수는 정부의 그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한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와 비교해 보면 공민과 역사가 사회생활로 통합되어 있고, 체육보건, 실업실습,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시수로 따져 보면 일반과학, 국어, 사회생활, 수학, 외국어의 순으로 주당 5~7시간이다. 사회교육이라든가 고공에 맞는 과목 배치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중학교 기준에 맞추어 과목을 편성한 느낌을 준다.

〈표 15〉 마산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 매주시간수(안)

구분	과목	매주시간수		비고
		1부	2부	
1	국어	5	4	
2	영어	5	4	
3	수학	4	4	
4	역사	4	2	
5	지리	2	2	
6	공민	2	2	
7	한문	2	1	
8	과학	4	2	
9	부기	2	1	
10	주산	2	1	
11	재봉	1		
12	가사	1		
13	음악	1		
14	체육	2		
계		37	23	

그보다 3년 늦게 인가를 요청한 일신여자고공은 1부의 경우 모두 14개 과목이며, 주당 수업시수는 37시간으로 앞의 동진고공에 비해 과목이나 시수가 많은 편이다. 특히 과목은 역사, 지리, 공민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부기와 주산, 재봉과 가사 역시 독립된 과목이다. 2부의 경우는 1부 아래쪽의 과목인 재봉과 가사, 음악, 체육을 모두 생략해 버리고 나머지 시수는 조금씩 줄여서 편성하였고 시수는 23시간인데, 이는 마산여고공의 본과 수업시수인 18시간보다 5시간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2부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 구성인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3개 학교의 교과목 편성안을 보면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의 교과목은 사회교육에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과와 속성반인 별과로 구분된 것이나 본과의 주당 수업 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데서 그 특징이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국어와 공민 과목에 많은 시간을 배정한 것도 문해력 증강과 공민 양성이라는 고등공민학교의 설립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달리 동진고등공민학교는 정부의 중학교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 데다 수업시수마저 37시간을 배정하여 정부의 주당 34~38시간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 마산여고공과 다른 점이다. 이와는 또 다르게 일신여고공은 과목을 세분해서 모두 14개 과목을 개설하였고, 시수 역시 가장 많은 37시간을 배정하였다.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나열식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고, 2부 교과과정 역시 야간의 특색을 살리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 연구자는 초기의 고등공민학교는 종국교육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국어, 국사, 공민 등 교과과정이 단순하였으나 점차 구체적 교육기관으로 바뀌면서 교과내용도 복잡해져 갔다고 보았다.⁶¹⁾ 그러나 마산의 초기 학교를 보면 두 목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간 것이 아니고 출발 초기부터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했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등공민학교의 교과과정에는 중국학교를 목표로 시작한 곳도 있지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중학교에 비중을 둔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경비의 조달이다. 허가를 담당한 교육당국에서 꼼꼼하게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학교의 운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설립자들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모든 지원서에는 적어도 개교 이후 예상되는 3년간의 수지개산서를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의 예산을 보자. 개교 첫해의 수지개산서에는 세입액 3백16만 원 중에서 수업료가 2백16만 원이고 설립자측 부담은 1백만 원이다. 수업료는 총수입의 약 68%를 차지하며, 학생 100명을 기준으로 1명당 월 1,800원이며, 본과와 별과의 금액 차이는 없다.⁶²⁾ 기부금은 설립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체 세입액의 32% 정도로 비교적 큰 비중이다. 세입이 단순한 것은 외부 기부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제2차 연도의 세입액은 수업료를 제외하면 전액와

61) 윤동섭, 앞의 논문, pp.41~42.

62) 1952년 5월의 서울시내 쌀값은 소두 한 말에 4만 8천 원이었다. 「배급 두절로 쌀값 양등」, 『조선일보』 1952년 5월 10일자.

같다. 수업료도 1명당 1,800원으로 50명의 본과학생 증가분만큼 세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학생들이 3학년까지 차게 되는 제3차 연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세출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 봉급이다. 5명의 교원에 대해 월 3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였다. 세출액 3백16만 원 중 1백44만 원이므로 약 46%의 비율이다. 수선비와 비품비, 그리고 잡비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인쇄비나 통신운반비는 소액이다. 2차 연도에서는 소모품비와 비품비가 다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모품비는 3년 차에 이르러 1백 5십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비품은 책결상 등이겠으나 소모품의 비중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마도 학생들의 용품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한다. 학생수가 증가하는 만큼 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공책이나 연필과 같은 문구류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짐작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세출예산이라고 할 것이다.⁶³⁾

〈표 16〉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제1차 연도(1951년) 수지개산서

세입			
비목	금액(円)	산출기준	비고
수업료	2,160,000	학생 100명 본과 별과 각 50명, 1명당 월 1,800원	
설립자측부담	1,000,000		
계	3,160,000		

6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0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수지개산서〉(1951).

세출			
교사봉급	1,440,000	교장 이하 4명 1명당 월 30,000원	
여비	100,000		
소모품비	340,000		
도서인쇄비	10,000		
통신운반비	60,000		
수선비	360,000		
잡비	200,000		
계	3,160,000		

〈표 17〉 제2차 연도(1952~1953년) 수지개산서

세입			
비목	금액(円)	산출기준	비고
수업료	3,240,000	학생 150명, 본과 100명 별과 50명, 1명당 월 1,800원	
설립자측부담	1,000,000		
계	4,240,000		
세출			
교사봉급	1,440,000	교장 이하 4명, 1명당 월 30,000원	
여비	200,000		
비품비	580,000		
소모품비	900,000		
도서인쇄비	200,000		
통신운반비	120,000		
수선비	500,000		
잡비	300,000		
계	4,240,000		

〈표 18〉 제3차 연도(1953~1954년) 수지개산서

세입			
비목	금액(円)	산출기준	비고
수업료	4,320,000	학생 200명, 본과 150명, 별과 50명, 1명당 월 1,800원	
설립자측부담	1,000,000		
계	5,320,000		
세출			
교사보급	1,440,000	교장 이하 4명 1명당 월 30,000원*	
여비	200,000		
비품비	600,000		
소모품비	1,500,000		
도서인쇄비	240,000		
통신운반비	120,000		
수선비	620,000		
잡비	600,000		
계	5,320,000		

이와 달리 동진고등공민학교는 세입액이 총 1백79만 원이고, 그 중 수업료가 54만 원, 학부형 원조비가 15만 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설립자 각 출금이 1백10만 원이다. 학부형 원조비의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는 드문 사례이다. 신청 문서 속에 학부형회장인 안수경의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금액은 45만 원, 이 금액을 동진고등공민학교 본년도 세입 예산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승인함”이다. 안수경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의 수업료에 학부형 원조금이 첨가된다는 것은 여하튼 학생과 학부형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표 19〉 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 1949년도 수지개산서

과목 관 항		본년도	부기
비목	설명종목		
사용료 및 수수료	수업료	540,000	학생 300명, 매인당 1개월분 150원
총액			
기부금	학부형 원조비	150,000	학부형 300명, 1인당 연 500원
보조금	설립자 각출금	1,100,000	설립자 손문기, 김형운, 고광민, 유석형 각 200,000. 박봉기 300,000
세입계		1,790,000	
학교비	교직원 급료	447,600	교장(월4,000), 교사(8명) 매인당 월 3,500원 서무(1명) 월 3,000, 급사(1명) 월 2,300원
영선비	교구비	600,000	교수용소모품비 및 서적운동구 기타(월 5,000원)
예비비		742,400	교사 수리 및 비품
세출계		1,790,000	

이 학교는 수업료로 월 1인당 150원이었고, 기부금은 학부형 300명으로부터 1인당 연 5백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각출금으로 손문기, 김형운, 고광민, 유석형 각 2십만 원, 박봉기 3십만 원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들은 당시 마산에서 기업이나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알려진 재력가이거나 명망인사들이었으므로 이러한 부담은 당연히 지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점에서 설립자도 명망가와 재력가 중심으로 짜여진 듯이 보인다.

동진고등공민학교의 세출액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구비 60만 원이었으며, 교직원 급료 44만7천 원이었다. 그 세부내역은 교장 월

4천 원, 교사 8명 매인당 월 3천5백 원, 서무 1명 월 3천 원, 급사 1명 월 2천3백 원이었다.⁶⁴⁾ 학생의 수업료나 교직원 급료에서 마산여고공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산여고공의 경우 전쟁 중의 인플레이가 반영된 것인 반면 동진은 인플레이 이전 상태였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산여고공은 교사 이외의 서무직, 급사직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전체 교직원의 수효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세출액에는 응당 포함되어야 할 교사신축비는 없고 대신 일정액의 수선비가 계상되어 있다. 마산여고공에서는 36만 원으로 교사인건비 다음으로 많은 액수이며, 동진고공에서는 예비비로서 교사 수리용 비용이 74만여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 이 액수는 전체 세출예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공의 교사 시설은 중학교와 달리 최소한이거나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비용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잠시 본 바와 같이 마산여고공은 호주선교사회 본부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동진고공 역시 이곳을 교사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다. 대개의 경우 고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교실과 교무실, 그리고 부속시설로 변소와 우물, 그리고 작은 규모의 운동장이나 실습지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교사와 학생일 것이다. 학교 신청문서에

6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67, 「고등공민학교인가철(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1949). <수지개산서>

는 교사 구성과 채용인원 그리고 해당 교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였다.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이나 1953년 4월 18일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면 교사의 자격은 정교사,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분류되어 있고, 자격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52년 4월 23일에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633호)에 따르면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지방의 실정에 따라 도지사나 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초기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도 이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동진고등공민학교 교사채용 인가신청에 나타난 교원 현황이다.

〈표 20〉 동진고등공민학교 교사채용 인가신청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력	경력
		윤**				의과대학학부 중퇴
		박**				학부중퇴
		조**				무역회사 경리과장
		안**				
		이**				
		유**				상업
		서**				조금연서기朝金聯書記***

신청명단에 모두 7명을 기재하였으나 신상정보라서 국가기록원에서 거의 다 가린 채 이용자에게 보내졌다. 교과목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추

정해 보면 박**은 (역사)박균제 혹은 (영어)박봉기, 윤**은 (생물)윤승민, 조**는 (수학)조성원, 안**은 (국어)안병호, 이**는 (공민, 생물)이상섭, 유**는 (일반과학, 물리 화학) 유희성, 서**는 (한문, 미술, 실업)서웅주라고 생각된다. 조금련은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약자로 보인다.⁶⁵⁾

과목별로는 역사, 영어, 생물, 수학, 국어, 공민, 일반과학·물리·화학, 한문, 미술, 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목을 9개 과목으로 개설한다고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맞춘 교사진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 1909년 생인 박봉기는 본적이 경상남도 마산시, 주소는 경상남도 마산시 추산동 61-1, 일본대학 영문과 졸업생으로 1946년에서 1948년까지 부산동서대학 문학부 교수를 역임하였고, 1949년에 설립된 마포중학교의 교장이었다.⁶⁶⁾ 신청서류 중 설립자인 손문기와 김형윤이 작성한 내신서에 따르면 박봉기는 대학교수의 경력을 가진 교육계의 중진으로 본교 교장으로 최적임자라고 추천하고 있다.⁶⁷⁾ 나머지 교사들의 신원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모두 교사 자격증을 가졌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대학 졸업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다만 교사신청자 중에 무역회사 경리과장, 상업, 금융조합연합회 서기 등 실업계 인사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6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67, 「고등공민학교인가철(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1949). <고등공민학교교사채용인가신청의 건>.

66)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6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67, 「고등공민학교인가철(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 <내신서>.

경남도지사의 문교사회국장⁶⁸⁾은 마산시장에게 문서를 보내 우선 1951년 5월 28일자로 올린 동진고등공민학교 건은 인가되었으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 사항이란 1) 교명은 반드시 인가된 교명을 사용하도록 하며, 2) 설립 취지와 같이 고등공민학교로서 완전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3) 교육법 제87조에 따라 그 절차 수속을 다시 밟도록 할 것 등이다.⁶⁹⁾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87조는 절차보다는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 또는 해직할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장, 부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을 채용할 때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청은 교원이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해직을 명한다.”라는 지휘 감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51년에도 개정 없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⁷⁰⁾ 따라서 위의 경남도 공문에서 말하는 절차란 교원 채용을 신청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감독하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의 교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 동진과 달리 마산여고공은 이후 계속 존속하였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이 학교의 교사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남아 있어서 그 면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68) 교육자치제가 195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군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는 초등교육 관련 업무만을 관장하였고, 중등교육은 도지사 산하의 문교사회국에서 관장하였다. 도에도 도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의결기관이 아니라서 결정권은 없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 70년사 제1권』(경상남도교육청, 2017), pp.158~159.

6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0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의 건〉(1951).

70) 「교육법」, 87조(법률 제86호 제정 1949년 12월 31일 제정, 1949년 12월 3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1〉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교사진 구성(안)

성명	연령	본적	주소	경력	담당과목
최봉선	불명	마산시	마산시	일본광도고녀, 동경보육졸업, 여중교유 역임	공민 가사
최종민	"	마산시	마산시	동경상업, 한국대학졸, 청진여고교유, 창신중학	과학 수학
박채우	"	마산시	마산시	창신중학졸, 창흥중학, 창신중학, 의신여학교 교사	역사
이순철	"	마산시	마산시	마산상고졸업, 금융조합, 동진중학 교사	국어 영어

교사진은 설립자를 포함하여 4명이며 본적이나 주소는 모두 마산시에 두고 있다. 담당 과목은 공민, 가사, 과학, 수학, 역사, 국어, 영어 등 7개 과목이다. 이들 중 최봉선과 최종민, 이순철은 중학 교사를 역임하였거나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신학교 출신이거나 창신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2명이므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본 유학출신자도 2명이다. 최종민의 주소가 최봉선과 같은 곳인걸 보면⁷¹⁾ 한 가족이거나 친인척은 아니었을까 한다. 또한 의신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도 있고 최봉선 역시 의신여중 출신이므로 이들 교사의 주된 구성은 호주선교회가 설립 운영했던 창신, 의신 출신이 주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최종민은 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취임하려고 하였다. 일신의 경우 최종민 이외에 교사로 신청한 인원은 김광식, 송재학 등 3인이다. 곧 4인의 교사진이다. 따라서 초기의 교사진은

71) 두 사람의 주소는 마산시 상남동 203번지이며, 최종민은 이곳을 校舎로 신청하였다.

4인에서 7인으로 최소한 교과목에 맞추어져 있으며, 한 교사가 2~3과목을 담당하는 형태였다고 보인다. 학력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중학에서 대학 출신 혹은 대학 중퇴자였던 것 같고, 출신지는 거의 마산이었다. 연령대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고등공민학교 교사의 자격 기준은 중학교에 준한다는 것이 법에 정해진 규정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교사 구성을 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진 것 같지 않다. 교사로 임용하려는 명단 중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힌 예가 없는 데다 경력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마산여자고공의 경우에 교사 명단에 오른 4명 모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무자격자 교사가 줄어드는 추세였고 또 교사의 대부분이 대졸자로 충원되어 갔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1950년대 전후의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학생 현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학생 규모의 경우 동진고공은 300명을 정원으로 신청하였는데, 이는 각 학년별로 100명, 학급수는 5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역시 학생정원과 학급수는 200명에 4학급이었으므로 이 역시 1개 학급에 50명의 정원이었다. 마산여고공은 1년짜리 별과를 두었는데 이곳의 정원도 1학급에 50명이었다. 1952년 4월 23일에 제정 공포된 교육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르면 “학급수는 학년당 4학급 이하로 학생수는 학급당 50인 이하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도지사나 특별시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정



<그림 4>

1954년 3월 20일에 있었던 의신여고 공 제1회 졸업식 사진. 주목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학교 간판이 '마산의 신여자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남동 호주선교사회 건물에서 졸업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다. 곧 1954년 3월까지의 이곳에서 수업을 한 것이다.

하였다. 창원군 진전면에서 1952년에 인가 신청한 진전고등공민학교는 각 학급당 인원을 60명으로 남녀 각 1반씩 모집하려고 하였다.⁷²⁾ 마산지역 초기의 고등공민학교는 이 규정을 충실히 따랐던 반면 농촌지역의 진전에서는 이를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집정원이 모두 충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53년 경남의 고등공민학교 학생수는 13,891명이었는데, 학급수는 318개였다. 학급당 약 44명이다. 1954년에는 36명이었다. 1959년의 마산을 보면 223명에

7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2, 『고등공민학교인가철(진전고등공민학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1953~1953).』

6학급으로 학급당 37명이다.⁷³⁾ 이로써 본다면 마산지역 초기의 고등공민 학교 학생은 학급당 40명 전후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가 학생들의 입학이나 재학 중의 동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가 궁금하다. 곧 1950년대 중엽 이후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 더 심화되었다.

고등공민학교의 입학자격은 마산여고공의 경우 국민학교 졸업자나 그와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운영 중이던 공민학교 졸업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전고공은 국민학교 졸업자 또는 공민학교 졸업자로 정하였다.

고공생들의 입학동기나 가정 환경, 재학중 직장 근무 여부, 그리고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의 마산지역 고공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는 어렵다. 이는 비단 마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련 학생부 기록이 잘 남아 있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⁷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좀 많은 1960년대 전후의 고공을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이상과 같이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는 아

73) 『경남교육사』, p.374.

74) 1952년에 개교한 전남 신안군 도초면의 도초고등공민학교에는 1957년에 작성된 재적부 속에 학생생활기록부가 있어서 섬지역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김경옥, 「20세기 전반 간척으로 인한 섬마을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한국학연구』 72(2020.3), pp.22~23.

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정부의 법령에 따라 독립운동가나 지역유지들에 의해 세워졌다.⁷⁵⁾ 그 중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는 3년제의 본과와 1년제의 별과를 동시에 운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교육 목표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곳의 교사진은 4명이었지만, 모두 현직 교사로 충당되었으며, 교과과정 역시 공민교육에 맞는 최소한의 내용이었다. 다만 이 학교는 1950년대 전반기에 호주선교사회의 교사를 떠나 교방동으로 이전하였고, 이름도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진고등공민학교나 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이후의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운영된 것 같지는 않다.

75)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에 1952년에 개교하려고 하였던 진전고등공민학교는 설립자가 박烈注였고, 설립위치는 밀양박씨의 서원이었던 龜川精舍였다. 곧 오서리에 거주하던 밀양박씨가 주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2, 『고등공민학교인가철(진전고등공민학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1953~1953) 참조.

중기의 전성기와 운영체계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선 여러 학교가 개교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57년에는 마산(노동)고등공민학교, 1958년에는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그리고 1961년에 대창고등공민학교가 개교하여 적어도 4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운영되었고 이들이 이후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또 후일에 웨슬레고등공민학교로 전환된 웨슬레구락부도 1957년에 개교하였다. 따라서 전성기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등공민학교는 마산지역 공민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듯이 1960년 전후에 마산지역에서 고등공민학교 신설 붐이 일어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비정상적인 양태를 보인 인구동향일 것이다. 이미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귀환동포와 피난민으로 인해 마산은 인구폭발의 시금석처럼 보였다. 약 10여 년(1940~1951) 사이에 인구는 41,548명에서 131,658명으로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까지 1958년에 151,569명, 1960년에는 157,547명(밀도 5,419)가 되어 증가세가 약간 완화되기는 했으나 약 9년(1951~1960) 사이에 2만 5천여 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195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상남동(12,245), 회원동(11,722), 산호동(10,141)의 순이었다. 이른바 해방촌 혹은 피난민촌으로 불렸던 지역이다. 또한 같은 시기인 1958년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도 0~4세의 비율은 12.9%, 5~9세는 15.8%, 10~14세는 12.9%, 15~19세는 11.5%로 2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약 53.1%였고, 10세에서 19세까지의 비율도 23.4%에 이르렀다.⁷⁶⁾ 적어도 베이비 붐이라 불리는 1955년 전후의 출생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에서 큰 몫을 차지하였던 것이다.⁷⁷⁾

이와 같은 인구동향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불규칙적인 형태였고, 그것은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 인구동향이 1960년대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에 온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마산의 3.15의거는 해방 이후 전란기를 거치는 동안에 나타난 인구동향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참여자가 사회경제적 안정층보다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처해 있는 젊은 무산 계층의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은⁷⁸⁾ 마산사회에 무산계층이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 준다. 실제로 3.15의거가 일어나기 직전인 1958년의 마산시내 실업율은 30.9%였다. 남자가 29,645명(21.9%), 여자가 20,956명(43.7%)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해방 이후부터 전란기를 겪으면서 유입된 특수한 계층으

76) 이은진, 「근대마산 - 압축된 모순의 폭발지」, (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pp.14~22.

77) 회원국민학교 부설 형태로 공민학교를 운영했던 고명천 교장에 따르면 이곳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회원동 500번지, 곧 귀환동포와 전쟁난민들이 집중해서 살았던 지역 출신이었다고 한다.

78) 이은진, 「근대마산 압축된 모순의 폭발지」, pp. 36~55.

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⁷⁹⁾

이런 양상은 다시 1960년대 중반 이후 마산이 수출기지이자 산업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더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20세기 중엽 이후 마산의 인구는 급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말하자면 인구 성장의 양상이 불안정했던 것 만큼이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부분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1960년대 전후에 국민학교 졸업생의 규모와 진학률은 어떠하였을까?

〈표 22〉 1961년 마산시내 국민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진학자 수

구분 학교	계			남			여		
	졸업 예정자수	진학 희망자수	미진학자 수	졸업 예정자수	진학 희망자수	미진학자 수	졸업 예정자수	진학 희망자수	미진학자 수
성호	763	680	83	415	384	31	348	296	52
완월	273	234	39	160	141	19	113	93	20
회원	358	233	125	198	137	61	160	96	64
월영	427	340	87	227	200	27	200	140	60
합포	473	384	89	280	236	44	193	148	45
무학	270	199	71	155	127	28	115	72	43
월포	259	185	74	149	103	46	110	82	28
가포	20	14	6	12	12	.	8	2	6
봉덕	13	6	7	7	3	4	6	3	3
상남	-	-	-	-	-	-	-	-	-
계	2,856	2,275	581	1,603	1,343	260	1,253	932	321

79) 이은진, 위의 책, pp.156~158.

〈표 22〉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1961년에 마산지역 국민학교 졸업 예정자는 2,856명이었고, 진학희망자는 2,275명이었다. 그 중 미진학자로 분류된 학생은 581명이었다. 그 중에서 남학생 미진학자는 260명이었고, 여학생은 321명이어서 남녀간의 미진학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⁸⁰⁾ 문제는 진학을 희망한다고 해서 진학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는 공민학교 졸업자들이 배출되어 나오던 때이기도 하였다. 1961년의 마산시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마산 시내에는 각 국민학교 부설의 공민학교가 10개였다. 성호, 완월, 회원, 월영, 합포, 무학, 월포, 가포, 봉덕, 상남 등 시내의 모든 국민학교 부설에는 최대 72명에서 최소

〈표 23〉 1961년도 마산지역 공민학교 졸업예정자

학교명	계	남	여	비고
성호 부설	44	8	36	
완월 부설	25	11	14	
회원 부설	38	12	26	
월영 부설	72	23	49	
합포 부설	20	7	13	
무학 부설	36	7	29	
월포 부설	51	20	31	
가포 부설	12	2	10	
봉덕 부설	20	5	15	
상남 부설	9	7	2	
계	327	102	225	

8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폐인가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학무국 사회체육, 1966), 〈(마산시교육장)의견서〉.

9명의 졸업자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총수는 남 102명, 여 225명으로 모두 327명이었다.⁸¹⁾

그렇다면 이 시기에 마산의 중학교를 비롯한 공교육체제는 증가하는 국민학교 및 공민학교 졸업생을 수용하면서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화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을까? 1956년 중학교 학생수는 5,650명, 학교수는 9개교, 학급수는 100개, 1학교당 학생수는 627.8명이었다. 1957년은 통계가 없으며, 1958년의 경우 5,625명, 7개교, 학급수는 99개, 학교당 803명이었다. 1959년과 1960년의 통계도 없다. 1961년에는 6,181명 재학, 학교수는 7개교, 학급수는 106개, 학교당 학생수는 968.7명이었다.⁸²⁾ 곧 1950년대 후반의 마산지역 중학생 수는 5,600명에서 6,000명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3개 학년으로 나누어보면 1개 학년 당 1,900명에서 2,000명 정도였으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국민학교 졸업예정자 중 약 800여 명이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학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약 280여 명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고 본다.⁸³⁾ 여기에 공민학교 졸업생 327명 중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진학 불가자 수는 더 커진다. 실제로 이 시기의 공민학교 졸업자 중에서 진학하려는 학생이 얼마였는지는 통

8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학교등공민학교설폐인가철」, <〈마산시교육장〉의견서>

82) 김효일, 「기본학제 개편에 의한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 -마산시 초·중등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1(1)(1994), p.12.

83) 예컨대 1972년의 경북지역 국민학교 졸업예정자는 122,712명이었는데, 그 중 49,394명이 미진학자였다. 32%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다. 여원희, 「고등공민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일연구」, 〈계명대학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1971.12〉, p.3.

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진학자 수가 통계에 잡힌 때는 1967년으로 전체 졸업자 1,031명 중 315명이었다. 약 30%의 비율이다.⁸⁴⁾ 1960~1961년 사이의 공민학교 졸업생이 각각 856명, 752명이었으므로 약 30%가 진학한다고 셈해도 약 250명 정도이다. 곧 국민학교 졸업자와 공민학교 졸업자의 약 500여 명이 정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으리라고 본다. 거기에 가난 등의 이유로 진학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계산한다면 미취학 학생수는 더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능력보다 곤궁한 경제 사정 때문이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고등공민학교로의 진학 이유도 가난이었던 것이다. 마산고등공민학교는 입학대상 학생으로서 ‘마산 시내에 거주하는 무산동민 자녀들’로 설정하였고, ‘최저한의 비용으로 정규 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을 지향하는데 두었다.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이지만 1971년 경북지역의 경우 고등공민학교 지원 동기의 54%가 가난 이었고⁸⁵⁾ 이런 상황은 고공 초기부터 1970년대까지 줄곧 이어진 특징이었다. 충남 지역의 경우처럼 입학난이나 수업료 및 입학금 납부가 큰 부담인 것도 있었지만⁸⁶⁾ 이 역시 큰 범주에서 보면 학생이 처한 가난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학교로의 진학도 입시경쟁으로 인해 쉽지 않았지만, 빈민층의 자녀는 경제적인 곤란함 때문에 더 진학하기가 어려웠다고 본다.

84) 마산시, 『제4회 통계연보』(마산시, 1968), p.183.

85) 여원희, 앞의 논문, pp.31~39.

86) 이상일, 위의 논문, p.210.

이러한 사정 때문에 1960년 전후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설립에서 종교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구세군과 웨슬레가 대표적이다. 1961년 12월에 설립 신청을 한 구세군고등공민학교는 설립 취지를 “극빈자의 자녀 및 근로소년 소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 선도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중등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교육법에 의거하며 실시”한다는데 두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극빈자의 자녀와 근로소년 소녀가 공민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⁸⁷⁾ 1959년 4월에 설립한 웨슬레 역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독교인 서익수가 기독교 정신으로 유능한 공민을 양성한다는 이름 아래 개교한 것이었다.⁸⁸⁾ 선행 연구에서도 교육기관을 통한 기독교 신앙의 전파가 고등공민학교의 존재 의미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⁸⁹⁾ 이런 점에서 종교기관의 고등공민학교 설립은 두 가지 목표에 두어졌던 것 같다. 극빈자의 자녀나 근로소년 소녀들을 교육한다는 점과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다는 점이었다.

먼저 이들 학교 건립의 주도자들과 그들이 지향했던 목표들을 분석해보자. 1957년 7월 15일에 설립인가를 받은 마산고등공민학교는 노현섭이 설립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운영 역시 마찬가지였다.⁹⁰⁾ 그는 당시 마산

8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223 『고등공민학교인가』(1961년 생산, 경남교위), 〈서기 1962년 1월 9일 구세군 고등공민학교설치인가신청서〉.

8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학칙〉(1964년 시행)

89) 이영옥, 앞의 논문, pp. 41~45.

9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 고등공민학교인가』(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1960~1960), 〈마산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에 관한 건〉.

부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그만큼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창원군 구산면 수정리 출신으로 어업을 하던 가업의 덕으로 형과 함께 일본에서 유학하였고, 그 때문에 학병으로 끌려가기도 했었다. 해방 뒤 마산지역에서 교사로 있던 중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1951년에 부산부두노동조합 마산지부를 발족시켰고, 그 조직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⁹¹⁾



<그림 5> 1939년 일본유학 시절의 노현섭. 앞줄 우측. 그 뒤의 신사복 차림은 그의 형 노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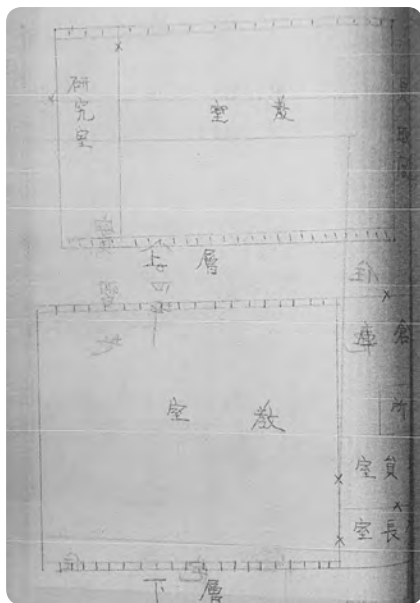
그는 6.25전쟁 중에 부산의 노조지도자 윤효량을 찾아가 노동과 교육 기관의 상관관계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곧 노동학원을 개설하여 노동운동 지도자를 양성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함안 출신

91) 홍중조·이상용, 『소담 노현섭』(소담 노현섭선생기념사업회, 2016), pp.183~208.

인 윤효량은 전쟁 중에 명덕 육영회라는 법인을(1951) 설립하고 1952년에 칠원농고 등 함안군 내에 학교를 잇달아 세우면서 그 뜻을 실천해 나갔다.⁹²⁾

이에 노현섭은 애초에 ‘마산노동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 당국에 신청하였다. 그는 1957년 12월 16일 자의 일기에 고등공민학교 설립이 최선의 방책이자 주어진 임무라고 기술하면서 교사校舍와 교원 충원, 운영비 마

련 등에 고심했던 것 같다. 주요한 점으로, 학생모집은 노동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고 수업료를 면제하며 교재와 학용품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아원생과 조합원 자녀로 60명 정원을 채울 계획이었다.⁹³⁾ 교사는 부두노동조합 근처에 장만하였고, 교사진은 학병 출신과 함께 논



<그림 6> 마산고등공민학교 교사 평면도. 2층이며, 1층에 교실 두칸 2층에 교실과 연구실을 두었다.

92) 홍중조 등, 위의 책 pp.288~295.

93) 홍중조 등, 위의 책, pp.293~294.

의하면서 구성하였다. 정식으로 개교한 것은 1957년 10월 8일이었다.⁹⁴⁾ 한가지 주목할 것은 그는 학교 명칭을 굳이 ‘마산노동고등공민학교’로 신청했는데, 당국은 이에서 ‘노동’을 삭제하고 ‘마산고등공민학교’로 허가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들로 미루어 보건대 마산고등공민학교는 애초부터 노동자 자녀, 특히 부두노조조합원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또 같은 해에 일부 병원 의사들과 함께 노동병원도 개원하였는데,⁹⁵⁾ 이런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노동자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교육기관과 병원 등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뒷날 마산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한 웨슬레구락부의 설립 주체나 목표는 이와 다른 것이었다. 대한감리교유지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은 서익수는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었다. 경남 의령군 유곡면의 농민 집안에서 1937년에 태어난 그는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마산으로 나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빈한한 청소년을 위한 공민학교를 운영했다고 한다. 그의 공식적 이력을 보면 1957년 4월에 혜성학원 원장을 1년간 역임하였고, 석전공민학교 3년 교장(1958.6.2.~1961.3.30.), 난민학원 원장(1958.6.16.~1961.2.22.),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 교사로서 교무직(1960.2.27.~1963.4.2.) 등이었으므로⁹⁶⁾ 이미 학생 시절에 빈민 자녀들의

94) 노현섭 일기, 이상용 옮김, 『노동운동의 선구자 소담 노현섭 육필일기, 민족이여 겨레여』(소담 노현섭 선생 기념사업회, 2016), p.57.

95) 노현섭 일기, 위의 책, p.57.

9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민간인신원진술서>.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가 교육기관에 웨슬레라는 이름을 쓴 것은 1958년 11월이었다. 웨슬레라는 이름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에서 따왔고,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산하 웨슬레구락부 본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공식명칭은 북마산 웨슬레구락부였으며 그곳에서 6년간(1958.11.6.~1965.1.15.) 부장으로 있었다. 이 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공민학교를 운영하였고, 고등공민학교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었으며, 감리교회의 총리원 교육원 모범교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⁹⁷⁾

지역신문에 따르면 그는 1955년 3월 1일에 회원동 북마산교회의 구 예배당을 빌려 ‘북마산웨슬레구락부’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주소는 회원동 480번지였다. 이곳에서 8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을 모아 문맹 퇴치를 도모하였다는 것이다.⁹⁸⁾ 이 구락부는 본인의 구술에 따르면 공민학교 형태였다. 구락부의 창립연도가 1955년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55년에는 그가 18세의 나이였고, 또한 그의 이력서에는 1958년에 웨슬레구락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당국의 공식문건에는 1959년 4월에 중등부를 설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북마산 웨슬레구락부가 내부적으로 고등공민학교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59년

9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민간인신원진술서〉.

98) 「육영에 불사른 젊은 지성」, 『국제신보』 1964년 6월 6일자.

4월 이후의 일로 짐작된다.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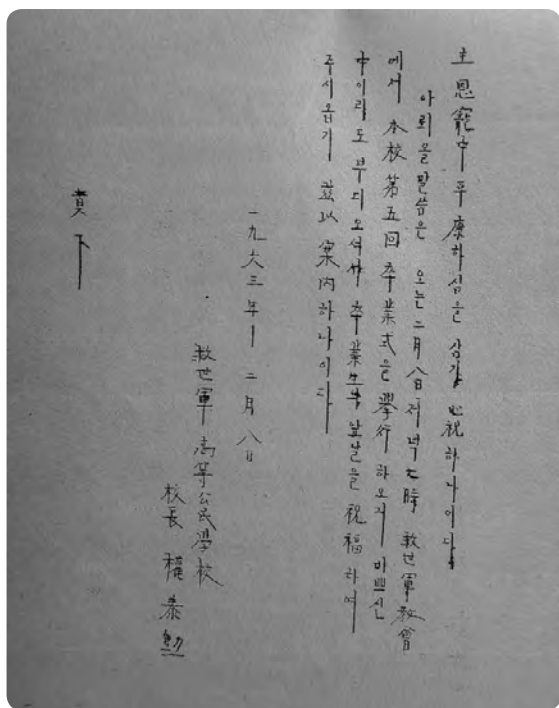
이 구락부 내의 중등부는 비인가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 같다. 1965년에 마산고등공민학교와 통합되었을 때 웨슬레구락부는 웨슬레고등공민학교로 개명하고 난 뒤 정식인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 고공에서는 종래 운영하던 구락부의 주간부와 마산고공의 야간부를 모두 받아들여 주야간부를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기관에 의한 고등공민학교의 설립은 1961년의 구세군고등공민학교에서도 보이는 바다. 이 학교는 한국구세군 마산영과 영국의 옥스퍼드 기근구조위원회(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가 극빈자 교육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학비를 낼 수 없어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구두닥이 소년과 소녀들을 위하여 마산학교(Masan School)가 지역 영문과 연계하여 세운” 것이었다. 2개의 새로운 교실이 그 해에 옥스퍼드구제기금의 후원으로 지어졌다.¹⁰⁰⁾

잘 알려진 것처럼 구세군은 1865년에 영국 런던에서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1829~1912) 목사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창립하였으며, 한국에는 1908년에 서울의 평동에 본영을 열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마산에는 1939년 5월 25일에 구세군 소대가 처음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는 시내 오동정 96-1이었다(현 마산동

99) 서익수의 회고에 따르면 고등공민학교에 해당하는 중등부 설치의 학생들의 요청이었고, 운영은 주간이었다고 한다. 2021년 8월 5일 전화 통화.

100) 옥스팜 총무인 레슬리 커클레이(Mr. H. Leslie Kirkley)는 그해에 마산을 방문하였다. 김준철저, 『한국구세군 100년사 - 1908~2008』(구세군출판부, 2008), pp.448~449.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신청서에는 영국측의 지원 주체를 옥스퍼드 대학 구조위원회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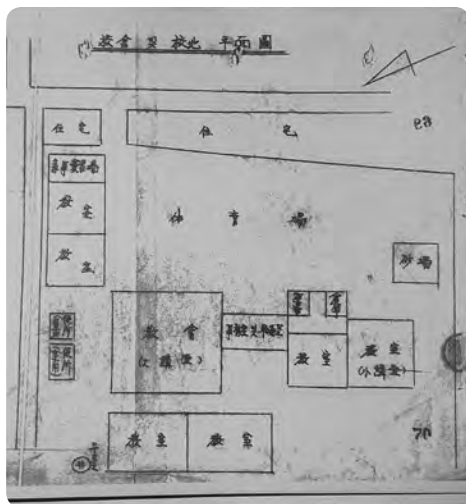


<그림 7> 구세군고등국민학교의 제5 회 졸업식 초대장. 공식인가를 받은 것은 1961년이었으나, 이미 이 해에 제4회 졸업식을, 그 이듬해인 1962년에 제5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광교회 교육관 부근).¹⁰¹⁾ 구세군의 전통적인 활동은 빈민구제였다. 실제로 구세군의 연간 사업통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본영과 지방영의 운영과 더불어 양로원, 급식소, 재민구호, 자선냄비 등 사회사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101) 『조선총독부관보』 1939년 12월 13일 정규호 3870호.

이 정신에 따르면 고등
공민학교의 설립은 그들
이 지향하는 정신에 부합
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960년에 개교한 부평고
등공민학교(현 인평자동
차고등학교)와¹⁰²⁾ 마산의
구세군고등공민학교 등
두 군데 정도이다. 따라서
마산영의 고등공민학교
설립은 한국의 구세군 역
사에서 독특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림 8>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교사 평면도. 교회 내의 여러 곳에
교실과 부속건물을 두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구세군 역시 웨슬레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비인가 상태로 학교
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세군이 교육당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와 달
리 이 학교는 이미 1962년도에 제4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는 지역신문의
기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마산일보』 1962년 2월 10일 자에 따르면
구세군고등공민학교는 중등부 제4회, 초등부 제6회 졸업식을 1962년 2월

102) 김정근 기자, 「구세군 박종덕 신임사령관 인터뷰」, 『경향신문』, 2013년 10월 17일.

8일 밤 7시 30분에 예배당에서 거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중등부의 우등, 개근, 정근, 모범자에게 상을, 초등부에도 같은 형태의 상을 수여하였다.¹⁰³⁾ 또한 1963년도 2월 8일 저녁 7시에 제5회 졸업식을 거행한다는 공지문을 교장 권태훈의 이름으로 마산YMCA에 보냈다.¹⁰⁴⁾ 이렇게 셈한다면 구세군은 정식 신청 이전인 1957년에 중등부를 시작하였고, 3년제의 초등부는 1955년에 개교한 셈이 된다. 곧 1959년에 중등부 제1회 졸업생을, 1957년에는 초등부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

그러나 1953년 6월 1일부터 작성된 『구세군의 일지 -마산학교』에 따르면, 이미 1955년 3월 3일에 중등부 숙성과에서 70명의 수료자를 내었고, 초등부 역시 103명의 숙성과 학생을 배출하였다.¹⁰⁵⁾ 숙성과라고 이름한 것을 보면 1년짜리 단기반이었던 것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셈하면 1954년에 양과를 시작한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간 것이 1955년과 1957년의 초중등부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공인 상태로 대략 7년 동안 운영되다가 1961년에 이르러 교육당국에 공인받기 위한 신청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1961년에 교육당국에 학교설립 신청을 주도한 이는 마산영의 정위正尉, 권태훈權泰勳이었다. 고향이 경북 청송 진보면이었던 그는 1927년에 출생하였고, 삿뽀로 중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시험에 합격하여 진

103) 「구세군고등 공민학교 제4회 졸업식 성료」, 『마산일보』 1962년 2월 10일.

104) 1963년 2월 8일에 '귀하'를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교장 권태훈 발행 초청장. 마산YMCA 소장 기록물.

105) 「구세군일지 - 마산학교」. 구세군 마산영에서 작성한 이 일지는 1953년 6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연월일은 1976년 3월 28일이다.



<그림 9> 현재의 구세군교회. 2층이 교회이며 1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다. 위의 도면에서 '교회'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본관 건물이 들어섰고, '체육장'은 주차장으로 바뀐 셈이다.

보국민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뒤 구세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제33기(1948~1949)로 졸업한 뒤 중앙대학 법문학부, 학도의용군, 중앙신학교(1955), 공군 군목 등을 거치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쌓았던 것 같다. 이후 구세군으로 복귀하여 구세군 군산영담임(1957~1959), 구세군 영동영永同營, 1959~1961)을 역임한 뒤 1961년 7월 28일에 마산중앙영으로 전근한 상태였다.¹⁰⁶⁾



<그림 10>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권태훈 정위

10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233 『고등공민학교인가』(1961년 생산, 경남교위), <이력서>.

그의 형 권태화(1925년생) 역시 개교 이후 구세군고등공민학교에 합류하였다. 1943년에 태성중학교泰成中學校를 졸업하고 북선산업주식회사北鮮産業株式會社에서 근무하다, 경북 교육협회 시행 초등교원시험 합격하여 청송진보국민, 송생국민, 청송국민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국학대학 문학부 국문과 입학하여 이곳을 졸업한 뒤 경북 청송군 파천 국민학교와 진보국민학교 교감(1958~1962)을 역임하다 3월에 사퇴하여 구세군고등공민학교에 합류하였다.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고향에서의 경제적 배경은 좋았던 것 같다. 또한 유학을 갔을 정도로 집안의 교육열은 높았고, 모두 구세군학교에 오래전에 입교하거나 교인으로 활동한 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권태훈은 마산에 부임하자마자 고등공민학교 개교에 착수하였고, 형인 권태화가 교감직을 사퇴하면서 이곳에 동참한 것은 빈민교육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1961년 12월 25일 자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극빈자의 자녀 및 근로소년 소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 선도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교육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국가 장래의 유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두었다. 요약해보면, 첫째는 극빈자의 자녀와 근로소년 소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중등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

를 양성하고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전국의 고등공민학교 설립 취지와 대동소이하지만, 첫 번째 목표는 구세군 및 기독교계 고등공민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웨슬레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 전파와 교육을 접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전성기 때의 고등공민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먼저 학교 설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교과과정부터 보기로 하자. 마산고등공민학교에서 제출한 학칙 제15조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과목 편성과 학년별 시간 배당은 다음 표와 같다.¹⁰⁷⁾

마산고공의 교과목은 크게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졌다. 필수과목에는 모두 8개 과목이 있는데 그 중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실업가정 등 5개 과목은 주당 5단위, 체육은 2단위, 음악과 미술은 각각 2단위와 1단위로 배정되었다. 선택과목에서도 외국어는 5단위로 필수과목의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등과 비중이 같다. 외국어, 기타교재, 특별활동으로 구성된 선택과목 중 기타교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1시간에서 2~3시간으로 많아진다. 혹 검정고시 대비 교과가 아닐까 한다. 특별활동 역시 1학년의 경우 1단위이지만 2, 3학년에서는 2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10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고등공민학교인가」(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1960~1960), 〈(마산고등공민학교)학칙〉.

〈표 24〉 마산고등공민학교 교과배당 시수표(주/연간)

구분	교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필수 과목	국어	5(175)	5(175)	5(175)
	수학	5(175)	5(175)	5(175)
	사회생활	5(195)	5(175)	5(175)
	과학	5(175)	5(175)	5(175)
	체육	2(70)	2(70)	2(70)
	음악	2(70)	1(35)	1(35)
	미술	2(70)	1(35)	1(35)
	실업가정	5(175)	5(175)	5(175)
선택 과목	외국어	5(175)	5(175)	5(175)
	기타교재	1(35)	2(70)	3(105)
	특별활동	1(35)	2(70)	2(70)
총계		39(1,365)	39(1,365)	40(1,400)

구세군고공 주간부의 경우에도 마산고공과 마찬가지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대별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는 국어를 비롯하여 8개 과목, 선택과목으로 외국어와 실업가정을, 그리고 기타과목에 특별활동을 배정하고 있다. 필수과목 중에서 실업가정 과목에 제일 많은 15시간을 배당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생활이 14시간, 국어와 외국어가 각각 12시간씩이다. 마산고공이 주요 과목에 일률적으로 5시간씩을 배당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비중이 떨어진다. 반면 필수과목의 실업가정과 선택과목에 들어있는 실업가정이 같은 과목인지 아니면 다른 과목인지를 알 수 없으며, 특별활동에도 특히 2, 3학년에 5시간씩 배당한 경우도 독특한 구성이라 하겠다. 주간부와 야간부를 비교해 보면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학, 외국어의 주간 시수는 동일하다. 그러나 체육보

〈표 25〉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교과배당(주간부)

구분	교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소계
필수 과목	국어	4	4	4	12
	사회생활	5	5	4	14
	수학	4	4	2	10
	과학	4	4	3	11
	체육보건	2	2	2	6
	실업가정	5	5	5	15
	음악	2	1	1	4
	미술	2	1	1	4
선택 과목	외국어	3	4	5	12
	실업가정	1	1	1	3
기타	특별활동	2	5	5	12
총계		34	34	34	102

〈표 26〉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교과배당(야간부)

구분	교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소계
필수 과목	국어	4	4	4	12
	사회생활	5	5	4	14
	수학	4	3	2	10
	과학	4	4	3	11
	체육보건	1	1	1	3
	실업가정	3	3	3	9
	음악	1	1	1	3
	미술	1	1	1	3
선택 과목	외국어	3	4	5	12
	실업가정	2	1	1	4
기타	특별활동				
총계		27	27	27	81

전, 음악, 미술과목에서 시수가 절반 혹은 1시간씩 줄어들게 계상되었고, 야간부에는 특별활동 시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간부와 차이가 난다. 물론 1주일간의 시수에서도 주간부는 34시간인데 비해 야간부는 27시간으로 7시간이 적다.¹⁰⁸⁾

특이한 것은 주야간부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과목 시수를 올려 간다는 점이다. 이는 구세군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라서 이에 대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설정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마산고공과 비교해 보면 구세군고공의 수업시수가 적다. 마산고공의 주간 시수가 1, 2학년은 39시간, 3학년은 40시간인데 비해 구세군고공은 그보다 적은 34시간이다. 말하자면 마산고공은 중학교 기준에 딱 맞춘 과목과 시수임에 비해 구세군은 그보다는 약간 느슨하며 또 실업가정 쪽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공민교육, 혹은 사회교육에 좀 더 치중하는 교과목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의 마산여고 공과 비교해 보면 수업시수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우며 과목수 역시 많다. 이는 1960년대 전후의 고공 교과과정이 중학교의 기준에 맞추어져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 학교의 재정 상태이다. 먼저 마산고 등공민학교의 3개년도 세출입 총액표를 보기로 하자.¹⁰⁹⁾

10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233 「고등공민학교인가」(1961년 생산, 경남교위), 〈학칙-별표〉.

10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고등공민학교인가」, 〈(마산고등공민학교) 경비와 유지방법〉.

〈표 27〉 마산고등공민학교 3개년간 세입 예산표

경상부						
과목			예산액			부기
관	항	목	1957년도	1958년도	1959년도	
1.기본재산 수입			581,770	581,770	581,770	
	1.재산수입		581,770	581,770	581,770	노동조합건물대, 후생식당 및 후생비
2.회비			700,000	1,300,000	1,900,000	
	1.입회찬조 (후생부지급)		100,000	100,000	100,000	노동조합후생부 지급금액
	2.회비찬조		600,000	1,200,000	1,800,000	특별회원으로부터 각출금
3.잡수입			100,000	70,000	50,000	
	1.잡입		100,000	70,000	50,000	실습지생산물
경상부 계			1,381,770	1,951,770	2,531,770	
임시부						
과목			예산액			부기
관	항	목	1956년도	1957년도	1958년도	
1.찬조금			1,000,000	1,000,000	1,100,000	
	1.찬조금		1,000,000	1,000,000	1,100,000	
2.잡입금				438,770	95,540	
	1.교사신축			438,770	95,540	
임시부 계			1,000,000	1,438,770	1,195,540	
세입 합계			2,381,770	3,390,540	3,727,310	

세입 총액을 보면 개교 첫해에는 약 2백 38만여 원이고 다음해에는 340만 원 정도, 마지막 해인 1959년에는 373만 여원이다. 증가액을 보면 1957~1958년 사이에 100만 8천여 원 증액(경상부 570,000, 임시부 438,770), 1958~1959년 사이에는 33만 6천여 원이 증가(경상부 580,000,

임시부 -243,230)하였다. 증가율은 1957~1958년에 약 42.4%, 1958~1959년 사이에는 약 10% 증가율이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1957~1958년도의 경우 경상부보다 임시부에서 더 높았고, 반면 1958~1959년도에는 임시부에서 되려 24만 3천여 원이 깎여 1957년도에 비해 소액만이 증액되었다. 경상부에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조합비와 기부금이었다. 여기에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없었으므로 기본 수익은 조합원의 회비와 기부금이었다.

이와 달리 세출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상비용에서 봉급이 약 150여만 원으로 가장 컸고, 임시부의 경우에는 신영비(新營費)라고 잡혀 있는 교사신축과 신축적립금에 첫해에 약 77만여 원을 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큰 액수는 1958년부터 구입하는 책상 의자 비용이었다. 이 역시 신축학교가 보여주는 특색이라 할 수 있으나 교직원진영을 교장, 교감, 교사, 서무, 용원 등 거의 완전체로 갖추려고 하는 데서도 비용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입세출서에서는 그것을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누어 계상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임시부의 비용은 줄어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¹¹⁰⁾

재산목록으로는 자금총액이 379만 6천 원이고, 여기에 기본재산 341만 원, 보통재산이 38만6천 원. 기본재산 목록은 마산시 중앙동 1가 12번지 소재의 대지 46평짜리 토지,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39평짜리 교사 건

11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고등공민학교인가」, 〈세입세출예산서〉

물이 포함되어 있다.¹¹¹⁾ 재정문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므로 고공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8〉 마산고등공민학교 3개년 세출 예산표

경상부						
과목			예산액			부기
관	항	목	1957년도	1958년도	1959년도	
1.회의비			25,000	30,000	35,000	
	1.총회비		15,000	20,000	25,000	
	2.역원회비		10,000	10,000	10,000	
2.학교비			1,552,000	2,240,000	2,656,000	
	1.봉급		1,552,000	2,240,000	2,656,000	
		1.교장급	144,000	144,000	144,000	월 12,000
		2.교감급	120,000	120,000	120,000	월 10,000
		3.교사급	864,000	1,440,000	1,728,000	월 8,000
		4.서기급	96,000	96,000	96,000	월 8,000
	2. 잡급		108,000	118,000	128,000	
		1.용인급	60,000	60,000	60,000	월 5,000
		2.여비	20,000	25,000	30,000	
		3.숙직비	18,000	18,000	18,000	
		4.위로비	10,000	15,000	20,000	
	3.수용비		60,000	77,000	95,000	
		1.비품비	15,000	20,000	20,000	
		2.소모품비	30,000	40,000	50,000	
		3.도서인쇄비	10,000	10,000	15,000	
		4.통신운반비	5,000	7,000	10,000	
	4.수리비		100,000	150,000	200,000	
	5.잡비		60,000	95,000	145,000	

11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고등공민학교인가』, 〈시설 및 재산〉.

		1.**경품비	10,000	20,000	30,000	
		2.장학비	15,000	20,000	30,000	
		3.연구 및 실습비	20,000	30,000	40,000	
		4.위생비	5,000	5,000	5,000	
		5.체육비	10,000	20,000	30,000	
3.잡지출			15,000	25,000	31,310	
	1.잡출		15,000	25,000	31,310	
4.예비비			10,000	20,000	25,000	
	1.예비비		10,000	20,000	25,000	
경상비 계			1,606,000	2,315,000	2,747,310	

임시부						
과목			예산액			부기
관	항	목	1957년도	1958년도	1959년도	
1.신영비			341,000	980,000	980,000	
	1.교사신축비		311,000	600,000	600,000	
		1.보통교실		600,000	600,000	
		2.교장실	120,000			
		3.교무실	240,000			
		4.서무실	25,000			
		5.숙직실	3,000			
		6.창고	3,000			
		7.변소	10,000			
	2.책상 의자 구입비			220,000	220,000	학생용
	3.시설비			70,000	70,000	
	4.예비비		20,000	90,000	90,000	
	1.교사신축 적립금		438,770	95,000		
			438,770	95,000		
임시부 계			779,770	1,075,540	980,000	
세출 합계			2,381,000	3,390,540	2,727,135	

마산고공에서는 관계 당국에게 세밀할 정도로 각종의 지불증명서를 첨부하여 계획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마산부두노동조합 위원장 노현섭의 명으로 1957년 5월에 발행한 <지불증명서>에는 174만 5천3백10원을 고등국민학교의 운영비로, 1957~1959년 3년간 매년 50만1770원을 지불키로 증명하고 있다. “이 지불은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득하였음”이라는 단서를 문미에 달아 이 결의가 조합장 단독 명의가 아니라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결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지불증명서>에는 고공 운영비조로 3년 동안 매년 10만 원 씩 모두 30만 원에 대한 지불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조합장의 이름으로 발급하였다.

〈표 29〉 마산고등국민학교 찬조금 방명부

찬조금액	주소	성명	직업	인	비고
일금 30만 원	*	노*			
일금 20만 원	*	문*			
일금 10만 원	*	라*			
계 60만 원					

이 지불증명서에도 말미에 “본지불은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득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세 번째 <지불증명서>는 고공운영비조로 3개년간 360만 원을 지불키로 하는 증명서이다. 이는 회원의 찬조로 본조합원 4,657명이 마산고공의 특별회원이 되어 지불하는 것이었다. 이 역시 1957년 5월 위원장 노현섭의 명의로 발급하였으나 1956년도

대의원대회 녹취록 중 고등공민학교 관계만 줄여서 첨부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 노동 동지들의 자제를 위해 노동고등공민학교라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일동의 찬동을 얻었고, 다른 노조원은 재산세입, 건물, 후생부 조합 특별회원 등에서 보조하는 것이 좋다는 제언을 하여 이 역시 찬동을 받았다.¹¹²⁾

결국 노현섭이 대표로 있는 마산부두노동조합은 노무자 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용도로 찬조금, 후생비, 특별조합비 등 각종 경비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첨부해 마산시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다.

교사로 쓰려고 하는 건물 역시 마산부두노동조합 소유였다. 이것 역시 금번의 대의원 결의를 통해 산하 노총 자녀 교육용으로 기탁한 사실을 노현섭의 이름으로 증명하여 마산시장에게 1957년 5월 7일에 제출하였다. 이 건물은 지상 2층 대지 46평, 건평은 21평 5합 및 8평 8합의 크기로 이를 설립 기본재산으로 무상기부하며 농협의 평가까지 받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역시 마산고등공민학교처럼 구세군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학년 학급 구성은 매 학년 별 학급수가 1, 2부(주야)에 각 1학급씩이었고, 전 학급은 6개 학급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학생수는 1학급당 50명으로 전체 학생 규모는 300명이었다. 주간과 야간 학급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간에 일하는 소년 소녀들

11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고등공민학교인가』, 〈자불증명서〉.

을 배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녀 학급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녀공학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초기에는 보이지 않던 공민학교 졸업자에게도 입학 자격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학교의 경비 조달에 대해 검토해 보자.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큰 특징은 구세군 대한본영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다. 곧 시설 및 유지비 일체를 옥스팜의 후생부가 대한본영을 통해 지원하고 기타 비용은 마산본영에서 자체적으로 지불되는 찬조유지비와 최저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학생들의 자치회비를 징수하여 운영경비에 충당한다고 언명하였다. 다음은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까지 세입세출예산서이다.¹¹³⁾

〈표 30〉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2~1964)까지의 세입예산서

세입						
과목			예산액			적요
관	항	목	1962년도	1963년도	1964년도	
1. 재산수입						
	1. 재산수입					
2. 사용료 및 수수료						
	1. 수업료		600,000	1,200,000	1,800,000	학생1인당 500
	2. 입학금		60,000	60,000	60,000	학생1인당 600
3. 잡수입						
	1. 잡수입		2,944,800	4,146,800	4,868,800	
합계			3,604,800	5,406,800	6,728,800	

11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233 「고등공민학교인가」, 〈경비와 유지방법〉.

〈표 31〉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2~1964)까지의 세출예산서

세출						
과목			예산액			적요
관	항	목	1962	1963	1964	
1. 학교비						
	1. 봉급		2,760,000	4,200,000	5,160,000	교원1인당 60,000 서무직원 30,000
	2. 제급					
		1)가족수당				
		2)전시수당				
		3)고원급	120,000	120,000	120,000	고원 1인 10,000
		4)숙통료				
	3. 여비		100,000	150,000	200,000	
	4. 수용비					
		1)비품비	120,000	180,000	240,000	
		2)소모품비	120,000	180,000	240,000	
		3)도서인쇄비	120,000	180,000	240,000	
		4)통신운반비	24,000	36,000	48,000	
2. 재산비	5. 수리비		100	100	100	
	6. 잡비		100	100	100	
		제세공과금	100	100	100	
		재산관리비	100,000	150,000	200,000	
		잡비	100	100	100	
3. 신영비						
	1. 교사 건축비					
		1)보통교실	100	100	100	
		2)강당	100	100	100	
		3)변소	100	100	100	
		4)잡비	100	100	100	
4. 잡비						
	1. 잡비		60,000	120,000	180,000	
5. 예비비						
	1. 예비비		80,000	90,000	100,000	
합계			3,604,800	5,406,800	6,488,800 (6,728,800)	*64년도 세출액 총액은 문서의 것과 240,000원의 차이가 난다.

첫해인 1962년도의 세입액은 모두 360만 4천 8백 원인데, 이 중 학생으로부터 거두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66만 원이다. 학생 1인당 각 5백 원과 6백 원씩이다. 전체 세입액 중에서 학생들로부터 거두는 액수의 비율은 약 18% 정도이다. 나머지 예산액은 모두 잡수입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 예산 계획에 대해 재한국 구세군유지재단 법인에서는 1961년 12월 15일 자로 세입세출 예산서 중 초년도 294만4천 8백 원정, 2년도 410만6천 8백 원정, 3년도 486만 8천 8백 원정을 지불할 것을 승인하였다. 제대한 구세군 유지재단 법인 대표 장운용張云用은¹¹⁴⁾ 고등공민학교가 존속하는 한 장군동 2가 13번지에 소재하는 구세군의 전 재산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재산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학교설립신청서에 첨부하였다.

지출액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급으로서 모두 276만 원이다. 이 중 교원에게는 매월 6만 원, 서무직원에게는 3만 원, 그리고 고원 1인에게는 1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교원과 직원, 고원을 구분해서 비용을 계상한 학교는 마산고공에도 있었다. 마산고공은 그러나 교장급, 교감급, 교사급, 서기급, 그리고 용인급으로 구분하여 월급을 책정하였다. 곧 교장은 월 1만 2천 원, 교감은 1만 원, 교사는 8천 원, 서기는 8천 원, 용인은 5천 원이었다.¹¹⁵⁾ 이와 달리 구세군은 교장, 교감,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를 지불하였다. 인플레이를 감안한다 해도 구세군

11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233 「고등공민학교인가」, <지불승인서>(1961.12.15.)

11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고등공민학교인가」, <세입세출>

과 마산고공의 교사 평균 임금은 6대 1 정도였다. 구세군의 다른 지출비용으로는 비품과 소모품비가 각각 12만 원씩, 도서비도 12만 원, 재산관리비 10만 원 등이었다. 신영비 중에서 교사건축비는 매우 적게 잡혀 있는데, 이는 마산영 건물 내에 짓는데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스팜 측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구세군고등공민학교는 다른 고공과 달리 교사나 시설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바로 마산영 내에 교사를 신축할 수 있는데다 또 영 내의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세군과 마산고공은 모두 자신이 속한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고, 그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까닭에 이전의 고등공민학교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환경을 갖춘 채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산고등공민학교와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교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웨슬레구락부의 관련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들 두 학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인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마산고공의 교직원명부는 다음 <표 32>와 같다.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모두 8명의 교사가 명부에 올라 있다. 교장과 교감직이 따로 있고, 각각의 교사는 2과목씩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 체육만 한 사람이 세 과목을 맡고 있다.

이 명부에는 이름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모두 갖추었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 이름과 연령, 학력을 감추었다. 하지만 신청서에 함께 제출한 취임 승낙서에는 실명이 모두 쓰여 있다. 교장 노는 노현섭, 교감 이**는 이정진李正珍, 교사 문**은 문호식文浩式, 조**는 조인

〈표 32〉 마산고등공민학교 교직원명부

직명	성명	연령	학력	담당과목	비고
교장	노**	**	**	공민 사생	
교감	이**	**	**	대수 기하	
교사	문**	**	**	영어 한문	
동	조**	**	**	물상 생물	
동	진**	**	**	물상 농업	
동	김**	**	**	역사 농업	
동	장**	**	**	국어 지리	
동	나**	**	**	미술,음,체	

**표시는 원문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국가기록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규趙仁奎, 진**은 진기윤陳基琬, 김**은 김두영金斗泳, 장**은 장인숙張仁淑, 나**는 나호웅羅虎雄이다.¹¹⁶⁾ 이들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사실상 교장인 노현섭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노현섭이 학병 출신인 친구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학병 출신이나 그와 비슷한 학력과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독특한 경력의 교사들도 있다. 바로 마산시장의 허가를 받고 고공의 강사로 겸임하는 이로, 마산시 서무과 지방주사 조인규趙仁奎가 있다. 조인규는 마산시 공무원이었다. 또 한 사람 마산시장의 허가 아래 강사로 겸임한 사람은 사회과장 지방주사 이정진이었다. 교감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강사 이병성李炳聲 역시 마산시 사회과 지방주사로, 마산시장의 허가 아래 고등공민학교 교사를 겸임하였다. 그러나 이병성의 이름은 교직원 명부에는 없다. 특히 위의 이정진과 조인규는 노현섭이 학교를

11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고등공민학교인가』, 〈취임승인서〉.

개설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때 도움을 준 사람으로 일기에서 기술한 것을 보면 평소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김두영은 정부 수립 이후 마산에서 교원 노조를 주도하였고, 노현섭도 이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동지 관계였다고 보인다. 또한 영어와 한문을 담당하게 될 문호식은 노현섭과 함께 학병으로 끌려간 경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마산고등공민학교 교직원 구성은 그가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 엘리트와 마산부두노조, 그리고 마산 시 직원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와는 달리 구세군고공의 교직원 명단은 거의 모든게 분명하다.¹¹⁷⁾ 5명으로 남 3명, 여 2명이었고, 연령대는 4명이 30대, 20대가 한 명이다. 직위는 교장, 교감,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과목은 사회생활, 국어, 보건체육, 음악, 외국어, 과학, 미술, 수학, 실업, 가정 등 10개 과목이다. 권태훈과 권태화가 교장과 교감을 겸임한 것을 보면 구세군마산영에서 별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다른 3인은 모두 전임으로 교과에 전념하는 교사들이었다. 출신학교로 보면 2명이 신학교이고, 다른 3명은 국학대학, 이화여대, 그리고 고려대학으로 모두 서울 소재 대학들이다. 일단 교사진용으로 보면 많지는 않으나 필요한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라 생각된다. 채용예정이라고 하였으니 현재의 인력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신상을 기재한 것을 보면 학교인가가 나는 즉시 교사진으로 채용했으리라고 본다.

11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고등공민학교인가』,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신청서-채용예정 교원일람표〉.

〈표 33〉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채용예정교원일람표

성명	성별	연령	직위	담당과목	전임·겸임	출신학교	비고
권태훈	남	35	교장	사회생활	겸임	중앙신학교	
권태화	"	37	교감	국어·보건체육	"	국학대학	
하태진	"	38	교사	음악·외국어	전임	한국신학대학	
이복자	여	33	"	과학·미술	"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호	"	24	"	수학·실업·가정	"	고려대학교	

권태훈과 권태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피한다. 하태진은 남해군 남면 죽전리가 고향으로 1924년생이다. 남해농업실습학교를 졸업(1943)한 뒤,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졸업(1947~1951. 당시 학장 서리는 김재준)하였고, 1950년 9월부터 남해군 남면 당항교회에 전도사로 임명된 뒤 목회활동에 들어간 듯하다. 이후 하동의 화심동교회와 거제의 아주교회 목사를 거쳐 1957년부터 마산 제일교회 목사로 시무하고 있었다. 신원조사서에 따르면 300만 환 정도의 동·부동산을 소유한 중류 가정으로 세평이 좋다고 기술하였다.

과학과 미술을 담당할 이복자는 서울 출신으로 6년제 경기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학부 약학과를 졸업(1957~1961)한 뒤 현재 창원군에서 약방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신원진술서에는 남편과 1남 3녀의 가족을 둔 그의 재산은 동·부동산을 합해 1,500만 환으로 인근에서는 상류로 보고 있으며, 10년간 기독교 신자로 지내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수학 실업 가정을 담당할 이은호는 마산 출신으로 마산여중고를 졸업

한 뒤 고려대학교(1957~1961)에서 수학한 직후 다시 마산으로 귀향한 듯이 보인다. 가족은 부, 모를 비롯하여 7인 가족으로 비교적 상류이며 3년간 기독교 신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¹¹⁸⁾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교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며, 경제적으로는 중상류층, 학력은 고등교육 이수자들이다. 직업은 구세군영, 교사, 약방 운영, 목사 등이며, 모두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다. 출신지로는 청송 2명, 마산, 창원, 남해가 각 1명씩이다. 다만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 이들을 묶은 또 다른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들은 모두 1961년 12월에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설립자에게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구세군고공에서는 당국에 제출한 교원명단처럼 실제로도 그 원칙을 지켰을까? 1968년에 입학하여 1971년에 졸업한 한 졸업생의 회고에 따르면 구세군고공에서는 교과목마다 교사가 있었다고 한다. 겸직은 없었고, 모두 젊은 연령대의 대졸자들이었으나 교사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없었던 것 같다고 기억하였다.¹¹⁹⁾

이런 사정은 『구세군일지 -마산학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¹²⁰⁾ 이 일지 속에는 1961년부터 1976년까지 모두 66명의 이·취임 교사 명단이 실려 있는데, 이 중 이임 일자가 기록된 교사는 모두 38명이고, 그렇지 않은 교사는 28명이다. 문제는 이임 일자가 없는 교사 28명 모두 1962년부터 폐교될 때까지 계속 근무했을까의 여부이다. 사실 고등공민

11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고등공민학교인가」, 〈취임승인서〉.

119) 이영숙, 2021년 8월 27일의 전화인터뷰.

120) 『구세군일지-마산학교』 참조.

학교의 교원은 대략 8명 전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저 숫자는 믿기 어렵다. 일부 기록 누락이 있거나 혹은 교인이어서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였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최장기 근무 교원은 1961년 9월에 취임하여 1970년 3월에 사임한 교원일 것이다. 9년간 재직한 경우다. 이 교사는 교무주임을 맡았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그 직을 그만두고 이후 사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로써 보면 교단 관계자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종종 사관학교에서 실습차 오는 교원도 있는 것을 보면 구세군고공과 사관학교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길게 근무했던 교사는 3년 4개월, 3년 2개월 정도이며, 2~3개월이나 심지어 3일이나 7일 만에 그만 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1개월 정도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직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초등학교 교사 발령으로 인해 그만둔 경우 1명, 권고사직 당한 1명을 제외하고는 이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담당 교과목을 기록한 사례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관 실습생이 국어 과목과 3학년을 담임한 사례 하나가 있고, 1974년에 취임한 한 교사가 과학, 사회, 음악을 담당한 사례도 있다. 재직 중에 결혼한 사례는 4건이 있다.

교장의 경우, 제1대 권태훈 교장의 재직 기간이 최장으로 약 5년이었고(1961.6.29.~1966.6.17.), 제2대 장주석 교장이 그 다음으로 3년이였다(1966.6.29.~1969.6.28.). 제3대 교장은 한광수였고(1969.6.18.~1972.10.30.), 제4대 교장은 김달용이었다(1972.10.31.~ ?). 특별히 지적해야 할 것은 구세군고등공민학교는 교사가 사직하는 즉시 새로운 교사를 임용

하였으므로 수업에 결손을 주는 일은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교원수는 기준을 충족할 정도였고, 교단과 관련 있는 교사도 임용되었고, 젊은 연령대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창고등공민학교의 교원 구성은 위와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초대 교장이었던 신광부는 당시 마산대학생이었고, 그곳에 와서 강의하는 교사들도 대개는 대학생들이었다고 한다. 1974년도 졸업생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10여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였고,¹²¹⁾ 이들은 대부분 지역의 교사나 대학생들, 여고 졸업생들이었다는 것이다.¹²²⁾ 말하자면 ‘봉사정신이 강한 젊은이’들이 교사로 나섰던 것이다. 야학의 전통이 1970년대에 까지 고등공민학교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도의 마산시 통계에 따르면 대창에는 남 4명, 여 2명 모두 6명의 교원이 있었다.¹²³⁾ 여기서 말하는 6명의 교원이 이 학교의 전담교사였는지, 아니면 자원봉사 차원의 교사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창신농업고등학교 훈련부장이었던 신광부는 3.15의거에 직접 참여한 뒤 전국을 여행하였고, 심지어 서울에서 윤보선 대통령까지 만나 면담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3.15의거를 소개하였다고 한다.¹²⁴⁾ 그가 대학에 입학해서 세운 것이 대창고등공민학교였고, 초대 교장을 맡은 것이다.

121) 「불우한 학생들의 배움터 대창고등공민학교」, 『경남매일』 1969년 6월 25일자.

122) 대창고등공민학교 1974년 졸업생 강재호와의 전화 인터뷰. 2021년 8월 25일.

123) 마산시, 「제4회 통계연보」(마산시, 1968), p.156.

124) 「昌高 申光夫君 全國旅行記 歸馬」, 『마산일보』 1960.8.16.

웨슬레고등공민학교의 교원과 관련해서는 마산시의 통계와 학교의 문예지에 숫자와 명단이 남아 있다. 1967년에 학교에서 만든 문예지에 해당 연도의 교직원 일람표가 수록되어 있어서 그 면모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 1명, 교사 5명, 전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사가 교사를 겸한 것인지, 행정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교회 계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두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포함한다면 모두 7명이다.¹²⁵⁾ 이들 신상에 대해서는 교장인 서익수를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구성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세군의 설립 신청 당시와 그 양상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1962년도와 1963년도의 마산시 통계에 따르면 마산 시내에는 3개의 고등공민학교에 8개 학급, 그리고 교직원은 각각 22명(남 15/여 7), 25명(남 14/여 11)이었다.¹²⁶⁾ 3개교는 의신, 마산고공, 그리고 구세군으로 짐작이 되는데, 1개교에 8명 전후의 교사가 있었던 셈이다. 이 인원은 교육 당국에 제출한 명단보다는 약간 많다.

이들이 모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소 늦은 시기이지만 1970년대 서울 시내 550명의 교원 중 119명이 무자격자였으나 대졸자가 대부분이었고, 1과목 담당은 51.7%, 2과목이 26.4%, 3과목이 17.2%였다.¹²⁷⁾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 고공의 교원은 교육 경험이 짧은 젊은 층이 많았다. 이를 정규 중학교어로

125) 웨슬레고등공민학교 문예부, 『등불』 제1호(1967년 2월), p.34.

126) 마산시, 『제1회 통계연보』(마산시, 1963), pp.155~156.

127) 홍성기, 앞의 논문, pp.37~40.

의 전직을 위한 시험직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는데,¹²⁸⁾ 마산의 중기에 속하는 두 학교 중 구세군은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거 같다. 마산고공의 경우는 연령을 알 수 없으므로 전국적인 경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두 학교 모두 교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마산지역의 교원들은 신청서류에 기재된 것만큼 급여를 받았을까? 예를 들어 마산고공에서 1963년 7월 12일에 마산시장에게 제출한 학칙변경서를 보면 애초에 제시된 급여액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개교 초기의 학칙 36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제반 경비는 일체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변경 학칙에서는 그 대신 “학생으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부득이 징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정하려고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교사 역시 배움에 굶주린 학생들을 위해 무보수로 가르치고 있으나 다소의 거마비라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¹²⁹⁾ 이 학칙개정안은 승인되었다. 이때는 노현섭이 교원노조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뒤, 가택 구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던 사실도 크게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 사례만으로 마산지역 고공 교사들의 급여 문제를 재단하기는 어렵다. 구세군이나 의신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거니와 이 두 학교

128) 여원회, 앞의 논문, pp.20~22.

12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1985년 4월 8일, 「웨슬레, 한빛고등공민학교 폐지인가철」〈학칙변경인가신청서〉(1963.7.12.)

의 교사들은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데다 인원수도 많았기 때문에 마산고 공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산지역에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신청서 중에 학생과 관련된 문서는 사실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학, 재학, 졸업 및 재학중 취업상황,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자세하기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기본적으로 ‘불우’하였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1964년 7월 22일 자로 정식 인가를 받은 화영동 소재의 대창고등공민학교는 주로 ‘영세민 자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진학을 못한 아동’이 주된 입학생이었다.¹³⁰⁾ 서울에서도 고공의 입학 동기 중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요인이 63%였고,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 중에서도 공납금 독려가 57%에 이를 만큼 높았다는 점은 입학 때에는 물론 재학 중에도 여전히 빈곤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반영한다.¹³¹⁾ 사립중학교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입학금과 수업료였음에도 이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재학 중 경제적인 곤궁 이외에 고입자격검정고시라는 또 다른 압박감에 시달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3년부터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고시에 응시해야 했다. 마산고등공민학교에서는 1964년 무렵에 2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는

130) 『경남신문』, 1964년 7월 23일자.

131) 신훈철, 앞의 논문, pp.51~62.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¹³²⁾ 100명 정원 시절이었으니 합격률은 20%가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세군고공을 졸업한 졸업생도 고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전하였는데 이는 졸업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961년 10월 10일에 부산에서 치러진 고입자격검정고시를 일지에 기록하였으며, 1970년 9월에 마산여중에서 있었던 시험에 3명이 응시하였다고 명시하였다.¹³³⁾ 그러나 일지 속에서 합격자를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응시와 합격은 별도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1971년도 경북지역에서는 13.3%였다. 다행히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북지역의 경우 고교진학자는 12.6%, 기타교 진학자는 11.5%였다.¹³⁴⁾ 그보다 늦은 시기인 1977~1981년의 제주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이보다 더 저조하였다. 1977년에는 8.3%, 1978년에는 9.8%, 1979년에는 8.7%, 1980년에는 11.8%, 1981년에는 13.7%였다.¹³⁵⁾ 이와는 약간 다르게 1975년도 서울 시내 고공생들의 고입검정고시 합격률은 24%였다. 이들도 합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험문제가 어렵기 때문이었다.¹³⁶⁾ 전체적으로 보면 고입자격검정고시의 합격률은 지역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

132) 「육영에 불사른 젊은 자성」, 『국제신보』 1964년 6월 6일자.

133) 「구세군일지-마산학교」 참조.

134) 여문회, 앞의 논문, p.42.

135) 김남식,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동졸업학력 검정 고시제도 개황」,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관리특강』, (1982년1월), pp.153~154.

136) 홍성기, 앞의 논문, pp.59~61.

만 30%를 넘기기는 어려웠고, 심지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고입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고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곧 검정고시 통과가 철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고입의 자격 기준에서 중학교 졸업자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이나 기준을 가진 자도 고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해 고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1974년에 대창고공을 졸업한 졸업생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졸업 뒤 경남실고로 진학을 했으며, 또 한일 여실고나 야간에 진학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¹³⁷⁾ 또한 교육계의 교육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 법규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1967년의 마산시 통계에 따르면 이때까지의 고공졸업자 누계는 1,031명이었고, 진학자 누계는 315명이었다. 진학자의 비율이 약 30% 정도이다. 여기서 누계라는 것이 고공초 창기부터의 계산인지, 아니면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62년 이후의 계산인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1968년의 경우에는 졸업자 수 417명에 진학자 수 144명이므로 315명은 1967년의 통계에서 그렇게 멀리 소급되지 않은 연도까지의 합계로 보인다. 그리고 1968년의 졸업생 대비 진학자 비율은 약 35%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

137) 강재호와의 전화 인터뷰. 2021년 8월 25일. 이는 이영숙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공생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 약 30% 이상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였으리라고 본다.

고공 재학생들에게는 진학보다는 더 절실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가정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고입검정고시에만 매달릴 수도 없었으리라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의 경우 진학률이 1,341명 중 225명(24.1%)이었으므로 나머지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표 34>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사였고, 그 다음이 자유업, 기술공, 그리고 사환 순이었다. 모르긴 해도 사환이나 기술공 등은 재학 중에 다니던 곳이었을 수도 있다.

〈표 34〉 1971년도 경북지역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의 진로상황

구분	진학현황				취업현황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고교 진학자	기타고 진학자	사환	기술공	자유업	가사	기타
인원	1,341	179	170	155	34	127	135	520	200
비율	-	13.3	12.6	11.5	2.5	9.4	10.6	38.7	14.9

또한 고공생들은 재학중 신문배달이나 사환, 점원, 우유배달, 식모 등 각종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1968년도 서울의 경우, 주간에는 신문배달과 신문팔이, 고아원, 사환, 구두닦이를, 야간에는 사환, 신문배달, 점원, 신문팔이, 고아원, 행상 등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¹³⁸⁾

138) 윤동섭, 앞의 논문, pp.120~121.

〈표 35〉 경북지역 고등공민학교 학생들의 직업 분포(1970년)

직종	내용	학생수		계	비율
		남	여		
신문배달	중앙지, 지방지	242	120	362	6.3
사환	학교, 관공서, 회사	195	120	315	5.7
점원	문방구, 가구사, 상점	312	250	562	9.7
구두닦기	BBS	165	.	165	2.9
행상	학용품 일용잡화	237	53	290	5.1
우유배달	새벽	78	.	78	1.4
식모	가정 식당	.	139	139	2.4
공장	기술공	811	661	1,472	25.6
가사돕기	고아원, 자기집	1,111	1,232	2,343	40.9
계				5,726	100%

〈표 35〉는 경북지역 고등공민학교 학생들의 직업 소유 여부와 그 분포상황을 조사한 것이다.¹³⁹⁾ 재학생의 직업 분포를 보면 공장이 1,472명(25.6%)이며, 그 다음으로 신문배달 362명(6.3%), 사환 315명(5.7%), 점원 562명(9.7%), 구두닦기 165명(2.9%), 행상 290명(5.1%), 우유배달 78명(1.4%), 식모 139명(2.4%)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적어도 8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장으로 25.6%, 그리고 점원이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78명이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고 있다. 여성들의 전업이나 마찬가지로였던 식모도 139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유배달이나 구두닦기는 남학생들의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급료는 월평균 2,500원 정도였고, 학생들의 40.9%가 직업을 가사돕기라고 써넣었다.

139) 여문희, 앞의 논문, p.40

서울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른 면이 보인다. 1968년도의 조사에서 주간에서는 신문배달(44%), 신문팔이(40%), 나머지는 고아원(6%), 사환(5%), 구두닦기(2%)를 하고 있었고, 야간에는 사환(35%), 신문배달(25%), 점원(17%), 신문팔이(15%), 고아원(3%), 구두닦이, 행상의 순이었다.¹⁴⁰⁾ 주간에는 신문배달, 야간에는 사환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신문배달이 중요 직업이었고, 특히 서울에서는 신문팔이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은 고공생들이 하는 일이었다.

마산은 서울이나 대구의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아마도 대구 지역의 직업 분포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본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여건에서는 마산이라고 해서 다른 도시 지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산고등공민학교의 한 학생의 상황을 보면 타지역의 사정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산고공에 다니는 18세의 최군은 추산동 언덕배기에 있는 삼촌집에서 거주하면서 낮에는 구마산 선창에 있는 배에서 일을 하였고, 삼촌 역시 남해 연근해의 배에서 일하는



<그림 11> 대창고등공민학교 관련 신문 기사. 재학생 90%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대창은 야간부만 운영하였다.

140) 윤동섭, 앞의 논문, pp.120~121.

집꾼이었다.¹⁴¹⁾ 이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이 종료된 후 학생 등교 날 추위 때문에 몇 명만 등교하는 경우도 있었을 만큼 학생들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사정은 좋지 않았다. 또한 앞서의 대창고공생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의 마산에는 산업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재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역 신문에서는 이 학교의 재학생 중 90%가 낮에 직장 일을 한다고 보도하였다.¹⁴²⁾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공생들의 재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68년에 조사한 서울 지역 고공의 학년별 학생수는 1학년 9,105명, 2학년 8,352명, 3학년 5,045명이었다. 1학년에 비해 2학년 학생수는 753명 줄어든 데 비해 3학년 학생수는 무려 4,060명이 감소하였다. 약 45%의 감소율이다.¹⁴³⁾ 1971년의 경북지역에서도 총정원은 9,330명인데, 재학생 수는 5,726명이었으며, 그 중 1학년은 1,135명(36.5%), 2학년은 1,090명(35%), 그리고 3학년은 1,739명(55.9%)이 미달이었다. 곧 3학년으로 갈수록 미달율이 높아졌던 것이다.¹⁴⁴⁾

그러나 다음의 <표 36>에서 보듯이 1966년도의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지원입학과 학급편성 현황을 보면 전국적인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¹⁴⁵⁾ 여기서 마산고공은 웨슬레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마산웨슬레

141) 홍중조 등, 위의 책, pp.314~317.

142) 「불우한 학생들의 배움터, 대창고등공민학교」, 『경남매일』, 1969년 6월 25일자.

143) 윤동섭, 앞의 논문, p.106.

144) 여문희, 앞의 논문, pp.29~31.

14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 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폐인가철」(경상남도교육위원회 학무국 사회체육과), <66학년도 고등공민학교 지원 입학 및 학급편성 현황>.

고등공민학교는 그 후신으로 보면 좋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다름이 아니라 애초에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교육청에 신청한 학년별 정원수가 반드시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지 않은 학교가 있던 것처럼, 신청 정원 역시 학교의 시설이나 입학생, 교사 수급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하였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부의 경우에 정원의 가변성이 높았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표를 보기로 한다.

〈표 36〉 1966학년도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지원 입학 및 학급편성 현황

학년 학교명	주·야	재학생 현황						1966학년도 입학		정원
		1학년		2학년		3학년		지원자수	입학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마산웨슬레	주	46	12	40	15	32	7	65	54	60
	야	25	10	20	13	18	5	19	18	?
구세군	주	39	21	47	12	45	15	82	58	60
의신여자	주		50		50		44	70	50	50
대창	야	28	22	27	21	21	15	67	50	50(?)
계	주	85	83	87	78	77	66	217	162	
	야	53	32	47	34	39	22	86	68	
주야 총계		138	115	134	112	116	88	303	230	
합계		253		246		204		703(남388/여315)		

이 표에서 보듯이 마산지역의 고공에 재학중인 총학생수는 남 388명, 여 315명으로 모두 703명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53명, 2학년에 246명, 3학년에 204명이며, 이 중 1학년 남학생 총수는 138명인데 비해 3학년은 116명이다. 22명이 적다. 1학년 여학생은 115명인데 3학년은 88명으

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각 학교별로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난다. 구세군 고공의 학생과 의신여자고공의 재학생은 비교적 높은 재적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세군은 1학년 60명, 2학년 59명, 3학년 60명으로 전체 99.4%, 의신의 경우 1, 2학년은 각각 50명, 3학년은 44명으로 96%의 매우 높은 재적율이다. 웨슬레고공 주간부의 경우 1학년은 58명, 2학년은 55명, 3학년은 39명으로, 전체 재적율은 84%이며, 그 중에서도 3학년의 재학율이 65%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대창의 합격생이 50명이었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학년은 50명, 2학년은 48명, 3학년은 36명이 재학중이었다. 정원 150명 기준에 134명이므로 재적율은 89%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로써 보건대 구세군과 웨슬레주간, 의신, 그리고 대창의 재적율은 각각 99.4%, 84%, 96%, 89%로 매우 높은 편이다. 1966학년도에도 입학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있으므로 1960년대 중반 마산 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재적율이나 입학율은 모두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재적율은 1968년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⁶⁾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전후에는 마산지역에서 마산고공과 웨슬레구락부, 구세군, 대창 등이 개설되면서 고등공민학교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생각된다. 1966년의 마산시 통계에 따르면 마산에는 4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있었으며, 학생수는 952명(남 458/여 494), 당해 연도의 졸

146) 마산시, 『제4회 5회, 7회, 13회, 14회, 17회 통계연보』(1968, 1969, 1971, 1977, 1978, 1981), p.183, pp.138~139, pp.136~137, p.240, pp.240~241, p.212 참조.

업자는 417명, 진학자는 144명이었다.¹⁴⁷⁾ 1962년의 재학생 277명에¹⁴⁸⁾ 비하면 약 3.4배 증가한 것이다. 재학생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산고공이나 구세군고공처럼 기관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소속 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다. 교원의 숫자는 기준액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질은 비교적 높았던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의 입학이나 재학 비율 역시 높은 편이었으며, 졸업자 대비 진학자 수 역시 30% 전후로써 고입자격검정고시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양상은 거의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서울이나 경북지역의 고등공민학교가 쇠퇴일로로 걸은 사실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표 37〉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학생수 현황(1966~1980)

연도	계	남	여	연도	계	남	여
1966	704	389	315	1974	895	394	501
1967	952	458	494	1975	993	465	528
1968	1,047	457	590	1976	971	397	574
1970	840	563	277	1977	998	466	532
1971	930	596	334	1978	1,218	418	800
1972	735	363	372	1979	739	219	520
1973	665	321	344	1980	1,638	1,163	475

147) 마산시, 『제4회 통계연보』(마산시, 1968), p.183.

148) 마산시, 『제1회 통계연보』(마산시, 1963), pp.155~156.

후기의 새로운 발전과 고등공민학교의 쇠퇴

여기서 말하는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후기’ 시대란 196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선화고등공민학교 출발부터 이들 학교가 최종적으로 문을 닫는 1980년대 중반까지를 지칭한다. 이 시기에는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보았다.

이 시기를 구분짓는 지표 중의 하나는 선화고등공민학교가 새로 개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학교는 이전의 다른 고등공민학교와 달리 규모가 컸고, 또 이렇게 된 데에는 고등공민학교를 바탕으로 정규 중학교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목표로 출발했던 마산고등공민학교는 웨슬레구락부에 통합되어 마산웨슬레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하였다. 새 학교의 출발과 기존 학교들의 통합 못지않게 새로운 현상도 나타났다. 바로 고등공민학교가 정규 중학교로 변환하기 시작하였다. 의신여고공은 학칙을 바꾸면서 정규 중학교로의 변신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는 웨슬레고공의 운영자였던 서익수도 계획하고 있던 바였다. 여기에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기왕의 구세군과 대창이 폐교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고등공민학

<그림 12>

선화고등공민학교 위치를 조사한
교육청의 지도. 우측 중앙의 붉은
점이 선화, 그리고 그 위쪽에 웨슬
레와 의신, 그리고 좌측에 대창과
구세군의 위치를 그려넣었다.



교는 마산 시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0년이 채 못되는 시기에 신
설과 전환, 그리고 폐교라는 세 가지 흐름이 연이어 나타난 것이다.

우선 선화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관련되는 여러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
자. 선화고등공민학교가 경남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1966년 9월 30일이었다. 목적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민생
활에 필요한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었으며, 명칭은 선화고등
공민학교, 위치는 마산시 상남동 31-1, 학급수는 3학급, 학생정원은 180
명, 개교연월일은 1967년 3월 1일, 사항은 학칙과 같음(야간 여) 등이 이
문서에 적혀있다.¹⁴⁹⁾

여기서 경남도 교육위원회가 인가증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7항의 “기
타사항은 학칙과 같음(야간 여)”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를 야간부

14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 “건의”〉, 〈인가증〉.

여학생으로 모집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학교에는 야간부가 없었다. 그리고 당시 제출한 학칙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다만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6조에 “본교는 각 학년마다 1학급씩으로 편성한다.” 제7조에 “학생정원은 매 학급당 60명씩 180명으로 한다”만이 규정되어 있다.

선화고공도 당시의 여타 고등공민학교처럼 비인가 시기를 얼마 동안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선화고공은 인가 이전인 1962년에 제일여중고 교사였던 김인택이 본인의 집 창고에 야간학교를 개설하여 30여 명을 모아 여동생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것이다.¹⁵⁰⁾ 정식 인가 직전까지 야간부 형태로 여학생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했던 것으



<그림 13> 선화고등공민학교의 상남동 교사 신축 사진. 현재의 북마산 청과시장 자리에서 시작하였다.

150) 「제비산 마루터의 남매선생 - 경남 마산의 선화여자공민교」, 『경향신문』, 1967년 2월 1일자.

로 보인다. 여기서 여학생들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했던 사실 때문에 위의 학칙에서 ‘야간(여)’라는 부대조항이 끼어들어간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다면 이들을 수료시키기 전에는 이중방식으로 운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구세군이나 웨슬레처럼 선화도 공인 이전에 비인가 형태로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한 것이다.

교육당국에 제출한 선화고공의 설립 취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능을 연마케 하여 사회생활은 물론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향학열에 불타지만 영세하여 진학하지 못하고 교육의 외곽지대에서 방황하는 소년 소녀들의 교육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 셋째, 이들을 선도하여 희망을 주고 이상을 달성케 함을 근본 취지로 하고 일인일기의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사회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¹⁵¹⁾ 정부 수립 직후의 목표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특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취지가 서술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맞는 일인일기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마산은 이미 3.15의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였고, 또 기왕의 20세기 전반기의 초기 산업화에서 더 나아가 1964년에 한일합섬과 같은 거대 기업의 등장으로 이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선화고공도 일단은 교육법이 정한 사회교육의 목표에 충실하려고 했던

151) 이영옥,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고찰」(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12), p.16.

것 같다. 사회교육은 1960년대에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더욱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로 나온 이농 가족이나 단독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 불리하였다. 곧 도시의 가난한 집안의 소녀들에게 중등교육의 기회가 오기 어려웠던 것이다. 1966년 당시 마산 시내 초등학교 졸업생은 4,107명, 진학희망자 수는 3,284명, 미진학자는 82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마산시 교육장 정진효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올린 「의견서」에서 ‘불우한 생활 환경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치 못하고 있는 학도들을 위하여 사재를 털면서 학교를 지어 이들을 구제하려는 사회적 독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¹⁵²⁾

그렇다면 선화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¹⁵³⁾ 우리는 먼저 1960년대 중반이 마산 사회에서 매우 격동적인 시기였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본격적인 산업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산만의 해운동에 자리한 한국철강(1965)의 출발을 시작으로 양덕동의 비옥한 농경지에 한일합섬 마산공장 설립이 결정되면서(1965) 마산은 섬유와 기계 중심의 산업도시로 성격이 바뀌어 갔다. 다시 여기에 국가 주도의 마산자유무역지역(1970)이

15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 “건의”〉, 〈인가증〉.

153) 경북지역에서도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고등공민학교가 각각 1개교와 5개교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면 32개교, 그 중에서도 64년도에 9개교, 65년도에 6개교가 설립되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운희, 앞의 논문, pp.10~11. 그 점에서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개설은 마산지역에서는 가장 늦은 편이지만 인근 타지와 비교해 보면 전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산호동과 봉암동 갯벌
에 만들어지면서 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에 수
출중심 도시의 성격까
지 겹치게 되었다. 지
형상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
였다. 이들 산업체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그림 14> 선화고등공민학교 교실 풍경

1966년의 통계에 따르면 종업원 200명 이상의 대기업은 고려모직, 마산방직, 유원산업, 한국철강, 한일합섬 등 10여 개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남자 2,301명, 여자 1,273명이 고용되었다. 중소기업 역시 207개로 1961년 당시보다 90여 개가 증가하였고 고용인원 역시 5,289명으로 177% 증가하였다.¹⁵⁴⁾

이에 따라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전반기에 마산시 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1970년에 190,992명으로 약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거의 대부분 신설의 산업체 건설로 인해 외부의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 탓으로 볼 수 있다.¹⁵⁵⁾ 선화고등공민학교가 학교 설립의 취지를 “산업화에 필

154) 마산시사편찬위원회, 『마산시사, 제4권 경제와 사회』(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pp.50-54.

155) 『마산시사 제4권 경제와 사회』, p.76.

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었던 까닭도 이에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왜 상남동에 세우려고 한 것인가. 당시 마산 시내에는 4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 마산시 교육장 정진효는 경남교육청에 송부한 「의견서」에서 이들 학교는 모두 시내의 변두리 산 밑에 위치하고 있지만, 선화고등공민학교는 대체로 생활수준이 낮은 주거민을 끼고 있는 시내 중심지인 상남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곧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 근처 일대의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는 점, 또 인구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상남동이 안고 있는 두 가지 특징, 곧 시내 중심지와 가깝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이유가 선화고등공민학교 설립의 위치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¹⁵⁶⁾

실제로 상남동은 마산의 도시 중심부와 주변 농촌부의 사이에 위치한 경계지대에 속해 있었다. 그리하여 일제 시대 이후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연이어 들어섰다. 일제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이곳에 들어선 각종 대소 공장은 205개가 넘었고, 이로 인해 마산의 공단이라고 불렸다.¹⁵⁷⁾ 인접하고 있는 회원동에도 대소의 80여 개가 넘는 각종 공장들이 즐비하였다.¹⁵⁸⁾ 또한 상남동은 북마산의 중심지로서 이웃하고 있는 회원동, 교원동, 교방동과 더불어 신흥의 도시화지구로서 1950년

15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의견서〉.

157) 박영주, 「기업과 공장의 흔적을 찾아서」, 유장근 등, 『노산동 명품마을 만들기 스토리텔링 자원발굴 연구조사 보고서』(창원시청, 국토부, 2013.11), pp.141~158,

158) 허정도, 「회원동, 교원동, 교방동의 생활공간의 역사와 흔적」, 「허정도와 함께 하는 도시이야기」
<https://www.u-story.kr/1126> 2021년 8월 6일 확인.

대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8년에서 마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상남동(12,245)이었고, 그 다음으로 회원동(11,722), 산호동(10,141)의 순이었다.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 동진고등공민학교, 선화여자고등공민학교 등이 상남동을 비롯한 교방동, 회원동 등 북마산 일대에 터를 잡은 것도 빈민 집중과 인구의 증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수는 애초에 교육위원회에 180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승인 직후의 사정을 보면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정을 옮기기 전인 1968년도의 학생 규모를 보면 학급수가 9개, 교원은 13명(남 10/여 3), 재학생은 503명(남 276/여 227), 졸업자수는 294명(남 151/여 143), 진학자수는 127(남 67/여 60)이었다.¹⁵⁹⁾ 곧 1학년 3개 학급 체제로서 학생수나 교원수, 졸업자수, 그리고 진학자수 등에서 다른 고등공민학교보다 매우 큰 규모다. 정규 중학교형 고등공민학교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기왕의 고등공민학교와는 규모 면에서 달랐던 것이다.

선화고등공민학교는 7년 뒤인 1972년에 상남동의 중턱에 위치한 제비산으로 이전하였다. 주소는 상남동 64-1과 64-5였고, 교실 역시 증축하였다. 아마도 학생수가 증가한데다 시설이 협소하고 부설 유치원까지 운영한 탓일 것이다. 또한 시내인 창동이나 오동동에 가까워 학생 수급이나 그들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려는 측면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당시에 제비산 교정의 운동장에서 행한 조회 사진을 보면 최소한 8명

159) 마산시, 『제4회 통계연보』(마산시, 1968), p.156.



<그림 15> 선화고등공민학교 제비산 교정에서 행한 조회 장면.
교복을 단정히 입은 학생수가 꽤나 많고, 교사들도 최소 8명이 보인다.

의 교사와 약 240여 명의 학생이 모였는데 그 중 여학생이 160명 정도, 남학생이 약 80명 정도이다. 따라서 선화고공은 처음에는 비인가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인가 이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수업 역시 남녀공학이었으며, 타교에 비해 시설이나 교원, 학생수 등에서 월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마산제일여고 교사였던 김인택이었으며, 경상남도 경찰국장이 보낸 <신원조사서>에는 성격이 ‘온순 원만하고 근면함’이라는 의견을 써넣었다. 교사 출신이던 김인택이 왜 굳이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 문서만으로는 잘 알 수 없다.¹⁶⁰⁾ 그는

160) 그는 1972년 선화고공이 제비산으로 옮긴 뒤 그 학교터에 북마산 청과시장을 열고 그것을 1990년대 중반까지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허정도, 「창원시 마산 회원1지구 재개발지역 이야기 - 12」, 허정도와 함께 하는 도시이야기 <https://www.u-story.kr/m>



<그림 16> 선화고등공민학교 교무실 풍경

1969년에 선화학원을 설립하고 이어 선화중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¹⁾ 김인택 고공 설립을 주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 중학교로의 전환이었던 것 같다.

또한 그의 학교 설립에는 가족이 도움을 준 것 같다. 기증인 재산 목록에 따르면 기증인 김용갑은 상남동 108-1에 대지, 주택, 목욕탕, 기관실 등 247만여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김인택도 같은 거주지에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부자 관계였으리라고 본다.¹⁶²⁾ 또한 김용갑은 연도별 기증금 내역에서도 1967~1969년까지 55만 원을 기부하기로 증명하였다.¹⁶³⁾

161) 「선화고등공민교 중학으로 인가」, 『경남매일신문』, 1969년 1월 14일자.

162) 김인택은 1968년도 5월에 자신의 돈과 목욕업을 하는 어머니 배씨(51)가 보조해준 1백만 원으로 제비산 기술에 전평 60평짜리 교사를 마련했다. 『경향신문』 1967년 2월 1일자.

16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기증서〉, 〈기증인 재산목록〉.

선화고공의 경비와 유지 방법은 어떠하였을까. 경비와 유지 방법은 고 민스러운 과제였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최저의 부담을 부과하면서도 학 교를 운영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에 제출한 「경비와 유지방법」 에 따르면 사재로 본교를 경영하며 부족한 자력은 각계각층 인사들의 자 진 증여 및 회사 행위로 영세민의 자녀교육에 임하면서 기존 시설을 최대 한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¹⁶⁴⁾

〈표 38〉 선화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7~1969)까지 세입예산서

세입					
항목		예산액			적요 (비율)
관	세목	1967년도	1968년도	1969년도	
1. 재산 수입	1. 수업료	108,000(32%)	288,000	432,000	
	2. 입학금	42,000(12%)	48,000	48,000	
	3. 폐품수집	220	500	750	종이
	4. 상동	255	540	810	공병
		수업료는 학생1인당 150원, 입학금은 700원	수업료는 학생 1인당 200원, 입학금은 800원	수업료는 학생 1인당 200원, 입학금은 800원	
2. 보조금	유지보조	200,000(57%)	200,000	150,000	
합계		350,475	537,040	631,560	

위의 〈표 38〉에서 보듯이 첫해의 세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지보 조금은 약 57%이며, 그 다음 비중은 수업료로서 전체 세입액의 약 32%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금은 42,000원으로 약 12%이다. 그의 부친

16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경비와 유지방법〉.

이 약속한 유지보조금이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종이와 공병 등 폐품 수집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궁여지책일 것이다. 당시 중학생들에게도 부과되었던 이 폐품 수집은 재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확보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공부와 노동에 바쁜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표 39〉 선화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7~1969)까지 세출예산서

세출					
항목		예산액			적요 (비율)
관	항	1967	1968	1969	
1. 학교비	1. 직원수당	144,000(41%) (3,000*4*12)	336,000 (4,000*7*12)	432,000 (4,500*8*12)	
	2. 인건비	12,000(3%)	12,000	12,000	
	3. 여비	3,000	3,000	5,000	
	4. 책결상	51,000(15%) (850*60)	51,000 (850*60)	51,000	
	5. 소모품비	2,875	4,040	5,560	백묵, 잉크, 기타
	6. 도서인쇄	5,000	10,000	12,000	
	7. 통신수송비	3,000	5,000	6,000	
	8. 수리비	4,000	10,000	10,000	
2. 재산비	1. 제세금	4,000	4,000	6,000	
	2. 재산관리	1,000	1,000	2,000	
	3. 교사신축	80,000(29%) (2000*20*2칸)	40,000 (2,000*20평)	50,000 (2500*20)	
	4. 변소	24,000(7%)			
	5. 교실미장	4,600	5,000	6,000	연 2회
3. 평상비	예비비	1,000	30,000	20,000	
4. 기타	잡비	2,000	6,000	4,000	
합계		350,475	537,040	631,560	

세출의 경우 인건비가 15만 6천 원으로 전체 세출 비중에서 약 45% 정도를 차지하며, 책결상 비용이 5만 1천 원으로 약 15% 정도이다. 그리고 교사와 변소 신축비가 11만 3천 원으로 약 32%이다. 세 항목의 비중이 약 92%에 이른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인건비 중에서 직원 수당과 인건비(원문에는 인근비로 기재되어 있다. 인건비의 오자일 것이다. 필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직원 수당은 4인으로 계산되었는데, 교사용 월급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건비는 월 1,000원에 12개월, 1인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행정직원에게 소용되는 비용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이 인건비에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별도로 제출한 <교직원조직표>에는 서무직 정원은 1969년도에야 1명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곧 1967년과 1968년의 조직표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수업료나 입학금은 당시의 고등공민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수준이었을까? 앞서 본 구세군의 경우, 수업료는 학생 1인당 500원을 징수하였고, 입학금은 1인당 600원을 부과하였다.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의 수업료는 오히려 150원에 불과한 데다 학생수마저 한 학급이 적은 까닭에 이 부분에서의 전체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구세군은 유지재단의 재정지원과 구세군 마산영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선화고공은 출발부터 열악한 재정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¹⁶⁵⁾

165) 구세군에 다니던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 이영숙 증언. 2021년 8월 27일.

정규 중학교의 경우 1970년도에 급지에 따라 도시 지역인 1급지 공립 중학교의 경우 1분기 수업료가 1,890원이었고, 사립은 3,270원이었다. 따라서 공립은 사립의 수업료에 비해 58% 정도였다. 고등공민학교는 어떠했을까?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경우 1967년에 입학금은 700원, 수업료는 월 150원이었다. 이는 1급지 사립중학교의 1분기 수업료 3,270원의 19%, 공립중학교 1,890원의 32.8%에 해당한다. 4급지에 비해서도 32%(사립)~53(공립)%로 매우 저렴하였다.¹⁶⁶⁾ 1968년도 서울 지역의 고등공민학교 입학금은 850원, 수업료는 연간 6,000원이었고 그 외에 기성회비 2,880원, 자율적 경비 및 실험실습비를 포함하여 10,530원이었다.¹⁶⁷⁾ 입학금은 선화와 대차가 없으나 수업료는 서울 지역에 비해 약 33% 정도 저렴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을지라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불리한 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교원 채용계획이다. 도교육청에 제출한 채용계획표와 교직원 조직표에 따르면 교직원 중 교원은 교장인 김인택을 비롯하여 1967년도에 교사 3명을 포함한 4명이었다. 두 학년이 증가한 1968년도에는 교감 1명을 두어 5명, 1969년도에는 교사 5명, 사무원 1명이 증가하여 8명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¹⁶⁸⁾

166) 이영옥, 앞의 논문, pp.34~35.

167) 윤동섭, 앞의 논문, pp.101~102.

16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교직원조직표〉.

〈표 40〉 1967~1969년도 선화고등공민학교 교직원 조직표

년도별	구분	학급수	교원정원				사무직정원			합계	비고
			교장	교감	교사	계	사무	서무	계		
1967년도		1	1		3	4				4	
1968년도		2	1	1	3	5				5	
1969년도		3	1	1	5	7	1		1	8	

학교개설신청서에는 교사 채용관련 인력도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장인 이정욱과 강사인 김신인을 제외하고는 4명 모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인데다 그에 맞는 전공교과 전공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종출신교는 서울대학교 3인, 한양대와 중앙대학원 각 1인, 그리고 강사는 서울대학교이다. 곧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출신이다. 당시에 서울 지역 고공의 교사 550명 중에 대학 출신자는 많았으나 무자격자도 20%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¹⁶⁹⁾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선화의 교사진은 강사 1인을 제외한다면 모두 교사자격증을 가진 드문 사례에 속할 것이다. 설립자인 김인택은 1936년생으로 학교를 설립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다. 1963년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마산 출신이었다.¹⁷⁰⁾

169) 홍성기, 앞의 논문, pp.37~40.

17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채용예정교원일람표〉.

〈표 41〉 1967년도 선화고등공민학교 채용예정 교원 일람표

직명	성명	최종출신교	자격증종별(호봉)	담당과목	비고(출신지)
설립자	김인택	서울대학교 문학부 사회학과	고교 2급 준교사	전과목	경남 마산시
교장	이정옥	한양대학교			경남
교사	김문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이과중등교사양성소	중교 정교사자격(수학)	수학	경남
교사	이정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고교 2급정교사자격(역사)	사생	충청북도(경남 마산시)**
교사	조용순	중앙대학원(계명대학 교육과)***	고교 2급 정교사	전과목	경상남도 함안군
강사	김신인	서울대학교			

* 학교제출 서류에는 이정희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작성한 교사취임승락서에는 이정희로 기재되어 있음.

** 본인의 졸업장에는 본적이 충청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인이 작성한 교사취임승락서에는 경남 마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 학교에서 제출한 교원명단에는 중앙대학원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증명서에는 계명대학 교육과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서에 올린 것처럼 이들이 모두 선화고등공민학교에 들어와서 교
사생활을 하였을까? 신청서류에는 모두 이들이 교사에 취임한다는 본인
의 승낙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
나 선화고공의 경우 비인가 시절에는 김인택의 동료 교사 8명이 수학이
나 국어 등의 과목을 무료로 가르쳤다고 한다.¹⁷¹⁾

그러나 정식 인가를 받은 이후 선화고공의 교원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
다. 1968년의 마산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원은 13명이었고 그 중 남교
사 10명, 여교사 3명이었다. 애초에 당국에 신청할 때보다 2.6배 이상 증
원된 셈이다. 같은 시기에 웨슬레가 4명, 의신이 10명, 구세군이 8명, 대

171) 『경향신문』 1967년 2월 1일자 참조.

창이 6명이었으니¹⁷²⁾ 오랜 전통의 의신보다 3명이 더 많은 것이다. 이는 1969년에 선화가 정규 중학교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짙으며, 이러한 사정은 의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 8월에 교육부에서 시달된 〈사회 110-93〉에 따르면, 고등공민 학교 및 전수학교 교과별 교사 정원 기준은 3학급은 8명, 4~5학급은 9명, 6~7학급은 11명이었고, 5학급 이내의 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체육교사는 시간강사로 대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¹⁷³⁾ 이러한 정부의 규정은 사실상 1952년 4월에 제정(대통령령 633호)된 고등공민학교 교원 규정부터 즉 이어져 온 것이어서 새삼스럽지는 않다. 고등공민학교는 정규 중학교보다 규정을 좀 더 느슨하게 적용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선화고공의 교원은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교과목과 수업시수는 당시의 중학교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필수와 선택의 구분, 그리고 설치과목에서는 대동소이하다. 1954년의 문교부령에 제시된 중학의 경우 1, 2, 3학년 모두 필수과목은 8개 교과이며, 선택교과는 3개에 특별활동이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¹⁷⁴⁾

선화에서도 이와 같다. 1학년 필수과목이 국어 등 8개 과목이며 선택

172) 마산시, 『제4회 통계연보』(마산시, 1968), p.156.

173) 홍성기, 앞의 논문, p.35.

17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교과시간배정표〉.

교과는 실업, 외국어, 기타교과, 특활 등 4개이다. 다만 정규중학의 수업 시수가 전 학년 공통으로 1,190~1,330시간인데 비해, 선화고등의 경우 820시간이, 2, 3학년은 842시간으로 1학년보다 22시간이 더 배정되어 있다. 두 학교가 달리 배정하고 있는 것은 기타교과 부분인데, 중학교에는 0~105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비해 선화고등의 경우는 2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곧 기타 교과는 고등공민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이었던 것이다.

〈표 42〉 1967년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교과목과 수업시수

교과시간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필수과목	국어		92-(3)	92-(3)	92-(3)	
	수학		92-(3)	92-(3)	92-(3)	
	사생		140-(4)	140-(4)	140-(4)	
	과학		92-(3)	92-(3)	92-(3)	
	체육		48-(1)	50-(2)	50-(2)	
	음악		46-(1)	46-(1)	46-(1)	
	미술		46-(1)	46-(1)	46-(1)	
	실업		92-(3)	92-(3)	92-(3)	상업, 주산
소 계			648-(19)	650-(20)	650-(20)	
선택과목	실업		22-(1)	42-(1)	42-(1)	가정, 재봉
	외국어		106-(3)	106-(3)	106-(3)	영어
	기타교과		22-(1)	22-(1)	22-(1)	
	특활		22-(1)	22-(1)	22-(1)	
총 계			820-(25)	842-(26)	842-(26)	

그러나 1967년 무렵 국가의 중학교 교과목 규정은 바뀌어 있다. 교과목의 유형은 일반교과와 반공·도덕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기에 특별활동이 별도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일반교과목에는 기왕에 선택과목이던 외국어와 실업·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반공도덕이 각 1시간씩 신설되었으며, 특별활동은 8%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¹⁷⁵⁾

〈표 43〉 1969년도 교육부 고등공민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학년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국어	150~210	150~210	140~210
	사회	70~140	70~140	70~140
	수학	90~140	90~140	80~140
	과학	70~140	70~140	70~140
	체육	60~105	50~105	70~140
	음악	40~70	40~70	40~70
	미술	40~70	40~70	40~70
	실업·가정	280~400	250~400	280~400
	외국어	70~105	70~105	70~105
반공·도덕		70	70	70
특별활동		70~	70~	70~
총시간수		1,000~1,260	1,000~1,260	1,000~1,260

고등공민학교도 이에 따라 중학교 교과과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교과목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종래에는 820~842시간 정도였던 데 비해, 신규 교과과정에서는

175) 이영옥, 앞의 논문, pp.30~31.

1,000~1,260시간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어시간의 경우 종래에는 92시간이었는데, 새 과정에서는 140시간이 되었다. 반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생은 70~140시간으로 조정되었다. 최저 시간이 70시간으로 정해진 것은 그만큼 이 과목의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수학, 과학 등 다른 교과와 균형을 맞춘 것이다.

물론 선화고공의 교과과정에서는 1967년의 정부 신교과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공도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수업 시수 역시 새로운 기준보다 약 160~420여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선화고공의 이 시수는 앞에 서술한 구세군고공보다는 크게 적다. 구세군 전 학년은 모두 34시간이었던데 비해 선화고공은 25~26시간인 것이다. 반면 구세군 야간인 27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필수과목 중에서 실업은 상업과 주산이며, 선택과목의 실업은 가정과 재봉이다. 구세군의 실업가정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고 해도 중학교에 비해서는 약 360시간 정도 적다. 만드시 중학교 교과과정을 따르려고 하기보다 학생들의 처지라든가 고등공민학교가 추구하였던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후기에는 선화와 같은 학교의 신설도 있었지만, 학교간의 통합도 있었다. 웨슬레구락부가 마산고등공민학교를 통합하여 마산웨슬레고등공민학교로 출범한 것이다.

이 통합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만큼 많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인

다.¹⁷⁶⁾ 간단하게 요약하면 마산고공의 설립자인 노현섭은 1961년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다. 교원노조 활동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형이 한국전쟁 시 보도연맹에 연관되어 처형된 사실도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 구금된 지 2년여 만에 풀려났으나 다시 가택 연금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마침내 1965년에 마산고공은 웨슬레고등 공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설립자 역시 노현섭에서 서익수로 변경하였다.¹⁷⁷⁾ 당시의 문서를 보면 노현섭은 수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고, 현 마산고공의 건물이 서익수로부터 임차계약된 것도 양도한 이유가 되었다.¹⁷⁸⁾ 갖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1961년 이후 노현섭은 구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을 것이다. 통합 작업은 이미 1963년에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이 해에 북마산교회 서익수가 노현섭에게 건물을 3년간 대차하여 주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마산고공은 1965년 9월 1일에는 정식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과 서익수에게 이전되면서 웨슬레고등 공민학교로 개명되었다.¹⁷⁹⁾

웨슬레로 통합되기 직전인 1964년에 마산고공은 학칙을 개정하였다. 학급수를 주야 각학년 1학급씩 전학급을 6학급으로, 학생 정원은 1학급 50명씩, 300명에 남녀 공학으로 개정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하였고 이

176) 홍중조·이상용 공저, pp.314~317.

17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1985년 4월 8일, 「웨슬레, 한빛고등공민학교 폐지인가철」〈인가증. (1965년 2월 25일)〉

17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설립권양도서〉(1964.7.24.)

17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1985년 4월 8일, 「웨슬레, 한빛고등공민학교 폐지인가철」, 〈건물대차해약서〉.

는 받아들여졌다.¹⁸⁰⁾ 학생수나 학급수가 두 배로 커진 것이다. 또한 야간 학급도 1개를 배정받아서 주간에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렇듯이 남녀공학이자 주야 학급이 동시에 운영된 것은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 작업이 노현섭에 의한 것인지 서익수의 의도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통합을 앞두고 증원이 이루어진 것은 학교의 발전 가능성이나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현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만하다.

이 통합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구세군일지-마산학교』 1963년 11월 14일 자에 ‘마산고등공민학교생 본교편입(전원)’이라는 기록 때문이다.¹⁸¹⁾ 마산고공 재학생들이 웨슬레고등공민학교로 가지 않고 구세군고공으로 전원 편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웨슬레 측에서 인수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마산고공이 가지고 있던 법적 요건, 곧 인가권과 그에 따른 학급수 등이었으며 그에 따른 학칙변경이나 시설 등의 문제도 웨슬레 쪽에서 주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래도 마산고공의 학생들이 왜 웨슬레로 편입되지 못하였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을 해 본다. 구세군과 마산고공은 신마산 일대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반면, 웨슬레는 북마산에 있기 때문에 통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짐작일 뿐이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18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1964년 *월 *일, 〈학칙〉

181) 『구세군일지- 마산학교』 1963년 11월 14일자 참조.

후기의 변화는 통합으로 그치지 않고, 중학교로의 전환도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가 그런 사례이다. 의신여고공은 1차적으로 학생 및 학급 증설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개교 이후 의신은 매학년 1개 학급 체제를 유지해 왔다. 다만 교정은 상남동의 호주선교사회 본부에서 교방동으로 이전하였고, 교명도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에서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로 바꾸었다. 특히 교방동 학교터는 이후 1968년도에 의신여중으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으니 이곳으로 이전할 때부터 중학교를 꿈꾸어 온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1967년 11월 22일 의신은 경남교육위원회에 학칙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 내용은 현재 전체 3개 학급과 별과 1학급으로 4개 학급을 운영 중이며 전체 학생은 200명인데 이를 매 학년 2학급씩 6개 학급에 360명으로 증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최봉선은 마산의 도시화, 공업화, 인구증가, 인구이동, 의무교육인 중학과정 희망자의 대폭 증가, 그리고 가정형편상 향학열에 불타지만 정규 중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¹⁸²⁾ 중학과정 희망자 증가와 고공 학생 증원은 사실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가 다음 해인 1968년에 의신여고공을 중학교로 전환하려는 의도 아래 진행된 사전 작업의 성격이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위원회는 12월 9일에 인가하였다. 마산시교육청에서는 현지 조사 결과 공사립 중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못

18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학칙변경사유서〉(1967.11.22.)

지않은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학급 증설에 문제가 없다는 회답을 도교육위에 올렸다. 또한 학생 수용 능력에 대해서도 “본교는 1967학년도 150명 지원의 예로 보아 1968학년도에도 수용 능력 인원 120명은 무난할 것으로 간주됨”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시의 교방동에 위치한 의신의 총부지는 723평, 건평 365평, 5개의 교실과 교무실, 기타 건물 3동을 갖춘 형태였다.¹⁸³⁾ 따라서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가 6학급의 360명 학생수를 유지한 것은 1년 동안이었다.

마산시에서 조사한 1968년과 1969년 무렵의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현황은 다음 <표 44>와 같다. 1966년 현재 4개교였으나 2년 뒤에는 1개교가 증가하여 5개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학급수는 14학급, 학생수는 704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1965년의 666명에 비해 38명이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선화가 개교한 이후에는 학급수가 22학급, 학생수는 1,047명으로 1966년에 비해 343명이 증가하였다. 교원수는 1963년의 통계에 25명이었으나 1968년도에는 41명으로 5년 사이에 16명이 증가하였다.¹⁸⁴⁾ 이러한 통계의 증가에는 기존 학교의 자연 증가분이 한 몫을 차지하였으나 그보다는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개교가 크게 작용을 하였으리라고 본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7명에서 50여명 사이였다.

18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고등공민학교 학칙(학급증설) 변경인가> (1967.12.9.)

184) 마산시, 『제4회 통계연보』(1968), p.183; 『제5회 통계연보』(1969), pp.138~139.

〈표 44〉 1960년대 후반기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현황

연도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			재학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66	4	14				704	389	315
1967	4	18				952	458	494
1968	5	22	41	29	12	1,047	457	590
1969	5	23	42	31	11	840	563	277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선화고등공민학교를 비롯한 고공 재학생이나 졸업생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마산지역 고공생들의 학교 지원동기나 가정환경, 진로문제 또는 학교생활 부분에서도 조사되지 않았거나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답할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의 남긴 동창회 카페나 졸업생과의 면담, 혹은 드물게는 문집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우선 고등공민학교는 국민학교 졸업자격만 있으면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선화고등공민학교는 학칙에서 입학자격으로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한 자, 2)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등이다.¹⁸⁵⁾ 이와는 달리 마산고공에서는 전향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¹⁸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도 고등공민학교 입학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고공에 공민학교나 동등 학력 소지자가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전향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

18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선화고등공민학교학칙〉 제5조.

18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학칙〉.

력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는 자격보다는 학력의 수준을 중시한 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한다. 마산지역에서는 고등공민학교도 입학자수보다 지원자수가 많아서 경쟁을 해야 했다는 점이다. 1966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 36>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된다. 마산고공을 통합하여 출발한 마산웨슬레고등공민학교는 지원자수가 모두 84명이었고, 그 중에서 입학자는 72명이었다. 여학생은 1명만이 미입학하였지만 남학생은 11명에 달했다. 구세군은 이보다 더 심해서 58명 모집에 82명이 응시하였고, 의신여자고공의 경우도 50명 모집에 70명이 응시하였다. 대창 역시 50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하였다. 주야 총지원자수는 303명인데, 입학자수는 230명이었다. 적어도 계산상으로 73명이 입학하지 못하였거나 안했던 것이다. 선화고공의 설립 동기에도 이러한 지원율이 작용했을 것이며, 실제로 마산시 교육 당국자도 자신들이 작성한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선화고공의 설립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렇듯이 1960년대 중반에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에 학생들이 몰린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내부의 우수한 교사진과 설립자측의 열성, 기관들의 후원 등 내부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마산은 도시화, 공업화, 인구증가, 교육열 등 새로운 변화가 초래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마산고공은 웨슬레에 통합되기 직전인 1964년의 학칙 변경 요청에서 학급수를 주야 각 학년 1학급씩 전학급을 6학급으로, 학생 정원은 1학급에 50명씩 전체 300명으로, 또한 남녀공학으로 변경하려 하

였고, 이는 인가되었다.¹⁸⁷⁾ 마산의신여고공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학년 1학급으로 되어있는 현행 학칙을 각 학년 2학급으로 바꾸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요청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도시사회의 변화였고, 이는 바로 승인되어 1967년부터 1개 학년 2학급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¹⁸⁸⁾

그렇게 되면서 마산에는 의신여자고공이 중학교로 전환하기 직전인 1968년에는 모두 5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래의 <표 45>는 그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일부 학교들은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경우도 있고, 명칭을 바꾸거나 통합된 사례도 있으며, 또 모집 정원 역시 교육당국에 신고한 것과는 다르게 운영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기는 어렵다.¹⁸⁹⁾

〈표 45〉 1960년대 후반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현황

교명	존속기간	모집정원	위치	설립자
1)마산여자고등 공민학교	1951.6.28~ 1968.12.3	1) 본과(3년) 50명, 별과(1년) 50명 총 4학급 200명. 2) 68년 6학급 360명	1)마산부 상남동 74번지 2)마산시 교방동 208-1	YMCA 마산지부장 최봉선
2)의신여자고등 공민학교로 개명 (1954년 이전)				
3)1969년 의신여중 전환				

18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1964년 *월 *일, 〈학칙〉.

18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365, 「고등공민학교학칙(학급증설)변경인가건의(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 〈학칙 변경사유서(1967년 11월 22일) 및 〈고등공민학교 학칙(학급증설) 변경인가건의〉(1967년 12월 9일)〉.

189) 「마산시통계연감」(1967)에는 1966년말 현재 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급수로는 15학급, 학생수는 704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65년에 비해 38명이 증가하였다.

교명	존속기간	모집정원	위치	설립자
1)마산고등공민학교 2)웨슬레고등 공민학교로 개명	1)1957.7.15. 2)1965.9.1. (웨슬레고공) ~1985.5.6	1)3학급 150명 2)주야 각 2학급 360명	1)중앙동 1가 17번지 부두노동조합 2)마산시 회원동 480	1)마산부두 노조위원장 노현섭 2)1965년 이후 서익수
구세군고등 공민학교	1) 비공식: 중등부 1957, 초등부 1955 2) 공식: 1962.1.31.~ 1977.2.	1)3학급 180명(허가서) 2)주야2 학급당 50명, 전체 300명(신청서) 3)실제: 중.초등부(1964년), 중등부 단독(1968년)	*마산시 장군동 2가 13번지 (구세군 마산영)	구세군 마산영 권태훈
대창고등 공민학교	1)비공식: 1961.7.19. 2)공식: 1964.7.22.~ 1979(7)	야간 50명(?)	*마산시 화영동 5-1	1)교장 신광부 2)1969년 3월 이봉규 교장 (시내 J여고 교사) ¹⁹⁰⁾
선화고등 공민학교	1)비공식: 1963. 2)공식: 1966.9.30.~ 1983.2.	1)비공식: 3학급 여, 야간 2)공식: 3학급 180명 (남녀공학)	1)마산시 상남동 31-1 2)상남동 64-1 (1972년)	제일여고 교사 김인택

그렇다면 이들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이나 학교 생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하였을까? 선화고공 출신들이 카페에 남긴 사진을 보면 배구와 같은 운동시합, 여학생반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수업시간에 질문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사실습, 과학실험, 남녀 학생들의 노래연습, 수학여행 등 각종 교내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앨범 촬영

190) 『경남매일』 1969년 6월 25일자.

용이라서 교내 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느 중학교와 같이 교과와 교내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구세군고공의 학생들도 소년스포츠 대회에 참석하거나 조리실 혹은 소쿠리섬으로의 소풍, 구암에서의 송충이 구제작업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다.¹⁹¹⁾ 또 웨슬레에서는 서울 남산으로 수학여행을 간 사진이나 인근 산인뫼으로 소풍간 사진도 남아 있고, 무학여고에 가서 운동시합을 마친 장면도 있다. 이곳에서는 문예지를 발행한 자취도 남아 있다. 일상적인 중학교 생활이다.

이들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주눅 들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갖가지 배려를 했다고 한다. 복장부터 중학교와 같은 형식이었고, 교과과정이나 교과서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학습 실력은 다른 중학교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았다고 술회하였다. 구세군의 어느 졸업생은 당시 시내의 정규 중학교 학생들과 공개시험을 보았을 때 그들보다 성적이 높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자랑하였다.¹⁹²⁾ 마산의신여고공은 출발 때부터 마산의신여자중학교로 간판을 달았던 것으로 보면 이들은 음으로 양으로 중학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곳 출신들은 사회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⁹³⁾ 이는 선화 출신뿐만 아니라 웨슬레고공이나¹⁹⁴⁾ 구세군고공, 그리고 대창고공

191) 구세군일지, 1975년도 참조.

192) 이영숙의 회고, 2021년 8월 27일 전화면담.

193) 졸업생 남영민의 회고, 2013년 9월. 의창구 팔용동 삼진빌딩 내 Electronics Consulting에서 면담.

194) 웨슬레고공 출신들은 2009년 8월에 「마산웨슬레의 추억」이라는 카페를 열었다.

<https://cafe.daum.net/dnptmffp/G05g/3>

또한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목사는 웨슬레고등공민학교를 다니던 중 신앙을 갖게 되어 목회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자술하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5908&code=23111212&cp=nv>

출신들에게서도 보이는 바이다.¹⁹⁵⁾

반면 이들은 교외에서나 동창회 카페에서나¹⁹⁶⁾ 자신들을 ‘중학교’ 학생이나 졸업생으로 불렀다. 학교 측의 갖가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고등공민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졸업 이후에도 자신들의 출신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창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최영옥(가명)도 60대 이후에 들어와서야 어느 회사의 지원서에 자신의 학력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감추거나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으나 나이가 들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깨달았다는 것이다.¹⁹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에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는 의신여자, 구세군, 웨슬레, 대창, 그리고 선화 등 5개교가 고공의 발전을 견인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당시의 중학교가 마산중, 마산여중, 제일여중, 마산동중, 성지여중 등 5개교였던 것과 비교되는 숫자이다. 물론 학생수나 학급수, 교사수 등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적었지만, 외형상으로는 5개교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성기는 사실 순간적인 것이었다. 1969년에 의신여자고공이 의신여자중학교로 전환하였고, 웨슬레고공을 운영하던 서익수도 같은 시기에 마산무학여중을 설립하면서 방향 전환을 꾀했기 때문이다.

195) 구세군고공을 졸업한 이영숙이나 대창고공을 졸업한 강재호도 그 점을 인정하였다.

196) <http://cafe.daum.net/masansunhwa> 참조.

197) 최영옥(가명), 최씨는 1952년생으로 1965년에 대창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하였고 3년 뒤 졸업하였다. 2021년 8월 18일 전화대담.

1960년대 말에 의신여고공이 중학교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구세군과 대창이 언제 폐교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국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언론 관련 기사도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세군에서 작성한 『구세군일지-마산학교』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1975년에 제17회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76년도에도 제18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더 중요한 점은 1976년 3월 6일에 입학식을 거행하여 남 13명, 여 42명이 입학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어 1977년에 마산영의 땅 450평을 매각하고 있다.¹⁹⁸⁾ 따라서 최소한 1976년까지 신입생을 받았으며, 이듬해인 1977년도에 영지를 매각하였다면 이때 비로소 학교문도 닫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입학생이 졸업하는 해가 1979년이므로 졸업생들의 회고와 맞아떨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구세군의 경우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사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영지의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대창도 거의 같은 시기에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대창이 문을 닫을 당시의 상황이나 폐교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98) 구세군 제공, 일지, 1977년 4월, 1975년 2월 8일자, 1976년 2월 16일자. 1976년 3월 6일자.

곧 1970년대 말에 이르면 1960년대 후반의 5개 고등공민학교 체제에서 웨슬레고공과 선화고공만이 남은 2개 고등공민학교 체제로 축소되었고 그만큼 고등공민학교가 사회교육에서 차지하던 비중이나 학생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점에서 웨슬레의 70년대 말 졸업생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개교 체제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¹⁹⁹⁾

그렇다면 1970년대 후반기에 고등공민학교는 이미 쇠퇴하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웨슬레의 연도별 졸업생 총 1,279명의 배출 현황을 보면 고등공민학교의 수요는 여전히 있었던 것 같다.²⁰⁰⁾ 이 학교는 마산고공과의 통합 이전에는 졸업생이 8~32명대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50명대에서 1970년에는 71명, 1979년에는 92명까지 증가하였고 1980년에도 89명을 졸업시켰다. 2학급 120명 정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중도탈락자는 28명이었고, 졸업생은 92명이었다.²⁰¹⁾ 이 규모로만 본다면 당시의 전국적 상황에서 매우 양호한 실적이었다. 적어도 학생수가 적어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개교 체제로 바뀐 탓도 적지 않을 것이다.

199) 그러나 웨슬레의 1979년 2월 13일에 찍은 제20회 졸업앨범을 보면 학생이 24명이고, 교직원은 9명이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남학생만이 보여서 전체 졸업생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달리 1981년 졸업사진에는 남학생 17명, 여학생 30명, 교직원 9명이다. 당국의 기록에 81년도 53명이라고 한 것과 약 6명의 차이가 있다. 아마도 앨범 촬영에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https://cafe.daum.net/dnptmffp/G05h/12> <카페앨범> 참조

20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1985년 4월 8일, 「웨슬레, 한빛고등공민학교 폐지인가철」 <실태조사서>.

201) 1967년도 웨슬레고공의 졸업예정자는 32명이었다. 웨슬레 문예부, 「등불」 제1호(1967년 2월), p.34. 아래의 통계표에 나와 있는 67년의 47명보다 15명이 적다. 따라서 교육당국에 제출한 졸업자수와 실제 숫자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표 46〉 웨슬레고등공민학교의 연도별 졸업생 현황

연도별	졸업생수	연도별	졸업생수	총계
1960	12	1973	47	
1961	8	1974	48	
1962	17	1975	44	
1963	22	1976	58	
1964	32	1977	89	
1965	53	1978	84	
1966	55	1979	92	
1967	47	1980	89	
1968	64	1981	53	
1969	66	1982	51	
1970	71	1983	27	
1971	48	1984	37	
1972	41	1985	24	1,279명

실제로 고등공민학교는 전성기라고 생각되는 1960년대 후반에도 정원을 채우지는 못하였다.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 학급 증설 요청 때인 1967년도에 경상남도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실제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인가 인원은 주간부 각 학년 모두 50명씩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파악한 것이다. 1학년은 50/40명, 2학년은 50/44명, 3학년은 50/25명이었다. 150명 정원에 109명이 재학 중이었다. 1학년부터 정원이 차지는 않았지만 2학년까지는 그런대로 적정규모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학년에 이르면 25명, 곧 절반의 결원이 발생한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재학생 비율은 약 73%이고 1, 2학년은 84%이

지만 3학년으로 인해 73%까지 하락한 것이다.²⁰²⁾ 이렇게 따지면 웨슬레의 졸업생 현황도 1970년대 후반 몇 해를 제외하고는 절반도 채우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1970년대 후반기에 진행된 학교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1차적으로 학생수의 감소가 큰 요인이었으리라고 본다. 웨슬레고공은 1985년의 폐지요청서에서, 1981년 8월 현재 학급수 및 학생수의 “갑작스런 감소”(강조점 필자)에 따라 구 학칙으로는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학칙을 변경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다.²⁰³⁾ 제6조 학급 조항에서 “학급수는 한 학년 1학급씩 전학급을 3학급으



<그림 17> 마산시 화영동에 있던 대창고등공민학교터

20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36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고등공민학교시설대장〉.

20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웨슬레, 한빛고등공민학교 폐지인가철」, (1985년 4월 8일), 〈학칙변경사유서〉.

로 한다”와 제7조(학생정원)에서 “본교 학생정원은 1학급 60명씩 180명으로 한다”가 주된 변경 내용이었다. 곧 학급수를 6개 학급에서 3개 학급으로, 정원은 360명에서 180명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표 45〉에서도 보이듯이 졸업생은 1980년까지 89명, 81년에 51명으로 50명대를 유지하였으나 1983년에 이르러 27명으로 급전직하하였다. 지원학생 감소는 이미 구세군과 대창이 문을 닫을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마산시 통계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 이 통계에 따르면 1980년의 학생수는 609명이었으나, 1981년에는 376명, 1982년에는 241명, 1983년에는 76명이었다.²⁰⁴⁾

그러나 이 학생지원 감소가 자연적인 흐름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웨슬레의 교장인 서익수는 웨슬레와 마산고공의 통합 직후에 새로운 중학교의 신설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8년에 무학여중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의 학생수 감소는 고등공민학교 지원자의 감소에 웨슬레가 처한 환경의 복합적 산물이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고등공민학교의 쇠퇴는 피할 수 없는 추세였다. 선화고공이 학생수 부족으로 1983년 2월에 경상남도교육청에 폐교안을 제출하였던 것에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제수준의 향상과 중학교 무시험 진학 등으로 고공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고 이에 따른 재정난으로 폐교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

204) 마산시, 『제17회 통계연보』(마산시, 1981), p.212; 『제19회 통계연보』, pp.208~209.

령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폐쇄를 승인하였다. 기존의 재학생은 1983년 3월 10일자로 웨슬레고등공민학교로의 전입학 조치가 취해졌다. 17년간 배출된 졸업생은 1,941명이었다. 연간 114명이었으니, 평균 2학급의 학생이 졸업한 셈이다. 마지막 몇 해와 졸업생이 없던 초기 3년을 제외하면 연간 졸업생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²⁰⁵⁾

그렇다면 학생수의 감소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선화고공이 제시한 폐교요인은 외적으로 경제수준 향상과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었으며, 이로 인해 진학생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난은 학교운영을 어렵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실 1970~80년대의 마산사회는 경제적 활력이 넘쳤다. 한국철강과 한일합섬의 창설, 마산수출자유지역 설정 등으로 인구가 과도할 정도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외면상 경제적 활기는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넘쳐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가 잇따라 신설된 것이다. 1960년대 말에는 무학여중(1967)과 의신여중(1968)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쳤지만, 1980년대에는 양상이 달랐다. 1980년대에는 양덕중(1980), 마산서중(1981), 양덕여중(1981), 합포여중(1982), 구암중(1984), 구암여중(1984), 합포중(1985) 등 7개교가 신설되면서 중학교의 학생수나 학급수가 급증하였던 것이다.²⁰⁶⁾ 특히 1980년대에 7개의 중학교가 신설된 사실은 중학교와 경쟁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던 고등공민

20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폐인가철」 〈선화고등공민학교 폐지(안)〉 (1983).

206) 「마산교육사」, pp. 148~149.

학교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70년대는 사실 전국적으로도 고등공민학교가 방향 전환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1971년도의 경북 지역의 경우, 64개였던 고등공민학교는 자연 폐교 8개교, 실업교 전환 7개교, 중학교 승격 10개교로 분화되면서 현존학교는 39개로 줄어들었다. 현존하는 고등공민학교도 기회만 되면 중학교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²⁰⁷⁾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곧바로 마산 지역의 고등공민학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시기에 선화고등공민학교는 학생수가 증가하여 교지를 마산시 상남동 31-1의 2개짜리 교실에서 1972년에 대지 2,055평, 교실 5개의 상남동 64-1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²⁰⁸⁾ 웨슬레고공 역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적어도 1980년에는 입학생의 74%에 해당하는 89명을 졸업시킬 수 있었다. 말하자면 선화고공이나 웨슬레고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1970년대 중반까지 마산지역의 고공이 크게 쇠퇴하여 간다는 징후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1970년대 후반까지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가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중의 하나는 이 시기에 증가한 마산의 인구일 것이다. 1970년대는 마산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다. 1975년에는 371,973명이었으니 1970년의 190,992명보다 180,981명이 유입되어 증가율은 94.87%에 이르렀다. 이는 자연 증加分 보다 외

207) 학교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20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폐인가철」, 〈「고등공민학교 위치 변경승인 및 학교위치 변경 신청」〉.

지로부터의 인구유입과 행정구역 확장에 기인한 바가 컸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에는 이러한 증가추세가 주춤해졌으니, 1980년에는 386,773명으로 1975년에 비해 14,800명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1965년을 기준으로 하면 228,144명이 늘어난 것이다.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²⁰⁹⁾

물론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이 증가분이 고등공민학교의 진학률이나 재학율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이 증가분의 성격이다. 1950년대 전후의 증가가 귀환동포와 전쟁난민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1970년대 전후의 증가는 거의 대부분이 마산의 산업화에 따른 외부 노동자의 유입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으므로, 마산의 경제활력이 그대로 이들 노동자의 삶을 제고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공단 주변인 산호동, 상남동 일대는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노동자들 숙소가 잇따라 들어섰는데, 이는 신생의 산업도시가 낳은 새로운 도시풍경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등공민학교의 수요층은 30여년 동안 여전히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학교 운영 당사자나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당국은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외부의 도움 없이 학생의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꾸려나갔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구세군이나 웨슬레와 달리 선화고공은 소속 단체나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궁

209) 『마산시사 제1권 환경과 역사』(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p.76.

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증언이 있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후반기까지 회원국민학교 교실을 빌려 여러 반의 공민학교를 운영했던 어느 교육자는 마산시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말한다. 공민학교에 교사의 거마비나 학생들의 학용품비, 운영비 등 교원과 학생에 대해 학기당 약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이 고등공민학교에도 분명히 적용되었다고 말하였다.²¹⁰⁾ 교육당국이 고등공민학교의 어려움에 완전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고등공민학교가 쇠퇴한 결정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것이었다기 보다는 1980년 초에 시작된 중학교의 대거 신설에서 찾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다. 1985년의 웨슬레고공 폐지 인가요청서에서 “1981년도에 갑작스런 학생수의 감소”가 폐지의 주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폐교 이후에 따르는 뒤처리에는 잔여 학생 전학, 재산정리, 사용한 문서의 정리였다. 선화고공의 경우 학교부지 및 건물은 소유권자 앞으로 귀속 조치하며, 학적부 및 졸업대장 등 보존문서(직인, 계인 포함)는 관할 교육청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할 것, 그리고 재학생은 웨슬레고등공민학교로 전학시킬 것 등이었다. 선화고공의 재학생은 모두 37명이었는데, 그 중 2학년은 14명, 3학년은 23명이었다. 남학생은 2,3학년에 각각 6명씩,

210) 고명천, 2021년 7월 19일 증언, 공민학교의 경우 1960년대에 한 학급에 학기당 5천 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자신은 회원국민학교에서 교실을 얻어 몇 개 반의 공민학교를 운영하였다.

여학생은 8명과 17명이었다.²¹¹⁾ 웨슬레고등공민학교 역시 1985년에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으로 종말을 고했다. 이 중에는 선화고공 전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²¹²⁾

글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해두고 싶다. 1951년부터 시작된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 역사에서 이곳을 졸업한 학생수는 얼마쯤 일까 하는 것이다. 앞서 그 부분을 조금씩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것이다. 가장 먼저 문을 연 마산여자고공(뒷날의 의신여고공)은 1954년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 뒤 1968년까지 지속하였으므로 연간 40여 명 정도가 졸업하였을 것이며, 14년간 560~600명 정도였을 것이다. 구세군의 졸업생을 계산하는 일은 좀 어렵다. 우선 비공인기간이 적어도 5년인데다, 초등부도 있었고, 또 신청시의 학급구성과 허가사항이 달랐기 때문이다.²¹³⁾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1957년부터 1979년까지 1년에 약 60여 명 정도가 졸업하였을 것이며,²¹⁴⁾ 22년간 1,200~1,300여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웨슬레는 1960년부터 1985년까지 1,279명이 졸업하였다. 이는 웨슬레구락부 시절부터의 졸업생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1965년에 웨슬레로 통합된 마산고공의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960년부

21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폐인가철」 〈선화고등공민학교 학생 전입학수〉 (1983).

21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1985년 4월 8일, 「웨슬레, 한빛고등공민학교 폐지인가철」 〈웨슬레고등공민학교 폐지안 실태조사서〉.

213) 1968년에 입학한 이영숙은 자신이 다닐 때는 한 반이었으며, 학생이 좀 많았다고 한다.

214) 구세군 일지에 따르면 1975년 제17회 졸업식 때 39명이 졸업하였다. 또한 그해 70명의 입학생을 받았다. 구세군 일지, 1975년 2월 8일자 및 3월 15일자.

터 졸업생을 배출한 마산고공에서는 1963년까지 연간 약 40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왔을 것이며, 4년간 약 160명 정도가 졸업하였을 것이다. 대창고공의 경우 최초 설립일인 1961년부터 1969년까지 배출한 졸업생이 약 600여 명이었다.²¹⁵⁾ 1963년부터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면 연간 80~90명인 셈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창의 총 졸업생을 1979년까지 셈한다면, 600명 플러스 800명(10년*80명), 곧 1,400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웨슬레에 비하면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해에 50~60명을 넘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¹⁶⁾ 이를 감안하면 17년 동안 약 800~1,000명 정도가 졸업하였으리라고 본다.

구세군의 경우 셈하기가 쉽지 않다. 비공식적인 출발연도가 있는데다, 중도에 학급을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또 초등부와 중등부가 섞여 있는 것도 통계를 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 『구세군일지 -마산학교』에 따르면 졸업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7〉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연도별 졸업생 현황

연도	졸업생	연도	졸업생
1955	중등부 속성과 70명	1960	초등부 4회 24명
	초등부 속성과 수료 130명		중등부 2회 21명
1957	초등부 1회 49명	1961	초등 5회 88명
1958	초등부 2회 44명		중등 3회 20명
1959	초등부 3회 33명	1974	16회 28명
	중등부 1회 7명	1975	17회 39명

215) 「불우한 學生들의 배움터 대창고등공민학교」, 『경남매일』 1969년 6월 25일자.

216) 앞에서 인터뷰한 대창고공의 최영옥은 자신이 다니던 1960년대 중반에 한 학급에 2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속성과까지 포함하면 초등부에서는 368명이 수료 내지 졸업을 하였고,²¹⁷⁾ 중등부에서는 1975년까지 185명이 졸업하였다. 중등부의 경우 1회 졸업생인 7명을 제외하면 대개는 20~30명 수준이다. 곧 최대한으로 잡아도 3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곧 1976년에 55명이 입학하였고, 1975년에도 70명이 입학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들 입학생 중에서 적어도 40~50명이 졸업하였다고 가정하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1960년대보다는 1970년대에 들어 졸업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연평균 30명대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선화고공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7년간 배출된 졸업생은 1,941명이었다. 이 숫자는 교육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이라서 믿을 수 있다고 본다. 대략 1년에 약 115명 정도가 졸업한 셈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1954년부터 1985년까지 31년간 마산지역에서 배출한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은 약 5,500명에서 6,000명 사이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특이한 것은 선화고공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제일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에 들어 연간 졸업생이 100명이 넘었다는 점이며, 구세군고공 역시 70년대에 들어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웨슬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곧 1950년대보다는 1970년대에 들어 졸업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17) 『구세군일지-마산학교』, 1965년 3월 6일자에 야간부를 통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야간부가 초등부였는지, 아니면 본래 신청하였던 중등야간부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자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졸업생 규모는 마산시에서 펴낸 통계치와 어느 정도 근접한다. 이 통계연보에 따르면²¹⁸⁾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은 총 5,268명이다. 1962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졸업생 숫자를 연도별로 알 수는 없으나 1967년에 한 차례 누계된 적이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1984~85년과 그 이후의 졸업생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5,50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

〈표 48〉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졸업생 추산

학교명	졸업생 배출기간	연간 졸업생	총 졸업생
의신	1954~1968	연간 40여 명	총 560~600여 명
구세군	1957~1979	연간 30여 명	총 660여 명
마산공공	1960~1963	연간 40여 명	총 160여 명
웨슬레	1960~1985	연간 약 50명	1,279명
대창	1963~1979	연간 50~60여 명	800~1,000여 명
선화	1968~1983	연간 약 115명	1,941명
계			5,400명-5,640명

218) 마산시에서 펴낸 통계연보 중에서 고등공민학교 관련 통계는 1963년부터 1983년까지 작성되었다.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4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의의와 특성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의의와 특징

고등공민학교는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을 거치며 급격하게 변화를 겪었던 한국사회의 한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이들 학교의 운영 실태에 관한 것이 많았고, 통사적으로 혹은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교육사는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정규교육코스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공민학교나 고등공민학교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갖거나 혹은 움츠러들면서 좌절하는 학생과 교육자, 그리고 그 배후에 학부모와 사회가 있었다. 이들의 면모를 남겨진 자료를 통해 접근해보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공민교육은 덴마크의 사회교육에 뿌리를 두고 일제 시기부터 싹이 트고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문해 교육이었고, 중학교 수준의 사회교육은 이 교육체제를 좀 더 상급단계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새로운 국가 건설은 국민의 문자해독을 전제로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에 필

요한 인재 역시 적어도 중학교 수준의 교육체계를 이수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고등공민학교는 6.25전쟁 전까지 발전하는 듯 보였으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 논문에서도 이런 흐름을 감안하여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를 3개 시기로 크게 나누었다. 초기는 1950년 전후 창립기, 1960년 전후의 발전기, 1960년대 후반기 이후를 전성기와 쇠퇴기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고등공민학교가 문을 닫는 1985년도까지 분석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마산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선 고등공민학교가 경남 내의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또 각 시기마다 사회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산지역에서는 1949년부터 고등공민학교 설립허가를 교육당국에 제출하였고 이는 1950년 직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마산은 해방 이후의 귀환 동포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였다. 그 결과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동진고등공민학교, 그리고 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가 설립신청을 하였고, 모두 인가되었다. 그러나 직접 운영된 곳은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뿐이었다. 이 고공은 몇 년 후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로 개명하고 교사도 상남동에서 교방동으로 이전하였다.

독립운동가인 최봉선이 세운 마산여고공은 교육목표나 교과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맞는 고등공민학교 제도를 발전시켰다고 보았다. 특히 여성교육의 낙후성에 주목한 점이나 새 국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 그렇다. 이 여고공은 1969년에 의
신여자중학교로 변신할 때까지 고공 교육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전후는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마산고등공민학교, 구세군의 종교적 목표
와 사회교육을 결합하려 한 구세군고등공민학교가 신설되었고, 공민학
교 중심이던 웨슬레구락부에 고등부가 설치되면서 고등공민학교의 전성
기를 열었다. 전성기라고는 하지만, 도시의 인구나 사회구조 등은 귀환동
포와 전쟁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1950년대 전반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빈민사회가 구조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편이 더
적확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필요성은 더 증대
되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이 빈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상남동, 회원동, 교
방동, 그리고 신마산의 중앙동이나 월영동 등지에 집중된 사실도 그것을
반증한다. 이들 지역은 귀환동포와 전쟁난민이 많이 살고 있었고, 공민학
교나 고등공민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이들 지역 출신이었다.

이 시기 고등공민학교의 특징은 종교기관과 노동 관련 기관에서 설립
을 주도하였고, 그 기관의 특색을 반영한 운영방식과 교육과정, 교사 임
용 등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비공식 학교를 개설한 것으로 거슬러 올
라가면 구세군고등공민학교는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
이전에는 초등부를 운영하였다. 구세군에서는 영국의 옥스팜과 구세군
운영재단의 도움을 받아 사회교육에 맞는 시스템으로 학교를 이끌어나
갔다.

마산부두노동조합에서 설립한 마산고등공민학교에서는 노동자 자녀들을 입학시켜 전액 무료교육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마산고등공민학교의 설립자이던 노현섭이 5.16쿠데타로 인해 구금되면서 그는 더 이상 이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웨슬레구락부를 이끌어가던 서익수가 이를 인수하면서 웨슬레고등공민학교를 출범시켰다. 이 학교는 감리교 유지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후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마산의 상남동에 선화고등공민학교가 한 교사의 헌신으로 설립되었다. 이 시기는 마산에 한일합섬이나 현대양행, 나아가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기업 및 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노동자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이들 역시 대부분 빈민층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기왕의 고등공민학교나 신설의 선화 역시 이러한 사회 상황을 반영하였는데, 선화는 특히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에는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가 의신여중으로 전환하여 고공이 중학교로 변신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웨슬레고등공민학교를 운영하던 서익수는 그와는 별도로 무학여중을 개교하여 고공과 정규 중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또 다른 흐름을 주도하였다. 선화여자고등공민학교도 이 시기에 새 교지를 확보하고 선화학원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면서 선화중학교로 전환하려고 시도하였던 것 같다.²¹⁹⁾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선화의 입학인원이나 교사수가 다

219) 「선화고등공민교 중학교로 인가」, 『경남매일신문』, 1969년 1월 14일자.

른 고공에 비해 많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말하자면 선화는 여타 고공과 달리 중학교형 고등공민학교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1960년대 후반기는 고등공민학교의 신설과 중학교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고등공민학교가 쇠퇴하는 조짐은 드러나지 않았다.

마산 지역의 고등공민학교 학생들에 관한 자료는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학 동기나 학교생활, 재적율, 집안의 경제사정, 재학중 취업상황, 졸업 후의 진로, 특히 고입자격검정고시 등에 관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 지역이나 대구 등의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다. 이들 학교의 입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것은 재학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생들은 주간에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대종은 서울의 경우 신문배달이나 신문팔이였다. 반면 마산은 이런 일보다 학교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로 일하거나 부두나 선박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가사를 돕는 학생들도 많았으니 학교 다니는 일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졸업 뒤 진출 분야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그리고 마산에 산재한 방직이나 봉제공장에 취직하는 경우, 또는 간호조무사나 행정서사의 사무보조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공생들은 1953년부터 고입자격검정고시를 통과해

야 고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가 이야기해 주듯이 합격률은 10%와 20% 사이를 오고 갔다.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한 연구자는 이 시험제도가 고등공민학교의 정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의 전도가 막막하게 된 주요인이라고 진단하였다. 마산에서도 이런 사정은 비슷했던 것 같지만, 중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야간학교 진학 혹은 기타 몇 가지의 방법에 의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마산지역의 고등 공민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30% 정도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교과과정이나 교복, 학교 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 이로 인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유지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고공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학생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생들은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중학교’와 ‘중학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는 1970년대 중후반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 같다. 웨슬레고등공민학교의 상황을 보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매년 평균 80~90명씩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선화고공의 경우 학생들이 증가하여 1972년에는 교사를 상남동의 제비산으로 옮기고 시설 확충을 꾀할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하여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고등공민학교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우선은 국민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

서 경제난 때문에 자녀를 고등공민학교에 보낼 빈민층이 크게 줄어들었던 데 있다. 마산에서도 각종 산업의 발전으로 호황을 맞이하던 시대였다. 1979년 무렵에 구세군과 대창이 문을 닫은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고 본다.

여기에 고공의 존폐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1980년 이후 마산 시내에 7개의 중학교가 줄지어 들어선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웨슬레고공의 교장은 1980년에 들어 지원 학생수가 급작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위기를 알렸고, 이는 선화고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1983년에 선화고공이 문을 닫으면서 잔여 학생을 웨슬레고공으로 전학시켰고, 2년 뒤인 1985년에는 웨슬레고공까지 폐교 신청을 하면서 마산지역의 고등공민학교는 역사로만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1차적인 의의는 공민학교나 고등공민학교 모두 개항 이후 마산에서 전개된 마산야학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는 부분일 것이다. 지역유지들은 부두나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익히게 하면서 신학문인 조선어, 일어, 산술, 한문 등을 교육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노동야학이었다. 노동야학의 영향을 받은 부인야학이나 월영야학 등도 이후 부녀자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정신은 최봉선이 설립한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의 설립목적에 잘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시기에 아나키스트로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김형윤의 동진고등공민학교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마산

의 공민학교 혹은 고등공민학교는 물론 덴마크의 Folk School에서 영향을 받은 점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노동야학 혹은 부인야학의 전통을 물려받은 부분이 더 컸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의의는 국가나 사회가 지향하는 고등공민학교의 목표를 잘 반영하여 개교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료로 학교에 다니게 한 것이라든가 구세군고공이나 마산고공처럼 교회유지재단 혹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다. 또한 교사진은 대부분 대학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아서 교육의 질도 비교적 높았고, 교과과정은 고등공민학교에 맞게 과목수나 수업시수를 조절하였다. 또한 주간에 일하는 학생들을 위해 야간부도 운영하였다. 이런 점들이 지역사회의 수요자에게 받아들여져 적어도 1970년대 중후반까지 사회교육의 기본체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국가의 공교육이 빈민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소외를 끌어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등공민학교가 기여한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공민학교의 번영과 쇠퇴를 마산 사회의 역사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학교의 규모나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일이 무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사회 빈민층에 대한 엘리트들의 인식이나 교육을 통한 해결 방식 등에 주목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등공민

학교의 전성기라고 불릴만한 1960~1970년대의 마산 역시 이 도시의 긴 역사에서 높이 솟아올랐던 번영의 시대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려는 도시 엘리트들의 책임감이 높았고, 빈민층 자녀들은 이를 통해 사회 속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50~1960년대의 민족운동가, 교육자, 아나키스트, 공공성이 강한 부르주아, 기자 등으로 구성된 도시 엘리트나 젊은이들은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당당하게 저항하였고, 이는 1979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이는 국가에 관한 관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삶의 토대가 되는 도시를 좀 더 높은 수준의 공공사회로 끌어올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1980년대의 마산은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분야에서 마치 최정점에 선 듯이 보였지만, 뒷날 증명되었듯이 그 외양은 공공성보다는 개인과 상인 집단, 그리고 관료들이 구성해 놓은 이익 네트워크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의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학교를 개교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사명감이다. 최초로 개교를 신청한 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의 김형운은 일제 시대에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으로 무장한 신청년으로 당시 마산 지역의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약자에 대한 부조, 교육을 통한 사회변화 등을 추구하였다. 마산고공을 설립한 노현섭 역시 일본 유학 이후 귀국하여 마산부청에서 근무하던 중 학병으로 끌려갔던 인물이다. 그를 둘러싼 사회 그룹에는 형평운동에 참여하고 러시아의 아나키스트인 크로포트킨의 글

을 번역한 조병기나 김형운 등이 있었다. 또한 4.19 혁명 이후에는 교원노조 활동으로, 또 한국전쟁 직후에는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 부산부두노조 마산지부를 발족시켰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병원을 설립한 점에서 보면 약자, 노동자, 빈민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마산의 상남리에서 출생한 최봉선은 일제 시대에 의신여학교 재학중 3.1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1927년 통영에서 있었던 김기정의 친일망언규탄대회에 참석한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의신여학교도 신사참배거부로 폐교 당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해방 뒤 마산 여자고등공민학교의 개교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의신여중으로 발전시키면서 여성교육과 민족교육에 헌신했던 인물이었다.

또한 고등공민학교의 지도그룹에는 구세군과 감리교도 포함되었다. 개신교의 빈민구제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고등공민학교를 통해 구현된 것이다. 구세군은 마산본영과 옥스팜이라는 영국의 구제본부가 지원하였으며, 웨슬레도 토지와 건물 등을 지원하면서 고등공민학교의 발전을 도와주었다. 물론 개신교 포교라는 목표도 있었으나 기독교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빈자에 대한 구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다고 생각한다. 대창은 3.15의거 이후 젊은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화고공의 개교자인 김인택의 사상은 잘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산업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헌신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지도자들 덕분에

마산의 고등공민학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빈민층 자녀의 교육을 통한 사회구제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적할 특색은 교사나 학생들 모두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른바 근검공학勤儉工學이라는 근대적 개념을 사회적 맥락에서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 근검공학의 모범을 보인 이들은 20세기 초의 중국인들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노동자 신분으로 출국한 프랑스 등지에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이른바 근검공학을 실천하였고 귀국 후에도 노동과 학문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전통적 지식인과 노동자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을 마산지역의 고공생들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근대기에 출현한 고학생이라는 집단을 연상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고학생 중에는 일제 시대의 갑곶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조차 대체로 서울 지역에서 그것도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고등공민학교 중심의 고학생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들은 모두 노동과 학교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험한 셈이었고 이는 고공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이 부분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아나키스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곳 학생들도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의 공존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검 공학은 한국의 교육제도 속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시기가 지날수록 공과 학이 더욱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교과서상에 나타난 실체로서의 생산시스템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도 그에 비례해서 떨어져 갔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 학교는 주야가 공존하고 남녀 학생이 한자리에서 공부하는 공학시스템을 발전시킨 점도 중요한 특색일 것이다. 개항 초기에는 최초의 개신교회인 문창교회조차도 남녀 유별인 상태에서 예배를 보았고, 또 노동야학 부분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회체제였다. 또 당시 마산 시내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것은 오랫동안 신교육제도의 전통으로 고착된 것이기도 하였다. 일부 신설 학교에서는 공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최근의 동향이다. 물론 남녀 공학에 주야반 운영은 학급의 규모가 작고 학생의 구성이 균질하기보다는 다양했기에 그에 적응하는 시스템이긴 했지만, 이는 전통적 관습이 강력했던 당시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견고한 사회적 관습을 공적 제도를 통해 혁파해 나간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 확인한 것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던 지역별, 계층별, 남녀별 교육지체가 고등공민학교 제도에서도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지체란 동일한 교육내용과 제도가 지역, 신분, 성별 등에 따라 지체되어 실행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수도 한양에서 시작된 유교 교육이 사대부가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실은 전형적인 양상일 것이다.

개항기 이후의 근대교육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등공민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근대교육 지체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런 현상은 도시 변두리의 빈민 여성들에게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빈민층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교육 지체는 ‘변경의 변경의 변경’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매우 가혹한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교육기관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빈약했던 점도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학교로 인정을 받았고, 또한 교과과정이나 교사 임용 등의 분야에서도 중학교에 준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실상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주지 않아서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했고 이에 합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합격률이 낮아 사실상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당국의 재정지원 역시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많은 중학교가 공립으로 세워진 것과 달리 공립 고등공민학교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던 사실도 교육 당국이 이들 학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역시 낮았기 때문에 고공 학생들은 자신을 될 수 있는 대로 중학생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실 학생들은 학교 시설이나 학교 이름에서 오는 열등감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고 이는 사회에서의 편견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980년대 초기에

중학교가 대거 신설되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나아지면서 그 존재의 당위성이 사라진 것도 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시기야말로 지역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공공성이 후퇴하고 그 대신 국가의 시스템이 강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상태로 돌입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자료의 부족이나 비공식적 개교, 운영 도중의 학칙 변경 등으로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교 연도는 구세군이나 대창, 웨슬레 혹은 선화처럼 교육 당국에 제출하여 허가받은 시기 이전에 비공인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학생 선발도 애초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주야반으로 뽑는다는지, 규정학생수보다 더 뽑거나 덜 뽑는 경우도 있었던 데다 대부분의 학교는 졸업생 통계가 없었고, 교사 현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까닭에 본문에서 말한 개폐교 연대나 졸업생 상황, 교사충원 등은 자료의 발굴로 인해 달라질 수도 있다. 아울러 경남지역의 전체 양상도 같이 검토해야 해방 이후 이 지역에서 전개된 고등공민학교와 그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경남교육사의 중요한 공백을 메울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그림 참조

■ 표

- 〈표 1〉 공민학교 조직 • • 19
- 〈표 2〉 고입자격검정고시 시험과목(1953년) • • 23
- 〈표 3〉 전쟁 중 고등공민학교 피해상황 • • 27
- 〈표 4〉 1949~1959년간 고등공민학교 현황 • • 28
- 〈표 5〉 1953년 전국의 고등공민학교 통계표 • • 30
- 〈표 6〉 연도별 고등공민학교 분포상황 • • 30
- 〈표 7〉 연도별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학생 현황 • • 32
- 〈표 8〉 1953~1964년 경남지역 고등공민학교 통계 • • 36
- 〈표 9〉 1959년 경남지역 시군별 고등공민학교 현황 • • 38
- 〈표 10〉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초기 설립신청 상황 • • 57
- 〈표 11〉 1945년 9월 중학교 편제와 교과목 • • 58
- 〈표 12〉 1954년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표 • • 59
- 〈표 13〉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1949) 교과과정 및 매주 수업시간수 • • 60
- 〈표 14〉 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1949) 학년별 매주 수업시간표와 담당교사(안) • • 60
- 〈표 15〉 마산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 매주시간수(안) • • 61
- 〈표 16〉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제1차 연도(1951년) 수지개산서 • • 64
- 〈표 17〉 제2차 연도(1952~1953년) 수지개산서 • • 65
- 〈표 18〉 제3차 연도(1953~1954년) 수지개산서 • • 66
- 〈표 19〉 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 1949년도 수지개산서 • • 67
- 〈표 20〉 동진고등공민학교 교사채용 인가신청 • • 69
- 〈표 21〉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교사진 구성(안) • • 72
- 〈표 22〉 1961년 마산시내 국민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진학자 수 • • 79

〈표 23〉 1961년도 마산지역 공민학교 졸업예정자	• • 80
〈표 24〉 마산고등공민학교 교과배당 시수표(주/연간)	• • 95
〈표 25〉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교과배당(주간부)	• • 96
〈표 26〉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교과배당(야간부)	• • 96
〈표 27〉 마산고등공민학교 3개년간 세입 예산표	• • 98
〈표 28〉 마산고등공민학교 3개년 세출 예산표	• • 100
〈표 29〉 마산고등공민학교 찬조금 방명부	• • 102
〈표 30〉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2~1964)까지의 세입예산서	• • 104
〈표 31〉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2~1964)까지의 세출예산서	• • 105
〈표 32〉 마산고등공민학교 교직원명부	• • 108
〈표 33〉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채용예정교원일람표	• • 110
〈표 34〉 1971년도 경북지역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의 진로상황	• • 119
〈표 35〉 경북지역 고등공민학교 학생들의 직업 분포(1970년)	• • 120
〈표 36〉 1966학년도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지원 입학 및 학급편성 현황	• • 136
〈표 37〉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학생수 현황(1966~1980)	• • 125
〈표 38〉 선화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7~1969)까지 세입예산서	• • 136
〈표 39〉 선화고등공민학교의 완성연도(1967~1969)까지 세출예산서	• • 137
〈표 40〉 1967~1969년도 선화고등공민학교 교직원 조직표	• • 140
〈표 41〉 1967년도 선화고등공민학교 채용예정 교원 일람표	• • 141
〈표 42〉 1967년 선화고등공민학교의 교과목과 수업시수	• • 143
〈표 43〉 1969년도 교육부 고등공민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 • 144
〈표 44〉 1960년대 후반기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현황	• • 150
〈표 45〉 1960년대 후반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현황	• • 152
〈표 46〉 웨슬레고등공민학교의 연도별 졸업생 현황	• • 158
〈표 47〉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연도별 졸업생 현황	• • 166
〈표 48〉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 졸업생 추산	• • 168

■ 그림

- 〈그림 1〉 마산중앙야학 29회 졸업기념사진(1939) • • 47
- 〈그림 2〉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상남동 호주선교사회 본부 건물 • • 53
- 〈그림 3〉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 창립자 최봉선 교장 • • 53
- 〈그림 4〉 1954년 3월 20일에 있었던 의신여고 공 제1회 졸업식 사진 • • 74
- 〈그림 5〉 1939년 일본유학 시절의 노현섭 • • 84
- 〈그림 6〉 마산고등공민학교 교사 평면도 • • 85
- 〈그림 7〉 구세군고등공민학교의 제5 회 졸업식 초대장 • • 89
- 〈그림 8〉 구세군고등공민학교 교사 평면도 • • 90
- 〈그림 9〉 현재의 구세군교회 • • 92
- 〈그림 10〉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권태훈 정위 • • 92
- 〈그림 11〉 대창고등공민학교 관련 신문 기사 • • 121
- 〈그림 12〉 선화고등공민학교 위치를 조사한 교육청의 지도 • • 127
- 〈그림 13〉 선화고등공민학교의 상남동 교사 신축 사진 • • 128
- 〈그림 14〉 선화고등공민학교 교실 풍경 • • 131
- 〈그림 15〉 선화고등공민학교 제비산 교정에서 행한 조회 장면 • • 134
- 〈그림 16〉 선화고등공민학교 교무실 풍경 • • 135
- 〈그림 17〉 마산시 화영동에 있던 대창고등공민학교터 • • 159

참고문헌

■ 관보 및 공공기록물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정」. 문교부령 제12호 1951.3.3. 제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정」. 문교부령 제26호 1953.3.13. 일부개정.

「고등학교합학자격검정고시규정」. 문교부령 제37호 1954.9.20. 일부개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타법개정.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67, 「고등공민학교인가철(마산동진고등공민학교)」. 194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0 『마산여자고등공민학교설립인가철』. 195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1 『마산일신여자고등공민학교 설립건』. 4285(195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2, 『고등공민학교인가철(진전고등공민학교)』. 195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175 『(마산)고등공민학교인가』. 1960~196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233 『고등공민학교인가』. 196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365, 『고등공민학교학칙(학급증설)변경인가건의 (의신여자고등공민학교)』. 196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5, 『선화고등공민학교설폐인가철』. 196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6558, 『웨슬레, 한빛고등공민학교 폐지인가철』. 1965.

마산시, 『제1회 통계연보』 (1963), 『제4회 통계연보』 (1968), 『제5회 통계연보』 (1969), 『제7회 통계연보』 (1971), 『제13회 통계연보』 (1977), 『제14회 통계연보』 (1978), 『제17회 통계연보』 (1981).

■ 사기록물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졸업식 초청장」. 교장 권태훈 발행. 1963년 2월 8일. 마산YMCA 소장 기록물.

구세군 마산영. 『구세군일지 -마산학교, 1953-1976』.

웨슬레고등공민학교 문예부, 『등불』 제1호. 1967년 2월.

■ 논문

- 강명숙, 「6-3-3-4제 단선형 학제 도입의 이념적 성격」, 『한국교육사학』 제26권 제2호(2004.10),
- 김경옥, 「20세기 전반 간척으로 인한 섬마을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한국학연구』 72(2020.3),
- 김남식,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동졸업학력 검정 고시제도 개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리특강』, (1982년 1월).
- 김원규, 「일제시기 마산지역 교육기관 실태 연구-사립교육학교를 중심으로-」, 『가라문화』 19(2005).
- 김효일, 「기본학제 개편에 의한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 1900-1993년 마산시의 초·중등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 『교육시설』 1-1(1994).
- 박영주, 「기업과 공장의 혼재를 찾아서」, 유장근 등, 『노산동 명품마을 만들기 스토리텔링 자원발굴 연구조사 보고서』 (창원시청, 국토부, 2013.11).
- 박환보·유나연, 「1950-60년대 고등공민학교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38-2(2017).
- 송성안, 「마산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마산지역의 근대교육」, 『지역문화연구』 제12호(2005),
- 송행희, 「박정희 정권의 비정규교육 정책 연구: '재건학교, 새마을청소년학교, 산업체 부설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32집(2009).
- 신훈철, 「고등공민학교 교육운영실태의 문제점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중등교육전공, 1975).
- 여원희, 「고등공민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일연구」, (계명대학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1971.12).
- 윤동섭, 「고등공민학교의 연혁과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1968.12).
- 이건식, 「고등공민학교 교육개선에 관한 일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학 전공, 1977).
- 이상일, 「해방후~ 1950년대 초 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교육」, 『청람사학』 제31집(2020).
- 이영옥,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고찰」 (경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14).
- 전광수, 「정부 수립기의 사회교육 법제화 과정 분석 -1949년 사회교육법안 입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제18권 2호.
- 홍성기,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행정 전공, 1975), p.15.

■ 저술

- 경상남도 교육연구원편, 『경남교육사』.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1990.
- 경상남도 마산교육청, 『마산교육사』. 경상남도마산교육청, 2002.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 70년사 제1권』. 경상남도교육청, 2017.
- 김준철 저, 『한국구세군 100년사 -1908~2008』. 구세군출판부, 2008.
- 노현섭, 이상용 옮김, 『노동운동의 선구자 소담 노현섭 옥필일기, 민족이어 겨레여』. 소담 노현섭 선생 기념사업회, 2016.
- 마산시사편집위원회, 『마산시사, 제1권 환경과 역사』, 『제4권 경제와 사회』. 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 마산창원 지역사연구회 엮음, 『마산창원 역사읽기』. 불휘, 2003.
- 이은진, 『근대마산 -암축된 모순의 폭발지』.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사회교육 -우리나라 성인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중앙교육연구소, 1966.
- 홍중조·이상용 공저, 『소담 노현섭』. 소담노현섭기념사업회, 2016.

■ 신문기사

- 『경남매일』 1969년 1월 14일자. 『경남매일』 1969년 6월 25일자. 『경남매일신문』, 1991년 10월 21일자.
- 『경향신문』 1967년 2월 1일자. 2013년 10월 17일자.
- 『국제신보』 1964년 6월 6일자.
- 『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자.
- 『마산일보』 1954년 3월 20일자. 1956년 7월 14일자. 1958년 12월 26일자 및 28일자. 1960년 8월 16일자. 1962년 2월 10일자.
- 『민주신보』 1952년 5월 13일자.
- 『민중주보』 994호, 1949년 3월 11일자.
- 『서울신문』 1949년 11월 28일자.
- 『자유민보』 1949년 7월 9일자.

■ 인터뷰

강재호, 대창고등공민학교 1974년 졸업생, 2021년 8월 25일 전화 인터뷰.

고명천, 회원국민학교 부설 회원공민학교 교장 역임, 2021년 7월 19일 면담 인터뷰.

남영민, 선화고등공민학교 졸업생, 2013년 9월 면담 인터뷰.

서익수, 웨슬레고등공민학교 교장 역임, 2020년 12월 22일 면담 인터뷰

이영숙, 구세군고등공민학교 졸업생, 2021년 8월 27일 전화 인터뷰.

최영옥(가명), 대창고등공민학교 졸업생, 2021년 8월 18일 전화 인터뷰.

■ 인터넷 자료

김석원, 「복음의 씨앗을 심은 호주선교사들 -서두화 목사(Rev. Alan Stuart), 『크리스찬 리뷰』 2012년 9월 10

일자, https://blog.naver.com/ch_review/150146964382

도시문화콘텐츠연구소, 『창원시 마산 회원1지구 재개발사업 마을흔적보존사업 실행계획서』 (2017).

<https://www.u-story.kr/1125>

「마산선화중학교」 <https://cafe.daum.net/masansunhwa>

「마산웨슬레의 추억」 <https://cafe.daum.net/dnptmffp/GO5g/3>

허정도, 「회원동, 교원동, 교방동의 생활공간의 역사와 흔적」, 『허정도와 함께 하는 도시이야기』

<https://www.u-story.kr/1126> 2021년 8월 6일 확인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발 행 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 술	유장근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박영주 경남대학교 박물관 비상임연구위원 문채경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연구사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처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Tel. 055) 268-1332
디자인·인쇄	뿌리기획인쇄 Tel. 055) 277-5455

본 간행물의 저작권은 경상남도교육청에 있으며,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 배포할 수 없습니다.〈비매품〉



마산지역 고등국민학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의의
1949-1985

